

第十九回 國會臨時會議速記錄 第九十號 國會事務處

禮紀四二八七年十一月二十七日(土) 上午十時

議事日程(第九十次會議)

一、第八十九次會議錄通過

二、報告事項

三、憲法改正案

討論前案件

一、憲法改正案

(上午十時十五分開議)

○副議長(崔淳周) 第九十次會議錄 開議합니다

第八十九次會議錄을 朗讀하겠습니다

(議事課長 第八十九次會議錄朗讀)

第八十九次會議錄朗讀中 漏落이나 錯誤가 있습니다

가 萬若있으면 通讀합니다 報告事項이 있습니다

○議事局長(徐商俊) 政府에서 十一月二十五日字

로 導入肥料販賣價格改正에對한 同意要請이 있

습니다 本件은 農林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에

廻附합니다

總第九九五號

禮紀四二八七年十一月二十五日

國務總理署理 白 漢 成

民議院議長 李 起 鵬 貴 下

導入肥料販賣價格改正에對한 案件

首條件導入肥料의販賣價格을紙別外如히改正實施호

저財政法第八十三條의規定에依據大統領閣下의命을 承하여 同意를要請하오니 急速議決하여 부심을敬望하 나이

○副議長(崔淳周) 憲法改正案을 上程합니다 大

體討論을 繼續하겠습니다 朴世徑議員나와서 말

씀하세요

(憲法改正案)

○朴世徑議員 어제 本會議에서 오늘 이憲法改

正案을 表決에부치기로 院議에서 決定한바담으

로 오늘 大體討論에있어서 各所屬別로 앞으로

여섯분이 나와서 大體討論을 하기로 되어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바담으로 本議員은 오늘中에表

決한다는 이原則이 決定된以上 簡單히 贊成便

의 意見으로 말마다 本議員의 所信을 말씀드

리려고하는 것입니다 政治는 現實을 無視할수없

다는것이 우리 政治를하고있는 모든 사람의생

각이고 이것을 어찌할수없는 것이라고 本人은

믿는것입니다 原來 우리 憲法이 施行이되고

憲政 過去七年의 歷史를 대들어볼때 大統領實

任制와 內閣責任制이 무거자를 거지고 믿은

論難을 일으켰을 우리가 記憶하고 있는것입니

다 大統領責任制로 만든것은 適當에 制憲國

會當時에 우리 大統領이 行政權의首班이며 國

家の 元首이고 또한 國家를 代表한다고 規定

되어있는바담으로써 우리 나라 憲法은 大統

領中心制로 지금까지 施行이되어온것을 記憶

하고있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第 代國會에는

이 大統領責任制를... 中心制를 더욱 強力히 推

進하는 한가지 改憲이 되었는에 이것은 大統

領直選制이라는 이拔奉改憲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世界 어느나라의 憲法을 보

더라도 本議員이 생각하기에는 英國이나 日本

이나 또한 모든 君主 國家에 있어서 國王이

있는 다음에 內閣總理大臣이라든지 國務總理가

있어서이고 行政權의 首班을하고 있으며 그外

에 國家의 元首이고 行政權의 首班이 아닌대

統領에있어서는 저佛蘭西나 伊太利나 土義耳의

같이 大統領의 任期가 四年이아니고 七年이며

大統領은 國會에서 間接選舉를해서 大統領을選

舉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바담으로 大統領을直

接選舉하는國家 라고하는것은 美國이나 越南美

各國이나 比 實이나 우리나라 大韓民國은이라

고 저는 믿는바담에 앞으로 우리가 國務院實

任制를 말려고 할것같은데 우리가 國民에게

大統領選舉權을 모두였어서 刺奪을해서 우리가

國民이 大統領을 選舉하되 그任期는 四年이아

니오 七年以上으로 저어로 決定을 해가지고行

政權의 首班이라는 權限을 剝奪하기前에는 안

됩니다 本議員은 보는바담으로 現在 大統領中

心制의 問題가 制憲國會에 憲法으로 制定

고 拔奉改憲案으로 因해서 直接 選舉로 決定

한 以上 第三代國會는 이 原理 原則을 整備 하고 補強해서 憲法를 改正하지 않으면 아니 되 겠다 고 하는 것임이다. 오늘날 우리 國內情勢나 모 든 國際情勢를 總體해서 이 憲法改正案을 내놓 고 이것을 저이 決定할려고 하는 이것을 反駁 하는 분도 계시나 本議員이 생각하기는 國民投 票制에 對해서 大體로 이것을 濫用할 憂慮가 있다 또한 過去에 行政府의 實績으로 보아서 能히 그물이 濫用할 充分한 素質을 가졌으니 이 國民投票制을 承認할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 분만 아니라 이것은 各個의 無用之物이라고 이 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本議員도 이 國民投票制 에 對해서 無用之物이 되는 것을 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國家의 主權에 關係된 일을 領土 變更를 가져오는 安危에 關한 重大事況은 우리 國會에서 하나 國民投票에 부칠수 있는 일이 없기 를 希望하고 그것을 우리 國家將來를爲한 多幸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것은 無用 之物이 되기를 神祝하고 願하는 바입니다. 그 러나 이 憲法에 있는 國民投票制은 우리가 主權 에... 에게 蘇宜奎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主 權의 制約은 憲法에 있는 主權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主權에 對한 意義는 우리가 지고 있다고 봅니다. 對內的인 意義 와 對外的인 意義가 있는데 우리가 七條의 二 에 말하는 主權이라는 것은 우리 國家의 獨立權 獨逸에서 말하는 高權의 高次的인 權 이 主權을 말 하는 것이고 또한 安危에 關係된 問題에 對하 시 國家의 安寧秩序가 維持되는 때와 또한 危 險때도 包含되지 않느냐 이러한 質問을 하시는

제 本人은 이 安寧秩序의 危脅을 느낄 때에 限 해서 이것을 適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 에 이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憲法가 規定이 되어가지고 우리 國家에서 憲法 에서 第一直接 民主主義를 採擇하는 것은 大統 領直選制이라고 생각합니다. 大統領直選制로 해 가지고 行政權의 首班을 國民이 選舉하는 것 이 上 그 直接 民主主義를 國家의 重大한 問題를 決定하는 安危에 關한 問題도 國民이 最後의 決定權을 갖는다 고 하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 고 本議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國務院連帶責任制의 또한 國務院不信任權을 撤廢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本議員이 懇頭에 말 하든 바와같이 現憲法은 大統領中心制로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大統領이 行政權의 首班으로 國民이 直接 選舉한 以上 國務總理와의 對立이 나 이런 것이 萬一 憲法上的 矛盾으로 해서 일어 났다고 하면 이것이 國家의 矛盾이요고 是正하 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고 하는 것은 質疑應答에서도 贊成便에서 나와서 말하하신 議員들의 意見과 同一한 것임이다. 그다음에 經濟條項改憲에 있어 서도 第二次大戰以後 世界的으로 分配公平의 原 則으로써서 各國民이 各處의 人間다운 生活을 保障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鐵則下에서 世界的으 로 君臨하고 있는 社會主義的思想을 받아들여서 憲法에 規定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나 우리가 이번 韓國戰亂으로 말미암아서 全世 界的으로 새로운 思潮가 興起되고 있는데 이 것은 우리가 共產主義에 對抗하기 爲하여 民 主主義는 團結해야 되고 民主主義는 些少한 分

配公平보다도 生産增強이 注力해야 되겠다 고 하 는 이런 思潮가 全世界의으로 興起되고 있다는 것은 否認할수 없는 事實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經濟改憲案에 있어서는 우리는 生産을 增強해서 總體的인 우리 國民福에 寄 與해야 할 것임에 現在의 分配公平을 原則으 로하는 國營과 國有의 程度를 가지고 各人의 意慾心을 助長해가지고 生産을 增強한다는 것을 이 原則에서는 우리가 期待할수 없는 까닭으로 이 것을 改正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自由黨에서 는 勞動者와 農民을 爲하는 黨인데 어찌서 獨 占資本을 招來할수 있는 이런 經濟條項을 改 憲하느냐는 말씀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本議員 생각으로는 國家 全體로 보아서 共產主義에 對 抗하는데 있어서는 生産을 增強하는 大體則으 로 우리가 變更해가지고 우리 國民의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은 따로 別法으로 調整해서 일 마든지 保障해줄수 있다고 하는 이런 原則을 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經濟改憲案에 對 해서도 贊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國際情勢 가 休戰後 大端히 危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蘇聯의 平和政勢라는 것은 一時도 우리의 有開 不許하는 이런 形態에 눈머가지고 各種 各 樣의 手段으로 우리 國家의 轉覆을 꾀하고 있 는 것은 休戰後 二말이 政治委員會에 上程할려 고하는 參戰國을 통하여 韓國의 南北總選舉이 나 中立化이니 이런 問題를 떠놓고 있는 것을 볼 때에 能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本議員이 생 각하기를 앞으로 우리 民族陳營이 團結해서 어 기에 對抗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는 與野黨이 없

이 共產主義에 對抗할 充分한 團結이 必要하다
다고 생각합나다

우리는 尙간 共產主義와 싸워야할 時機가 왔
다고 생각합나다 現在 國民의 民生問題라든지
國內의 모든 問題가 우리의 그 비유에 맞지않고
不平不滿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國民全
體가 現象維持보다는 現象打破를 願한다는것도
否認할수없는 事實입니다 現象打破를 願하는方
式에 있어서 共產主義의 侵略을 當면은 六、

二五 專變當時를 回想하고 共產主義革命以外
의 方式으로 우리國民은 現象打破를 願하고있
는것입니다 이것은 率直한 우리 國民의 心情
일것입니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의 現憲法를
가지고있는 大統領 直選制를 抹殺하기前에는 內
閣責任制나 國務院責任制는 到底의 可望이없다
고 생각한 까닭에 또한 本議員은 任期中에大
統領直選權을 國民으로부러 剝奪하는 憲法改正
을 할수없는것을 알고있는 까닭으로 現憲法를
整備補強하는 形式으로 해가지고 이 現象打破
에 努力하는 立場에는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
하는것입니다

이런點으로 보아서 이 改革案에 對해서 全的으
로 贊成하면서 앞으로 몇분이 여기에 나와가
지고 오는 中으로 表決하는가닭으로 本議員은
簡單히 깃파디로 말씀드리서 贊成演說에 代할
려고 합니다

○副議長(崔淳周) 다음은 慶鎮漢議員말씀하세요
○錢鎮漢議員 저는 첫째로 國民投票制를 反對
합니다 主權制度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問題에對해서 國會가 可決한

後에 國民投票에 부근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이
와같은 境遇를 두가지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政府가 專斷을 承認하고 國會가 可
決한 境遇가 있고 둘째로는 國會가 單獨의
으로 그러한것을 可決한 경우일것입니다 그런
에 于先 政府가 承認하고 國會가 可決한 경우
를 우리가想像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두가
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外部의 壓力에 依해서 政府가 國會에
있는 國會議員들이 自己個人的 安全이나 自己
個人的 榮譽을 위해서 卽 利益을 위해서 萬
若에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한 問題를 承認하
고 可決했다고하면 이것은 確實히 나라를 팔
고 民族을 파는 行動이기때문에 이것은 確實히
叛道行爲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國民이 一個月以內
에 國民投票에 부질없고할때에 이사람들은 國
家와 民族을 관사담을이되어서 自己의 安全
을 끝끝내 維持하려고해서 結局은 國民의 國
民投票을 妨害할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그런경우에 國民이 取할 方法은
結局 革命의 立場에 있는것이요 合法的인手
段으로 政府와 國會를 相對해 싸워서 國民投
票에서 그것을 可決시킬수없고 可決 시킨다하
더라도 그結果는 革命手段以外에는 二政府外國
會를 바로 잡을수없을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와같은 경우에는 國民投票은 何等 意義가 없
는것입니다

둘째 경우를 생각할때에 國家安危라는것도
亦是 相對的인것입니다 絶對的으로 이것만이 가
장 安全하다고하는 그러한 絶對的인것이 아니

고 結局 大勢와 여러가지 形便에따라서 現在
外勢의 壓力을 받고있는것에 妥協하는것이 옳
히며 比較的인 意味에서 相對的인 意味에서國
家の 安全이 옳수도 있는것입니다 假令 우리가
가 例를들어 보자면 丙子胡亂때에 主戰派의主
和派가있어서 淸나라에 降伏하자는 派와 또
우자는 派가 있었읍니다 結局은 降伏하고 말
았읍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어느것이 정말國
家安危에 對해서 取할것인가 하는것은 오늘날
까지도 後世의 史家들이 論議하고 있습니다마
는 이 一例를 보더라도 國家安危라는것은 絶
對的인것이 아니고 相對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實例를 들어서 萬若에 유엔이 우리에
게 南北總選舉를 强要한다고 합시다 勿論이
것은 純全히 例意이고 있을수없는 일입니다마
는 유엔이 南北總選舉를 强要하는데 萬若 우
리가 그것을 듣지않는 경우에 軍事的 經濟
的援助를 받고 우리를 民主陣營의 一員으로認
定하지않는다는 最後 不動의 決定이 있을때에
우리가 여기에 對處할 方法은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은 純全히 假想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경
우에 政府가 여기에 屈服을하고 또 國會가이
것을 可決해서 自己에를責任을 回避하려고 所
謂 國民投票制에 부처가지고 이責任을 國民한
에 轉嫁한다고하면 우리가 國民投票으로서 說令
否決했다고해서 유엔決定이 動搖가 된다던 모
르지만 動搖가 안된다것이 決定의이라하면 이
와같은 國民投票은 亦是 한個의 無用한일입니
다 結局 이와같은 경우에 우리가 取할수있는
것은 어찌까지나 政府가 여기에 反對해야되고

大韓民國의 官權이 容認할 것인가 斷然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大統領이나 或은 與黨에서 直接 提出하기가 어려운 強面問題가 있을 때에 는 亦是 民意를 假裝하고 一制度를 利用하기 지 고 國會를 弄르고 民衆의 眞正한 輿論을 抑 壓하는 이와 같은 惡法으로 使用될 것이 明若觀 火하기 때문에 나는 大韓民國의 民主主義發展을 爲해서 이와 같은 國民改進黨發議制에 絕對的인 反對를 表明하는 事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國務總理制廢止와 國務院連帶 責任制削除 卽 國務院不信任案決議權을 削除하 는데 反對합니다. 이것은 역시 反對하는는 議 員들에서 充分한 說明이 있었으니가 仔細한 말 을 안 드렵니다. 마는 그 결과는 結局 政府를 監視 하고 政府의 모든 行政을 調節하는 國會의 技 能이 抹殺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現在도 이國會가 政府에게 그 存在를 認 定하지 못하는 이날에 있어서 萬若 이와 같은 制 度가 通過한다면 國會가 存在할 理由조차 없 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政府로 하여금 專制的인 傾向으로 다라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惡制度는 저는 여기에 徹底히 反對 의 意思를 表示하는 事입니다.

그러면 제가 國民投票制反對로 國民의 改進黨 發議制反對로 國務總理制의 廢止 및 國務院不 信任決議權 削除等에 對해서 絕對 反對하는 것 은 個人의 意思로도 勿論 反對합니다. 마는 나 는 이것이 大韓民國의 國民의 眞正한 意思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大韓民國의 國民을 代 辯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絕對的인 反對의 意

思를 表示하는 것입니다. 結局 卽 二법제 民 衆이 여기에 對해서 反對하는나 그 것은 이제 말할한 그 법가지가 모두다 이政府로 하여금 專制的인 傾向으로 나가게 할 素因이 充分히 있는가 否입니다. 이國民投票制나 國民改進黨發議制과 같은 것은 表面은 民意와 民權을 擴張하는 것 처럼 되어 있지만 其實인즉 官權強化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賢明한 國民大衆은 여기에 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全國民은 여기에 對해서 徹 底한 反對의 意思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民主主義의 痛이 되는 이官僚 政治는 그 根源이 매우 깊고 있습니다. 李朝五百 年封建社會를 통해서 倭政四十年을 통해서 美 軍政三年에 있어서 이와 같은 官僚主義를 踏襲 했고 大韓民國樹立後에도 이官僚政治를 情性的 으로 踏襲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官僚主義의 무 러는 것이 적고 그 腐敗는 대단히 甚하게 되 었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國民이 不平이 있다. 不平이 있다는 것은 決斷으로 오늘날 같은 이國家非常 之秋에 當해서 國民이 잘 살고 잘 먹었다는 말 이 아니에요. 國民의 不平은 公平치 못한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官僚들과 그官僚에 追隨하는 사람들만이 富貴榮華를 누릴 수가 있고 全國民은 이官僚들의 愚弄搾取하는 對象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國民의 不平이 있는 것이요. 結局 國 民의 不平은 가난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富 貴한데 國民의 不平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

이해서 오늘날 이 나라의 政治를 볼 때에 國 利民福을 爲한다는 國家의 權力이 이것을 運 籌하는 官公吏의 私私私私를 제 177 條 條條의 方

便으로 化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國家의 權力 은 正當하게 運轉되지 못하고 때로는 濫用되고 때로는 惡用되고 때로는 暴力化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夫番 五、二十選舉에 野黨으로 出馬하 는 또는 이들을 支持한 黨들은 때때로 이 苦痛 痛恨을 것입니다. 여러분 大韓民國의 警察 은 非但 人權을 蹂躪할 뿐만 아니라 이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 私有財產權까지 否定하는 態度 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러해서 이 나라의 國 利民福과 國家의 權力이 때로는 暴力化해서 民衆을 무드리고 民衆에게 말할 수 없는 行狀을 하고 있 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良心的 食官汚吏라는 말 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薄倖으로 서 到底의 生活을 維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들은 良心에 깨달음이 百姓을 愚弄하고 여러 가지로 搾取해서 自己의 生活을 保障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結局 良心的으로 食官汚吏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所謂 良心的食官汚 吏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政府는 정 말 그 質에 있어서 너무나 腐敗했고 그 量에 있 어서 너무나 過합니다. 이것은 情實人事를 滿 해서 不必要한 많은 人員을 政府에 넣어가지고 이 人員들이 國民에 對해서 個個의 重壓的인 存 在가 되어서 國民은 頭痛을 앓고 있는 것이

예요. 그런데 이改進黨를 통해서 政府의 權力을 強 化한다. 行政力量을 強化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改進黨에 여러분 우리가 政府의 힘을 強

強權主義요하는는 強力主義입니다 卽 強權主義
強權政治라는것은 國家의 權力이 正當의으로
적이지않고 이것이 國民에對해서 強權의 暴力
의인 存在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濫用 濫用이
와같이해서 各個의 國民의 敵이 되어있는것이
이것이 強權政治입니다

그리고 強力政治는 무엇이냐 強力政治라는것은
國家의 法이 嚴正하게 法에로 運轉되어서 信
賞 必罰의 原則에서 強力하게 法이 執行되는
것을 強力政治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強權政治는 排擊하여되지만 強力政治는 歡迎
하는바입니다 強力政治라는것은 官吏의 數가
다는것도 아니고 政府가 權力을 많이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요 政府가 自己의말은 二權力
行使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法을 嚴正하게 지
키고 行政을 強力하게 推進하는것이 이것이
所謂 強力政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政治 形便을 도미켜 볼
때에 事實 이것이 強權政治입니다 強力政治입
니까 나는 여기에 은 變遷을 가져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러분 人類五千年 歷史中에서 強權
政治를 해가지고 結局 敗亡하지않은 나라가 어
디에있습니까 여러분 人類歷史를 回顧해볼때에
모한 우리 大韓民國의 實情을 도미켜 볼때에
우리는 戰慄함을 禁지못하는 바입니다 無條
件하고 政府의 힘을 強하게하라 政治의 힘을
強化하라 이것은 到底히 百姓들이 容認할수없
는것입니다 왜가 往往히 警察暴압이나 支那
을 지날때 警察은民 衆의지 경이라고 써부쳐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볼때 마다
은자서 苦笑을해요 왜하라는 民衆의 지경이
는 往往히 民衆의 痛楚가 되고있습니다 그러
나 民衆이 이것을 지경이라고 믿자해보 이 지
경이로 봐봅시다 그러니까 지경을 지경이로
믿지않는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結局 國家의
權力은 國民의 지경입니다

그러면 大韓民國의 國家權力은 勿論 지경이로
되겠지만 往往히 痛楚가 되어서 國民을 두
들기니깐 아무런 여러분이 이 改憲案을 놓고이
지경이로 다 궁극만드려가지고 다 保護하
다 하르라고 國民은 이것에 속지않어요 더
은 지경이로 구원은 더인이 맞게되니까 그러
니 더 좋은 痛楚를주지 않을려고합니다 이
것이 改憲을 反對하는 理由이요 萬若에 眞
實로 國民의 지경이가 된다고하면은 勿論 더
좋은 지경이로 드미져요.....

우리를 保護하는것이니.....
그러나 이 지경이로 往往히 얻어 맞은단 말
이요 往往히 우리國民의 痛楚가 된다말이
요 그러니 國民은 더 좋은 痛楚를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自由黨의 여러분 確實히 이
것을 믿으셔야해요 (笑聲)

그러면 여러분이 今番에 提出한 改憲案은 確
實히 形式은 如何는間에 그實質에있어서는 政
府의 權力을 더 強하게 하자는것입니다 그러
기 때문에 賢明한 國民은 絶對로 이 改憲案을
支持하지않습니다
여러분 至極히 어리석으면서도 가장 聰明한것
은 大衆입니다 至極히 弱해보이면서도 가장 強

한것은 大衆입니다 決斷로 國民은 못수입니다
여러분 街頭에 나가서 輿論을 물어보세요 누
구나 이 改憲案을 支持하는 사람이 하미는 있
는가 萬若에 정말 國民이 支持한다고 하미는
나도 支持할대이에요 하나 國民은 賢明하기에
문에 이와같은 改憲案을 通過해서 더 좋은 지
경을 만들어주면은 來日부터 그것이 더 좋은
몽동이가되어서 더 얻어맞을것을 알기때문에 支
持안하는것이요 안합니다
그러면 事實은 國民이 政府를 못 믿는다는
이事實은 五、二十選舉에있어서 無所屬이나 野
黨例에게 投票된數가 더 많았다는것으로 證明
이 되지만 五日助에 李在龍議員께서 自白했
습니다 우리 自由黨은 아무런 痛楚를 풍이라 하
드라도 百姓들은 믿지않고 野黨은 贊成을 풍이
라고 하르라고 믿는다고 되었읍니다 이것은
그러나하미는 與黨은 政府를 支持하고있기때문
에 政府는 權力을 濫用하고 있기때문에 이權
力이 恒常 百姓들의 頭痛거리이요 그것을
타명기는 사담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기때
문에 自由黨을 믿지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해요 그런데 이官僚 政治의 腐敗에 다
해서 國民의 違法思想은 完全히 없어졌읍니다
그래서 國民의 마음은 政治와 離脫이되어있고
다 自發自棄的인 利己主義에 떨어져서 이나타
가 잘되는 이民族이 亡하는間에 個人의 私
腹이나 제위가지고 나나 잘 살어보겠다고...
이와같은 人心의 墮落은 아무런 健全하게 發
展하고있는 나라에서도 大端히 무미은 衰頹입
니다 結局 民心이 이와같이 墮落되미는 그나

라는 만드시 危殆로운 法이요 그 면에 合을
 大韓民國은 強한 敵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
 가 北方에서 赤色帝國主義의 魔手が 노리고 있
 는 오늘날이어서 이와 같은 事態가 繼續된다
 면 共產軍이 우리를 치들어오지 않는 다하드라
 도 우리 自體內에서 腐敗해서 自然 崩壞될危
 險성이 많다는 것을 나는 내 모가지가 다라나
 드라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이나라가 亡
 하면 나 첫째부터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勿論 나라도 重하지만 于先 自身이 잘거
 爲해서도? 戒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事態
 를 是正하는 方途는 絶對로 文字만을 가지
 고 改憲을 한다 憲法을 고친다... 이것을 가
 지고서는 絶對로 안됩니다 結局 이것을 打開
 하는 方途는 于先 腐敗한 官僚政治를 뿌리부
 터 뽑아 내야되요 그때 가지고 民生을 安
 定케하고 民心이 歸一되어서 國民이 이나라에
 다가 總 犧牲을 바치겠다는 愛國的 情熱이 失
 아오도록 이政治를 革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 萬一 어찌분해서 改憲 後 가지고 가지고
 이나라의 政治를 安定시키려고 할것같은데 이
 것은 果然 緣木求魚이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자는 것이요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고기를 못잡을뿐이지 弊害는 없
 을지 모르지만 萬一에 어찌분이 이改憲안을 해
 가지고 이나라를 마르짖겠다고 할것같은데 그다
 음에 오는 危險 우리에게 막쳐오는 모든 重
 大한 事態는 自由黨에서 責任지십시요 그러면
 萬一에 이改憲案이 通過된 날에는 官權에 屬
 고있는 우리 國民들이 다시 國會에對한 期待

까지 잃게되어서 民心은 完全히 政治에서 멀
 어지고 大韓民國에對한 關心은 餘地없이 없어
 질것이니 이기운 어떻게할 作定입니까 또 國
 際의으로는 우리 民族의 民主主義的 發展性을
 憂心할게되어서 우리 民族에對한 國際的인 信
 賴感이 弱화될까 나는 憂慮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國會에 있어서 이와같은 民意에 背馳
 되는 改憲案을 否決함으로써 民主主義 國民의
 名譽의 偉大한 힘을 發揮한다고하면은 어찌합니
 다 大韓民國國民이 偉大한 國民이 되지않을
 니까 그러해서 偉大한 國民의 大統領은 더욱
 偉大하고 榮光스명케 되는것이요 그러므로 어
 지는 勇氣를 내어서 이改憲案을 막치고 否決
 함으로써 우리 國民의 더욱 偉大해지지만 우
 리 偉大한 大統領이신李大統領의 榮光도 더
 커질것을 나는 여기에 믿는바입니다 그리고에
 제로는 初代大統領 重任制限 解除에 對해서
 저는 反對합니다 勿論 우리 國民은李大統領
 께서 愛國者이시요 또 그偉大함을 잘 알고 있
 어요 그러나 個人의 生命은 限이있고 國民의
 生命은 無限합니다 그러므로 이나라는 現在에
 살고있는 百姓우리만이 살고 말 나라가 아니
 고 億千萬年 우리 子孫이 살아나갈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萬代에 法을 다우어서
 後代 子孫으로 하여금 亂臣賊子가 되지못하도
 록 하여야될것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나
 는李大統領의 偉大한것을 모르는것은 아닙니다
 李大統領을 尊敬하는것이 不足한것도 아닙
 니다 이民族의 將來民主主義로 發展하는 마음
 이 더 크기때문에 나는 여기에 勇敢하게 이

重任制限 廢止에對해서 反對합니다
 二다음에는 經濟條項改憲에對한것 亦是 反對입니
 다 어찌분 잘 아시겠습니까만 우리나라 憲法
 精神은 憲法第五條에 完全히 表現되고있습니다
 憲法第五條에 本條같은 大韓民國은 政治 經
 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個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
 福利의 向上을 爲해서 이것을 保護하고 調節
 하는 義務를진다 이것입니다 이五條는 大韓民
 國憲法의 全精神입니다 그精神骨子は 무엇이나
 하면 勿論 大韓民國은 各個人의 自由와 平等
 을 保障합니다만은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해서
 는 이것을 調節합니다 그러는 무슨 말이나하
 니 같은 個人의 自由와 平等과 創意가 全體
 社會나 多數 少數의 自由와 平等과 創意를
 妨害할때에는 結局 이 國家의 國民들은 各
 個人의 自由와 平等과 創意를 保護하기 爲해서
 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結局 個人의 自由
 를 保障하는 同時에 全體의 協調와 全體의 福
 利를 保障하는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全體의 福
 全體의 統一입니다 全體와 全體의 調和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憲法의 精神입니다 이精神이
 憲法 全條文을 通해서 充溢하고 있습니다만 특
 히 이 精神이 經濟條項에 가서 잘 나타나고 있
 습니다 經濟條項八十四條에서 우리가 社會正
 義에 立脚해서 均等性있는 國民經濟를 樹立하
 자는그와같은 原則이있고 그다음 條文은 天
 然資源을 國有로 한다는것과 또 八十七條에
 가서 重要한 公共性이 있는 產業은 國營公營

으로 한다는 이條文들이 結局은 第五條의憲法精神을 完全히 表現 한것입니다 卽 二것은 國民各個의 經濟活動面에 있어서 卽 國民의 自由經濟活動을 充分히 保障하기 爲해서 모든 國民의 自由經濟活動을 保障하기 爲하여 獨占經濟를 排擊하는것입니다 結局 卽 自由나 憲法精神이 어디까지나 全國民의 自由를 保障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이經濟條項도 어디까지나 全國民의 自由經濟活動을 保障하려고 하는것입니다 二項기 때문에 어디분 八十七條에 重要한 運輸 金融 二項은 어디에 「重要한」이라는 말이 있는지요 重要치않은것은 包含치 않습니다 假令 말하자면 自動車를 가지고 運輸送을 하는 個人營業같은것은 하지 않습니다 二項이나 「重要」한것 卽 京釜線 鐵道같은것은 到底히 私有를 容認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假나하면 萬若에 京釜線鐵道を 個人이 가지면 이 鐵道를 獨占하는 사람이 아니라 物價도 마음대로 操縱할수있고 이나라 全國民의 經濟生活를 左之右之하는 二項한 權限을 가질것입니다 또한 重要한 金融機關 普通金融機關이 아니라 是말이요 韓國銀行 같은 重要한 金融機關을 個人이 獨占하면 國家의 財政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같은것은 結局 어떤 少數사람의 獨占으로써서 어디사람의 自由經濟活動을 妨害할수있는 危險性을 制約하는것입니다 二項은 二項고도의條項에는 오히려 이制約으로써서 副作用이 있을까해서 特許 할수있다는 例外規定까지있어요 이와같이 해서 오늘날 우리 經濟條項은 우리憲法大精神下에 全國民의 自由經濟活動을 保障하기爲해서 特殊한 몇 사람의獨占的經濟를 排擊하기爲해서 생긴 經濟條項입니다 二項고도 아직 어디까지도 未及한 自由나 權利에 있어서 亦是 個人의 自由活動範圍를 넓히기爲해서는 例外規定을 둔것이 우리 經濟條項이요 二項에 萬若에 이經濟條項을 改造해서 八十七條 一項을 廢하고하면 이것은 卽 憲法精神을 抹殺하게되는것입니다 二項은 尙未 八十五條의 天然資源을 國有로한다는것을 削除하였는데 이것은 外國의 立法例를 보더라도 어떠한 立法例가 그렇고 大槪히 國有로 되어있습니다 二項고 理論上으로도 이것은 國有로 하여야합니다 二項은 尙未 鐵山속에 있는 鑛石을 個人이 許可를 내가지고 資本과 努力을 들여서 캐내면 거기에서 나온 鑛物은 廢私有가 됩니다 二項이나 鐵山속에있는 二項이 어떻게 個人의 것이 될수있는것인가요 萬若에 個人이 이나라 땅속에있는 鑛石은 다 내것이라 하면 이것은 獨占이 됩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것이요 假令 이나라의 鑛石을 다 내것이다 或은 이나라의 金은 다 내것이다 이렇게는 될수없지요 또 보세요 水力같은것을 이 水力은 天然資源입니다 水力은 結局 國家가許可를 해서 「법」을 만들고 發電施設을 만들어서 電氣가된뒤에는 이電氣는 私有로됩니다 二項은 만 江속에있는 水力 이것을 어떻게 私有로하느냐 말이요 이것은 말되지않는 소리에요 二項은 이國有를 私有로하는 理由는 무엇인지 이것은 卽 무지할수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自由

黨議員께서 어떻게 된셈인지 모르겠어요 二項은 卽 復活하여야 됩니다 二項고 第八十七條 一項에 있어서 이것은 오늘날 敵産을 拂下하는에 妨害가 되는것이 하나도 없어요 敵産을 拂下하지말라는 뜻은 하나도 없어요 統制經濟라는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統制는 例外規定으로 外國貿易만은 統制하는것입니다만 그것은 統制經濟를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計劃經濟를 하자는말도 아니에요 單純히 獨占性을 排擊하는것이요 二項기 때문에 이條文대문에 敵産拂下를 못한다는것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抵觸이 없어요 敵産을 拂下하더라도 아무 抵觸이 없어요 第八十七條一項에는 重要한 産業 몇가지만 있는데 그것도 重要치않은것은 國家에서 안해도 좋아요 二項은 結局 이 經濟條項대문에 오늘날 管理經濟를 하여야 된다고 무슨 의미가지 理由를 붙이는것은 憲法에 理解가 없는것이요 憲法을 모르는사람의 이야기예요 大韓民國憲法을 모르고 이나라를 다스리려는 政府야말로 우리말이 믿기가 어려운것입니다 憲法도 모르는 政府가 어떻게 하나가요 結局은 八十七條는 絕對로 統制經濟를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二項은 어디까지나 自由經濟를 保障하기爲해서 나온 條項이요 二項에 八十八條에 있어서 軍事上 또는 國民生活上 切實한必要가 있을때에 私有를 國有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特殊한 境遇를 말한것이요 一般的인 獨占을 막는 條項이 아닙니다 二項기 때문에 이 八十八條를 가지고서는 結局은 獨占經濟를 막아낼수 없는것입니다 二項에 어디분憲

法全體를 도리켜 볼때에 憲法 精神은 經濟條
 項에 對해있고 經濟條項精神은 結局 八十七條
 獨占資本을 막는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憲
 法의 最高精神이요 그骨子인 八十七條 一項을
 ... 制除한다는 것은 ... 實에 畫龍點睛이라는 말
 이요. 이 龍은 그리고서 눈알을 다져 그리야 산
 龍이 된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畫龍點睛
 이 아니라 穿龍의 눈알을 때는데입니다. 그러면
 結局 憲法精神을 어떻게 지켜나가려는 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制除할때면 憲法會議을 다시 열
 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리나하면 이
 條項은 變면 憲法은 다 죽었어요. 全條文이다
 죽었습니까. 우리가 制憲國會에서 세운 憲法精
 神은 다 抹殺됩니다. 이것은 憲法會議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憲法會議을 다시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憲法이 社會主義를
 본받았다. 무슨 共產主義色彩가 있다는 본이 있
 다. 이것은 世界에 比例가 없는 우리憲法을
 讀하는 大端의 大端이니까입니다. 우리 大
 韓民國憲法은 어떻게 하나 徹底한 自由主義를
 본받고 있습니다. 結局 獨裁主義나 共產主義를
 그런것을 標榜한것은 아니요. 그뿐만 아니라 우
 리 憲法制定은 우리 建國理念에다가 基礎를 두
 었고 建國理念은 우리 國民思想을 土台로 한
 것입니다.

義를 形成했습니다. 國民資本主義는 皆을 資本
 主義란 말이예요. 正常한 資本主義는 資本家나
 企業家가 業者的 良心에서 企業者的 經驗과
 計劃性을 가지고 여기에 國民經濟의 各個의發
 展을 가져오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날 大韓國民의 資本家라고 하는것은 結局은 모
 두 謀利權 狹雜權이요 銀行에서 國家돈을 내
 다가 外國에서 密輸入이나하고 暗取引이나하
 고 이와같이해서 國民經濟를 破壞하는에
 實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國家의 所謂財
 政政策은 確固한 指向하는 方向도없고 그밖도
 여기에 確固한 政策을 세우지않고 그대로 無
 責任하게 오늘 이르고 來日 저버고 到底의 痛
 을 嘗을수가 없게요. 이와같이해서 오늘날 大
 韓民國의 經濟實態는 이것은 完全히 國民資本
 主義입니다. 그러기때문에 大韓民國의 國民은獨
 占資本主義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저어도 資本主義가 國民을 抱擁하면
 資本主義가 各個의 廣範한 産業施設을 가지고
 서 이施設에다가 小市民과 知識層을 모두 집
 어넣어서 그사람의 生活를 保障함으로써 그들의
 支持를 받아야합니다. 그때야 資本主義가 正常
 化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大韓民國의 資本主義
 는 國民資本主義 皆을 資本主義가 되어서 이
 나라의 百姓은 하나도 支持하지 않습니다.
 이렇기때문에 大韓民國國民은 어떻게하나 均等
 한 生活를 우리가 해야된다고 바라고 均等經
 濟政策을 支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自由黨 여러분 여러분의 政綱政策에도
 均等社會를 建設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않아요

勞動者農民을 위한다고 하는것이 있지 않아요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어쨌어요. 보세요
 그러면 結局 이나라 憲法은 決코 몇 사람에
 의 思想 國民의 念願으로된 憲法입니다. 그것
 을 여러분이 당신에 몇사람의 마음대로 들이
 푸치려고 하는것은 이것은 到底히 말이 안됩
 니다.

그리고 오늘날 産業不振의 原因은 여러분 이
 많이 말씀했으니까 屢屢히 說明 않습니다. 마는
 財政政策의 偏派性 腐敗性 도 歸屬財產管理에
 있어서의 情實性 모은 不正運營 그리고 行政
 手續에 있어서 너무나 繁苛합니다. 우리가 하
 가지 許可를 내서 事業을 하면 여러가지 關
 門을 通過해야 되는데 關門마다 金을無數히하
 고 돈을주고 妓生을 사주고 술을내고 이대야
 하가지 通過하여 갑니다. 그래서 許可나자 破
 産입니다. 그러니 누가 事業하겠어요. 事業하지
 않아요. 그때놓고 이責任을 憲法에다가 돌리고
 憲法만고치면 經濟復興이된다. 이것은 緣木求魚
 예요.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는 격입니다.
 물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되요. 그리고 또한가지
 내가 여기에서 經濟條項改憲에 反對하는 理由
 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說明書에도 있지만 外資導入問
 題입니다. 이 外資導入問題가 重大한 國家的인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는것입니다. 여러분 外資
 導入中에는 援助와 借款과 個人投資가 있습니
 다. 우리는 援助와 借款에 있어서는 雙手를
 歡迎하지만 個人投資에 있어서는 여기에 重

大韓 考慮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재가 往
年來 印度를 訪問했을때에 印度가 비록 政治
的으로 解放되었으나 하지만 印度의 三億의人
民은 아직도 英國獨占資本主義에서 呻吟하고
있는것을 나는 보고 왔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大韓民國의 經濟가 自己主體性
을 갖지 못하고 하나로 建設되지 못 한데다가
個人投資를 받는다면 全韓國의 모든 經濟權은
完全히 그들이 獨占하고 말것입니다. 最近에政
府에서 말하기를 한事業에 對해서 六十一「퍼
센트」는 우리나라 사람의 資本으로하고 外資
는 四十一「퍼센트」로 制限한다고 하지만 結
局에 있어서는 논쟁고 아송하는 것이요 우
리는 六十一「퍼센트」를 본이 없게요 結
局은 外國사람 돈을 버가지고 됩니다. 結局外
國사람의것이 되고말아요 中國에 있어서도 合
辦會社가 많은데 그內容은 外國사람 會社입니
다 看板은 中國사람으로 되어있지요 外資導入
은 이러한 重大한 危險이 있는것입니다. 個人
投資에 對해서는 絕對反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共產主義와 싸우고 있
어요 그것은 왜 싸우느냐 共產主義도 政治獨
占即權力을 獨占해서 政治的으로 우리를 奴隸
化하려고 하나까 우리는 共產主義와 싸우고 있
는 것이아닙니까? 그러면 資本獨占 即 經濟
的으로 우리를 奴隸化할 危險이 있을때에는亦
是 全國民이 이것과 抗爭하지 않으면 안될것
입니다

우리는 子孫萬代에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眞
正한 自由를 누리키 위해서는 現在 우리 國
民이 臥薪嘗膽해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힘
을 가지고 이나라의 經濟建設을 爲해서 國爭
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여러분 九十年前的의 丁抹을 보세요 丁抹은 戰
後에 疲弊해서 到底히 살아 갈수 없을때에
「제비리」라는것 「트리스틸」같은 先覺者가나
와가지고 國民精神을 涵養하기지고 協同組合을
세워서 오늘날 丁抹은 世界的 優秀한 農業國
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에서 생각해야 할 問題는 無條件하고 外國사람
의 個人資本을 고는것은 아니됩니다 勿論 援
助나 政府을 통해서 借款하는것은 좋지않은個
人資本은 大端히 危險한것입니다 우리 民族資
本의 根幹이되고 二「퍼센트」 外國資本을 받아들
아야지요 우리資本이 거의 없는데다가 外國資
本만을 二「퍼센트」보다고하는것은 우리가 經濟的奴
隷가되는 危險을 크게 包含하고 있는것을 우
리가 알아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언더 너는 우리는 經濟的으로 後進國
家이니까 이와같은 十八世紀의 資本主義初期로
드라가야된다 이런 眞實을 하시는게 오늘날世
界의 經濟思想의 大勢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美國에서도 民主黨에서
「엔티·도라스·에·에·에」即 「도라스·로·법」 結局
資本獨占을 막으려는 法律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가 美國 장을때에 美國商
業會議所 會頭와 이야기 하니까 그사람들도全
部 資本의 社會化 即 말하자면 工場에 있어
서 利益을 勞動者에게도 고루 分配해서 勞動者皆企
株卷을 勞動者에게 고루 分配해서 勞動者皆企

業에 參加시켜서 發言權을 쥐서 資本을 차차
社會化함으로써 美國의 資本主義를 維持할수있
다고하는 이런 結論을 내는것을 부연하여요
美國은 「유·일」政策을 통해서 其他 國
家政策을 通해서 資本主義者가 漸次社會主義的
方面으로 나아가고 있는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
니다

도 英國을 보세요 英國은 勞動黨保守黨 둘이
있지만 結局 이 둘이 다 社會政策에 있어서는
그政策이 같습니다. 여러분 勞動黨은 結局은資
本主義를 認定하는 社會主義라고하면 保守黨은
社會主義를 認定하는 資本主義이요 即 英國
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 資本主義나 資本主義
的 社會主義가 있지만 社會主義만의 社會主義
나 資本主義만의 資本主義는 없읍니다. 왜 그
하나하면 우리가 獨占資本主義를 容認해서 資
本主義 그대로 내버려 둘것같은 全大衆은
어쨌든 사회主義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全
大衆은 自由가없어서 죽이 딱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全世界는 이와같이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를 잘 調節해서 次次人類가 完全한個
人的 自由와 健全한 社會的 福利를 누릴수있
는 그方面으로 나아가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된
니다 結局 오늘날의 世界政治는 論綱政治이
요 論綱 即 「제」를 내걸어야됩니다. 그것
은 무슨 말이나 같것같은면 國家가 國民에게
對해서 우리는 이와같은 方面으로 政治를 해
간다 經濟는 이와같은 方面으로 나아가는것
目標을 明示하여야합니다 勿論 當장에 그것이
實現되지못한다 하더라도 그方面만은 明示해야

英國을 보세요 英國은 勞動黨保守黨 둘이
있지만 結局 이 둘이 다 社會政策에 있어서는
그政策이 같습니다. 여러분 勞動黨은 結局은資
本主義를 認定하는 社會主義라고하면 保守黨은
社會主義를 認定하는 資本主義이요 即 英國
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 資本主義나 資本主義
的 社會主義가 있지만 社會主義만의 社會主義
나 資本主義만의 資本主義는 없읍니다. 왜 그
하나하면 우리가 獨占資本主義를 容認해서 資
本主義 그대로 내버려 둘것같은 全大衆은
어쨌든 사회主義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全
大衆은 自由가없어서 죽이 딱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全世界는 이와같이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를 잘 調節해서 次次人類가 完全한個
人的 自由와 健全한 社會的 福利를 누릴수있
는 그方面으로 나아가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된
니다 結局 오늘날의 世界政治는 論綱政治이
요 論綱 即 「제」를 내걸어야됩니다. 그것
은 무슨 말이나 같것같은면 國家가 國民에게
對해서 우리는 이와같은 方面으로 政治를 해
간다 經濟는 이와같은 方面으로 나아가는것
目標을 明示하여야합니다 勿論 當장에 그것이
實現되지못한다 하더라도 그方面만은 明示해야

英國을 보세요 英國은 勞動黨保守黨 둘이
있지만 結局 이 둘이 다 社會政策에 있어서는
그政策이 같습니다. 여러분 勞動黨은 結局은資
本主義를 認定하는 社會主義라고하면 保守黨은
社會主義를 認定하는 資本主義이요 即 英國
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 資本主義나 資本主義
的 社會主義가 있지만 社會主義만의 社會主義
나 資本主義만의 資本主義는 없읍니다. 왜 그
하나하면 우리가 獨占資本主義를 容認해서 資
本主義 그대로 내버려 둘것같은 全大衆은
어쨌든 사회主義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全
大衆은 自由가없어서 죽이 딱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全世界는 이와같이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를 잘 調節해서 次次人類가 完全한個
人的 自由와 健全한 社會的 福利를 누릴수있
는 그方面으로 나아가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된
니다 結局 오늘날의 世界政治는 論綱政治이
요 論綱 即 「제」를 내걸어야됩니다. 그것
은 무슨 말이나 같것같은면 國家가 國民에게
對해서 우리는 이와같은 方面으로 政治를 해
간다 經濟는 이와같은 方面으로 나아가는것
目標을 明示하여야합니다 勿論 當장에 그것이
實現되지못한다 하더라도 그方面만은 明示해야

英國을 보세요 英國은 勞動黨保守黨 둘이
있지만 結局 이 둘이 다 社會政策에 있어서는
그政策이 같습니다. 여러분 勞動黨은 結局은資
本主義를 認定하는 社會主義라고하면 保守黨은
社會主義를 認定하는 資本主義이요 即 英國
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 資本主義나 資本主義
的 社會主義가 있지만 社會主義만의 社會主義
나 資本主義만의 資本主義는 없읍니다. 왜 그
하나하면 우리가 獨占資本主義를 容認해서 資
本主義 그대로 내버려 둘것같은 全大衆은
어쨌든 사회主義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全
大衆은 自由가없어서 죽이 딱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全世界는 이와같이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를 잘 調節해서 次次人類가 完全한個
人的 自由와 健全한 社會的 福利를 누릴수있
는 그方面으로 나아가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된
니다 結局 오늘날의 世界政治는 論綱政治이
요 論綱 即 「제」를 내걸어야됩니다. 그것
은 무슨 말이나 같것같은면 國家가 國民에게
對해서 우리는 이와같은 方面으로 政治를 해
간다 經濟는 이와같은 方面으로 나아가는것
目標을 明示하여야합니다 勿論 當장에 그것이
實現되지못한다 하더라도 그方面만은 明示해야

英國을 보세요 英國은 勞動黨保守黨 둘이
있지만 結局 이 둘이 다 社會政策에 있어서는
그政策이 같습니다. 여러분 勞動黨은 結局은資
本主義를 認定하는 社會主義라고하면 保守黨은
社會主義를 認定하는 資本主義이요 即 英國
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 資本主義나 資本主義
的 社會主義가 있지만 社會主義만의 社會主義
나 資本主義만의 資本主義는 없읍니다. 왜 그
하나하면 우리가 獨占資本主義를 容認해서 資
本主義 그대로 내버려 둘것같은 全大衆은
어쨌든 사회主義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全
大衆은 自由가없어서 죽이 딱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全世界는 이와같이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를 잘 調節해서 次次人類가 完全한個
人的 自由와 健全한 社會的 福利를 누릴수있
는 그方面으로 나아가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된
니다 結局 오늘날의 世界政治는 論綱政治이
요 論綱 即 「제」를 내걸어야됩니다. 그것
은 무슨 말이나 같것같은면 國家가 國民에게
對해서 우리는 이와같은 方面으로 政治를 해
간다 經濟는 이와같은 方面으로 나아가는것
目標을 明示하여야합니다 勿論 當장에 그것이
實現되지못한다 하더라도 그方面만은 明示해야

+

법이다 그것이 곧 憲法입니다 우리 나라 憲法도 確實히 이와같은 精神을 國民에게 明示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憲法이 우리나라 政治의 方面과 經濟의 方面을 가로지르고 여기저기가 例外規定까지 안붙어서 우리 現實에 맞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憲法을 어떠한이 고쳐서 그 精神을 抹殺한다면 이 憲法은 죽는 것입니다 어떠한이 거기에 대한 責任을 지야합니다 萬若 그렇지 않으면 憲法國會議을 열어서 憲法을 새로 만들어요 오늘날 世界潮流에 公流하기 위해서 우리는 政治的으로 바뀌어 民主主義를 하고 있어요 고정이 民主主義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二十世紀後半期에 있어서 우리만이 初期 資本主義時代로 본다가서 經濟復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結局 經濟도 世界潮流에 따라서 바뀌어 經濟을 해야 해요 우리가 憲法精神을 버리고 우리 大韓民國이 生存競爭 適者生存으로 모라기서 본있는 법만 알고 본있는 법은 죽어라 하면 共產主義를 養成하는 結果가 됩니다 結局은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戰爭을 하고 있는데 이 戰爭은 思想戰입니다 思想戰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共產主義를 이길 수 있는 思想은 우리 大韓民國憲法입니다 이 大韓民國憲法이야말로 個人의 自由와 全體의 協同이 保障되는 自由協同思想이요 이 思想만이 結局 共產主義獨裁思想을 克服하고 南北을 通하여 百姓의 마음속에 노여있는 三八線을 除去함으로써 民族思想을 統一하여 정말 여기에 民族統一의 基礎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

事方을 가지고 地上的의 三八線을 깨뜨려다 하더라도 思想的인 마음속의 三八線을 노아주고는 到底히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偉大한 大韓民國憲法精神을 가지고 우리 三千萬民族을 完全히 抱擁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民族의 統一을... 思想基礎가 確立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같은 思想的 勝利를 얻어오는 同時에 나아가 이 官僚政治를 革新하여 民生이 安定되고 民心이 歸一해감으로써 여기에 大韓民國 全百姓이 힘을 합해 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생각이 나게 될 것이요以北에 있는 同胞들은 大韓民國의 善은 理念과 健全한 發展을 바라볼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이 인명을 바라보는 焦燥한 心境으로 大韓民國에 合流하려고 애를 쓸 터이니 여기에 있어서 우리 民族의 精神的 凝結力을 어떠한 國際勢力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民族的 統一을 위하여는 眞正한 基礎가 있어야 하고 정치가 腐敗되고 民心이 情落되는 데에 기대다가 憲法을 고쳐가지고 國民思想까지 混亂에 빠진다면 將次「유엔」軍이 後退하고서 北方에서 불어오는 暴은 뒤오리마음이 이半島를 覆할 때에 아! 우리가 그 事態에 想到하면 나는 慄慄然禁치 못합니다 어떠한이 어떠한이 되어서요 어떠한을 自由黨 어떠한을 官僚政治를 革新하여 民生을 安定하고 思想을 統一해서 여기에 民心을 大韓民國에 集中시키는 것이 先決問題이지 어떠한이 百姓의 拒否하는 改憲을 어떠한은 數字가 있다고 해서 過

通시켜 놓으면 百姓은 落膽하여 이 政府와 距離가 더 멀어지고 여기에 官僚들은 私利私慾을 위해서 國家의 權力을 더욱 濫用하여 國家權力이 漸漸百姓의 무명이 化할 것이나 어떠한이와같은 나라는 歷史上 오대간 나라가 없읍니다 어떠한이 여기에 대한 責任을 지야해요 그러면 오늘날 全國民이 注視하고 있는 이 改憲案을 國民의 意思를 代辯하는 우리 二百세사당의 國會議員이 하나도 빠짐없이 全部 否決投票를 해서 國民의 意氣를 發揚하여 우리가 民主主義를 國民으로서 偉大性을 發揮한다면 全國民이 이제 는 살았다國會議가 정말 우리 百姓의 國會다 이와같은 信念을 가지게 될 것이니 大韓民國의 前途는 洋洋 望望입니다 自由黨 어떠한을 말리 마음을 고쳐 오늘 投票는 全部 否決投票를 하시오 ○議長(崔淳周) 지금은 金聖澤議員의 討論이 있겠습니다 ○金聖澤議員 今般 우리 自由黨에서 投議한 憲法改正案에 대해서 國會議員間은 勿論이요 國民들이나 또는 言論界 其他 各界各層에서 活潑히 論議가 展開되고 그 批判이 活潑히 廣範히 展開된 것은 우리 民主國家의 發展을 위해서 하오오 慶賀하여 마지않는 바라고 생각하십니까나 近八、九日을 두고 或은 質疑應答이나 또는 大體討論에 있어서 어떠한이 改憲案 全體에 대해서 많은 論議이 있고 많은 質疑應答이 있었으니가 本議員은 믿수 있는대로 重複을 避하고 單只 反對하는 言論의 主로 그 焦點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런것을 再表示하고 그 點에 대해서

다디 實情을 하미고 함니다 反對하시느분들 의 是非를 더더다 보민 이憲法改正案에 第一 反對 하는 焦點이 大統領中心制로 現大統領에 限 하는 重任制限의 撤廢에對한 이우가저에對해서 反對하는 焦點이라고 이 사담은 생각함니다

그외에 國民投票制라는지 또는 經濟條項改憲이 다른지 이런 等等은 單只 이 우가저를 反對 하는지 이것만을 反對하기가 어려우니까 一種 反對하는 一種口實로다가 國民投票制와 經濟條項改憲 이런 等等을 反對하심에 不遇하다고 이 말게 本議員은 생각함니다 反對하는 大統領中心制를 反對하고 現大統領의 限하는 重任制限 撤廢에對한 것이니 反對의 焦點이라고 率直하니 反對하시는 어떠한 中心은 거기에 있으리라오 本議員은 보는것입니다

法律은 언제나 그나라의 實情과 實情을 떠나서는 안되니까 法律을 制定하거나 改正함에 그나라의 實情과 實情에 맞지 아니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것은 곧 그社會의 波瀾을 가져오는 結果밖에 아니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反對하신 어떠한분들도 萬一 우러나라의 實情을 떠나서 反對하는 實情에 떠나가지고 이改憲案에 對한 反對理論을 展開한다고 할것같은면 그反對理論은 一種의 論理의 飛躍에 不遇하고 論理의 飛躍은 一種의 遊戲에 不遇한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러는 언저든지 우러나라의 實情 實情을 直視하고 우러 實情을 公正無私하게 判斷해가지고 이改憲案에對한 態度를 決定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우러 나라의 實情 實情은 어떠한가 우러나라 이實情에

비우어서 果然 우러 自由黨에서 提案한 法改正案이 우러나라의 實情에 遊離되고있든가 우러나라의 實情에 맞는가하는것을 率直하너 어떠한 한면 判斷해보십시오 우러 나라는 現在 大統領 中心制의 憲法下에 있음니다 이 大統領中心制의 現行憲法이 制憲國會當時에 制定 憲法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現在 民國黨의 前身인 韓國民主黨에서 처음에는 內閣責任制制度의 憲法을 制定하려고 이말게 意圖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乃終에 하듯말 사이에 民國黨에서 大統領中心制로 態度를 約變했는것입니다 그러해 가지고 結局 現行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을 制定하고있음을니다 그러면그 때에 韓國民主黨의 表面의 理由로 보면 憲法을 制定한뒤에 大統領을 選舉하면 그當時 國會의 議長이었던 李承晚博士가 當選될것은 勿論이다 그러면 李承晚博士가 大統領에 當選이 된다고 할것같은면 그이는 七十平生을 祖國光復에 勇을 바쳤고 또 八、一五解放後로 或은 軍政 或은 共產黨과 積極 鬪爭해오신 二이에 實權있는 「도보」자리를 도민다는것은 未安하다 또 二當時의 形便으로서는 實權이 大統領에게 있거나 內閣에게 있거나 別 差異가 없다는 이러한 理由가 그때에 韓民黨 表面上의 理由였음니다 또 二表面에 한個의 怨心을 그때에 國會議사이요 또 大統領에 當選될 때 李承晚博士가 大統領中心制를 強力히 主張 하나나 萬一 이 李承晚博士와 對立이되어가지고 內閣責任制를 積極 推進하고 萬一 大統領中心制를 反對했다가는 그때에 亦是 實情이李

承晚博士가 大統領이 되어야만할 어떠한 國內의 情勢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韓民黨으로 보면 軍政三年의 與黨的 立場을 가지고 오든 참 權力을 濫用하고 어떠한 시 作亂을 해오든 그런關係로 次次 民心이 韓民黨에서 離脫이 되는 그때인 만큼 萬一 李承晚博士와 對立이 되어가지고 李承晚博士가 大統領이 될위에는 韓民黨으로서는 不利한 立場에 있는가함으로써 態度를 約變해가지고 大統領中心制에 贊成되든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듯말년에 그때에 多數黨인 韓民黨의 態度의 約變으로 해서 憲法이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으로 되었는것입니다 이사람 亦是 完全한 民主主義政治 政黨政治를 할려고 할것같은면 國會의 政府에對한 不信任權이 있고 또 政府가 國會를 解散하는 權限이 있는 이런 內閣責任制라야 한다는 거기에 異論도 없고 거기에贊成하는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實情우러나라의 實情이 果然 그러한 內閣責任制가 맞느냐 저어도 李承晚博士가 健在하심중에는 亦是 大統領中心制라야 여기에 어떠한 深甚히 考察해서야 될것입니다 韓國民主黨에서 當時그 때 制憲當時에 實情이 亦是 그때의 實情이 大統領中心制라야 한다는 이러한 觀點에서 하듯말년에 大統領中心制로 態度를 約變한 그때의 實情 亦是 大統領中心制라야 國內外情勢가그 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亦是 實情의 實情도 制憲當時의 實情과 實情과 얼마나 距離가 있음니까 어떠한 民國黨系列 或은 自由黨에서 提案한 憲法改正案을 反對하시는어

承晚博士가 大統領이 되어야만할 어떠한 國內의 情勢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韓民黨으로 보면 軍政三年의 與黨的 立場을 가지고 오든 참 權力을 濫用하고 어떠한 시 作亂을 해오든 그런關係로 次次 民心이 韓民黨에서 離脫이 되는 그때인 만큼 萬一 李承晚博士와 對立이 되어가지고 李承晚博士가 大統領이 될위에는 韓民黨으로서는 不利한 立場에 있는가함으로써 態度를 約變해가지고 大統領中心制에 贊成되든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듯말년에 그때에 多數黨인 韓民黨의 態度의 約變으로 해서 憲法이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으로 되었는것입니다 이사람 亦是 完全한 民主主義政治 政黨政治를 할려고 할것같은면 國會의 政府에對한 不信任權이 있고 또 政府가 國會를 解散하는 權限이 있는 이런 內閣責任制라야 한다는 거기에 異論도 없고 거기에贊成하는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實情우러나라의 實情이 果然 그러한 內閣責任制가 맞느냐 저어도 李承晚博士가 健在하심중에는 亦是 大統領中心制라야 여기에 어떠한 深甚히 考察해서야 될것입니다 韓國民主黨에서 當時그 때 制憲當時에 實情이 亦是 그때의 實情이 大統領中心制라야 한다는 이러한 觀點에서 하듯말년에 大統領中心制로 態度를 約變한 그때의 實情 亦是 大統領中心制라야 國內外情勢가그 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亦是 實情의 實情도 制憲當時의 實情과 實情과 얼마나 距離가 있음니까 어떠한 民國黨系列 或은 自由黨에서 提案한 憲法改正案을 反對하시는어

어분 憲法의 우리나라의 基本組織이라는 것은 一種常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現政中心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볼때에 亦是 우리의 現實도 아들은 李承晚博士가 能在 하실동안은 그 누구나 그 이상을 超越할만한 人物이 없는限 亦是 大統領中心制에야 한다는 이結論을 내리지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면 大統領中心制도 二憲法을 是認한다고 할것같은데 어느程度 完全한 大統領中心制에야 拔善改憲案으로 因해서 一部內閣責任制的 要素가 包含되기때문에 拔善改憲案通過以後에 政府와 國會와의 摩擦亂轉의 是는 情況은 우리 國民앞에 내치히 보이고 남음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이러한 是는 弊端을 除去할려면 亦是 어느程度 完全한 大統領中心制로 變更해야만 된다는것이 우리憲法改正案의 趣旨입니다.

대통령은 大統領重任制限撤廢 문제입니다. 大韓民國을 創建하신분은 李承晚博士입니다. 누나 否認할수없는 事實입니다. 여기에 重任制限與否를 李承晚博士에對해서 論議하는것이이사람으로서는 어느程度 不遜한생각이 있을까해서 될수있으면 言及을 아니할려고 했읍니다. 다만 여기에 對해서도 論議가 만으니까 簡單히 말슴드리고 합니다. 八十平生을 祖國光復에 몸을 바치고 八、一五解放後로 아카도 말씀여준바와 마찬가지로 對軍政로 滅共鬪爭 여러가지身 上困難을 겪어오시가지고 大韓民國을 樹立하도록 하셨습니다.

二번다고하면 적어도 그이한에對한 우리 國民으로서의 義務上 禮儀 또는 그이의 功績에對한

한 個의 政治上道義로서도 그이한에對해서 重任 或은 三選 四選... 國民의 全體의 意思가 顯한다고 할것같은데 그이가 다 是當選權을 열어놓는것이 우리로서 國民으로서 是當한 道理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率直하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의 實情 現實이 그이를 除外하고는 우리나라의 實情 難局을 擔當해가지고 克服할실만한이가그 以上가실분이 없다고 國民은 믿고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國民이 萬一 그이를 二年後에 다 시 大統領으로 모시고 우리 나라의 이모든 難局을 打開해주시요 그런重策을 맡어주시소서 하는 그러한 國民의 意思가 있을때에 그러한 法에 萬一 없다고 할것같은데 다시그 이를 말씀질이없으므로 말미암아 率直하니 말씀하면 그러한 意圖에서 大統領重任制限을 適用치 아니한다하는 이런原則을 말하여 는것입니다. 이것이 亦是 우리나라의 現實이요 實情입니다. 萬一 기기를 否認하고 이現實을 否認한다면 萬一 기기를 否認하고 이現實을 否認한다면 萬一 기기를 否認하고 이現實을 否認한다면

한 個의 政治上道義로서도 그이한에對해서 重任 或은 三選 四選... 國民의 全體의 意思가 顯한다고 할것같은데 그이가 다 是當選權을 열어놓는것이 우리로서 國民으로서 是當한 道理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率直하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의 實情 現實이 그이를 除外하고는 우리나라의 實情 難局을 擔當해가지고 克服할실만한이가그 以上가실분이 없다고 國民은 믿고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國民이 萬一 그이를 二年後에 다 시 大統領으로 모시고 우리 나라의 이모든 難局을 打開해주시요 그런重策을 맡어주시소서 하는 그러한 國民의 意思가 있을때에 그러한 法에 萬一 없다고 할것같은데 다시그 이를 말씀질이없으므로 말미암아 率直하니 말씀하면 그러한 意圖에서 大統領重任制限을 適用치 아니한다하는 이런原則을 말하여 는것입니다. 이것이 亦是 우리나라의 現實이요 實情입니다. 萬一 기기를 否認하고 이現實을 否認한다면 萬一 기기를 否認하고 이現實을 否認한다면

一元化하는것이 理論上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大統領中心制를 贊成하시는분은 贊成하시요 內閣責任制를 贊成하시는분은 贊成하시요 그것은 各者의 自由일것입니다. 그러니까 大統領中心制를 贊成한다고 반드시 그것이 憲法上으로도 되는것도 아니고 內閣責任制를 反對한다고도 되고는 아니할것입니다. 다못 아카도 말씀했지만 大統領中心制라야 우리의 現實에 맞느냐 지금 目下的 現實에 맞느냐 內閣責任制라야 우리의 實情에 맞느냐 目下的 實情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現實과 實情에 맞도록 憲法을 淸수있게끔 完全한 憲法을 만들도록 한다것이 우리 이런 改憲案의 趣旨입니다. 民議員 二百三名 다 여러분이 누구나여 리에가지고있고 마음에 품고있는것은 滅死救國의 精神일것입니다. 그러니까 憲法改正案을 提案한 側이나 反對한側이나 다 똑같은 立場에서 自己의 보는바로 國家를 爲하고 民族을 爲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反對도하고 或은 贊成도 할것입니다. 그것이 見解의 差異라고 할지도 모는 目的이나 目標의 差異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政爭이나 政策의 差異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單只 우리는 아카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現實과 實情을 直視하고 判斷해가지고 이런 改憲案에對한 態度를 決定해야될 줄입니다. 或은 이런말씀이 있습니다. 現在 우리는 休戰을 하고있고 戰時態勢下에 있는게이러한 難局에 難局을 打開할 是는 重要한 일이

한 個의 政治上道義로서도 그이한에對해서 重任 或은 三選 四選... 國民의 全體의 意思가 顯한다고 할것같은데 그이가 다 是當選權을 열어놓는것이 우리로서 國民으로서 是當한 道理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率直하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의 實情 現實이 그이를 除外하고는 우리나라의 實情 難局을 擔當해가지고 克服할실만한이가그 以上가실분이 없다고 國民은 믿고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國民이 萬一 그이를 二年後에 다 시 大統領으로 모시고 우리 나라의 이모든 難局을 打開해주시요 그런重策을 맡어주시소서 하는 그러한 國民의 意思가 있을때에 그러한 法에 萬一 없다고 할것같은데 다시그 이를 말씀질이없으므로 말미암아 率直하니 말씀하면 그러한 意圖에서 大統領重任制限을 適用치 아니한다하는 이런原則을 말하여 는것입니다. 이것이 亦是 우리나라의 現實이요 實情입니다. 萬一 기기를 否認하고 이現實을 否認한다면 萬一 기기를 否認하고 이現實을 否認한다면

을 改正할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論難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時局이 危急하면 危急할수록 그 危急한 時局에 對處할 때는 政治 行政을 하는 方便 될수 있는대로 國家의 基本法인 憲法을 完備하여 完全할수있게 改正하는것이 國家上 最을 일일지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時期가 憲法改正할 時期가 아닙니다. 이런 論難이 있지만 憲法의 不備도 많이 있어서 過去 二代國會때에 어떠한 政治運轉에 困難이 있었는가 混亂이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三代國會에 있어서도 憲法의 不備 憲法의 缺陷을 하도速히 改正해가지고 우리의 國政運轉의 萬般難勢를 잡수는것이 가장 實明한 策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나는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어떠한 策이든 우리나 現實 實情을 洞察해서가지고 實明한 策으로서 이 改憲案에 많이 贊同해주시기를 懇切히 바라마지않습니다.

○副議長(崔洋周) 慎道成議員의 討論이 있겠습니다.

○慎道成議員 同志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討論하고있는 問題는 이것이 決코 與黨과 野黨과의 問題가 아닙니다. 今番改憲案의 第一中心問題로 말승한것같은데 立法院과 行政府사이의 權限分配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고지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統治權을 行政府에 넘기느냐 주고 立法院에 넘기느냐 附與하는 것을 고지자 이점은 與黨이거나 野黨이거나 달것없이 立法院에 물을 분 사함으로써는 아마 똑같은 立場에 있을것입니다. 우리 立法院

가 어느程度的의 權限을 가질수 있는가? 앞으로 行政府에 對해서 얼마만한 發言權을 가질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無力하게 되는가 하는 이 問題는 決코 與黨과 野黨사이의 利害關係에 對立이 있을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權限을 나아가서 생각할때에 이것이 立法院과 行政府간의 問題냐? 萬若에 우리가 國家民族의 水運한 權利를 위해서 立法院의 權限을 너무도 줄다 우리는 이것이 必要하다 이렇게 생각할것같은데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의 權限이 적어지고 우리의 地位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贊同해야 할것입니다. 甚至於 下榮 泰外務長官은 南北統一을 위해서 必로 하다면 國會議員이 自推해서 辭職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할것입니다.

萬若 그것이 우리 民族의 眞正한 幸福이라고 할것같은데 그렇게 해도 좋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立法院가 無力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韓國의 代議政治가 抹殺되는 그것은 同時에 大韓民國의 運命自體를 危殆하게 하는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最近「유엔」轉委報告書를 보더라도 二報告書에 指觸되고 있는것은 決코 大韓民國에 있어서 行政府의 權限을 發展시켜야 한다는지 무슨 國民投票制를 發展시켜야 한다고 하는지 안했습니까 韓國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韓國에 있어서 代議政治를 發展시켜야 되겠다고 明確히 指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立法機關에서 民意를 代表하고 거기서 國政의 最高指揮權과 最高監督權을 가져야 된

다는것 이것이 民主主義政治의 基本原則이라는 것은 오늘날 全世界에 있어서 共通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제가 말승하고자 하는 것은 決코 野黨이기 때문에 與黨側의 提案을 덮어놓고 反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내 가 立法院에 있는 사람이니까 立法院의 權限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改憲案에 贊成할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理論이 다 그대왔고 또 將來에도 二대야 되겠읍니다만 무슨 黨派의 偏見이라든지 或은 우리 自身の 權限이라든지 어떠한 見地를 떠나서 그야말로 冷情하게 國家民族의 大局의 存立 場에서 妥協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策을 두고 贊成도 있었고 또 討論도 어떠한 策이 많이 하셨을 뿐 아니라 自身도 二동한 數年동안 新聞雜誌 或은 著書를 통해서 이 憲法問題 特히 政府形態에 關한 問題에 對해서 意見을 어떠한 發表했읍니다. 그러니 지금 어떠한 策을 내놓으시는데 저우하게 여기실것을 조금이라도 덮어드리기 위해서 될수 있는대로 지금 까지 議論된것 여기서 말승된것 或은 文字上으로 發表된 問題에 對해서는 重複을 避할려고 합니다. 같은 問題라도 지금은 角度를 달리해서 從來 말승한것이 「맞지」하지 않은 다른 角度에서 多少 愚見을 말승드릴 作定으로 있습니다. 單只 二동한 本議員이 地方旅行을 하느라고 여기서 討論된 二內容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승을 들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多少 或은 前에 말승나온것의 외우리가 되는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점은 널리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于先 첫째로 參議院 構成前에 改憲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問題가 많이 討論된것 같습니다 大概 지금까지 말하면 要約하면 野黨側에서는 參議院이 成立하기前에 改憲을 한다는것은 憲法精神에 어긋난다 或은 政治道義上 不합당하다 아마 그런程度를 말하시는지 같습니다 野黨에서도 參議院構成前 改憲을 하는것은 明白히 憲法違反이다 하는말씀까지는 제가 아까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與黨側에서는 參議院構成前에 改憲하는것이 憲法이 아닐뿐 아니라 政治道義上으로도 憲法精神에 비추어서 不當하다 잘못이다 하는程度가 아니고 明白히 違法이다 違憲이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왜그러냐? 이것을 알기쉽게 說明하기爲해서 한가지 譬喻를 든다고할것같으면 이윽하면 한 집안에 夫婦가 같이 사는때 물이 約束되었을 이지요 우리가 무슨일이든지 處理할때는 꼭 물이 合意해서한다 男便이건 아내건 한사람이 單獨으로 하지않는다 이렇게 約束을 했다 고 합니다 그때놓고서 不得已한 事情이 있어서 配偶者中의 한분인 男便이 旅行을 行할때 暫時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 동안에 男便이 없었다고해서 모든일을 물이 合意해서 하기로했다고해서 그동안에 日常生活에 必要한 粧을 바운다든지 或은 郵便 物을 받는다든지 稅金을 낸다든지 그런일까지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男便이 떠

난때에 國章을 다루다에게 맡기면서 當身이나 없는동안에 適切히하시요 그리고 갔다오십시오 그러면 그 夫人이 單獨으로 日常生活에 不可缺한 處理는 할수있을것입니다 日常生活에 必要한 生活必需品를 사들이는다든지 登記郵便이 있을때에 國章을 써어준다든지 그런일 程度는 하겠지만 二女子가 집을 팔아먹고 土地를 팔아 이런것은 아마하기 좀 어려운것입니다 이것이 民法에 있어요 民法上 財產管理人的 職能이라고 하는것에 그財產의 果實은 處分할수있지만 그 財產의 元本은 處分할수없다는것이 民法上의 原則입니다 그財產에서 나오는 果實 即ち 賃을 받아들이는것은 할수있지만 아무 부머해서 한다는지 하는것은 할수있지만 아무 부머해서 집을賣却한다 財產自體를 들어고진다든지하는 그런 處分은 못한다 이것이 法律上의 原則입니다 더군다나 萬若에 男便을 일부러 賣알에 내보내놓고 二사람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모 저모로 妨害工作을 해워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마누라 혼자서 제멋대로 집을 팔고 土地를 팔아서 제멋대로 만서방을 갖 다준다고 할것같은것이 果然 違法이 아니라 할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違法이고 不法일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지금 우리 憲法第三十一條에본것같은데 三十一條二項에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國會는 內閣이國會가 아니고 參議院과 民議院과 말하자면 內外 結合해서 完成한 國會란말 이에요 그러한 意味에서 모든 問題를 處理하

는데에는 上下兩院이 合致가 되어야만 한단말 이에요 그러면 拔萃改憲案을 말하는데 拔萃改憲案을 通過시켰지만 당장에 參議院이 構成되지 않는 어쩔수다 參議院選舉法을 만들고 거기에서 參議院의 正式으로 發足할때까지는 적어도 서 말 내할 期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兩院制가 된다고 할지라도 서 말 내달동안 國事를停止하고 二개로 있을수없으니까 二중안에 不得已해야필요는 民議院單獨으로서 할수있다는것을 附則으로 내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臨時的인 措置이예요 그 두사람이 合議해서 할일을 問題를 暫間 男便이나 아내가 어디에있을때에 二중안에 꼭 해야지된다 고하는 臨時로 하라는것을 付託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參議院을 만들지 않겠다 더군다나 參議院을 만들지않은 責任을 一方에 國會가져야되고 行政府가 가져야됩니다 憲法 通過後 參議院이 서 말 내달 構成이안된다 고하면 憲法上 옳다고 볼수있을 것입니다 二월지만 2年半이 되었읍니다 拔萃改憲案이 通過後에 2年半이 되었읍니다 參議院을 構成하지 않겠다는것이 이 事實이違憲이예요 이것이 憲法三十一條 第二項에 違反되고 있다말이에요 그러면 만들어는 行政府하고 與黨이 미처 參議院도 만들기前에 이 改憲을 하겠다는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男便을 賣알에 내보내고 일부러 물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것을 處理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二번이

가 現行憲法 九十八條四項에는 더욱히 特別히

憲法問題에 對해서 明白한 規定을 하고 있거나
 또 다른 一般法案이나 豫算案이든지 決議案
 도 多數로써 行한다 하는 特別히 改憲에 對해서
 는 그런 考慮이 行해볼때에 第九十八條 第四
 項에 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二在
 議員 三分之二以上의 贊成으로서 한다 이렇기
 일부분 明文으로 定해놓았지만 다른것은 規定
 이 없어요 依例로써 兩院에서 合致되어야 한다고
 했을나다 二院지만 憲法改正案 問題에 對해서
 或은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지 않을가 念慮했
 기때문에 아주 各各 兩院에서 在籍議員 三分
 之二以上 必要하다고 하는것을 明白히 規定을
 하여 놓았을나다 그러니 지금에 있어서 參議院
 은 構成하기 앞서 二年半이나 저녁으로 經過한
 것이 違憲이예요 거기에서가 參議院의 承諾도
 받지 아니하고 民議院 單獨으로 憲法을 改正하
 는것이 違法이 아니냐 저는 이렇기 생각할나다
 이問題에 對해서는 多少間 與黨은 勿論이요
 野黨 여러同志들과도 意見을 달피하기 때문에
 이렇기 討論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或은 改
 憲案의 內容에 들어가서 볼것 같으면 첫째로
 이것은 아마 制約的인 問題라고 할수있고 法
 律技術上의 問題라고도 할수있지만 條文自體의
 矛盾點이 많이 있어요 그 한구가지만을 볼
 저서 말씀드릴것같은데 爲先 첫째로 第三十七
 條二項을 구하는게 三十七條 二項은 國會에서
 兩院間에 意見이 合致되지 않는 境遇에 어떻게
 하느냐 그기를 規定한것입니다 現行憲法에 依
 기 意見이 一致되지 않을때에는 各院의 在籍

議員數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 合同會議에서 出
 席議員 過半數로서 議決한다 이렇기 되어가지
 고 있는것입니다 그것을 改正案을 어떻게 하
 자고 하느냐하면 議案에 關해서 兩院의 可否의
 議決이 相反할때에 또는 議決內容이 一致하지
 않을때에는 各院議員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
 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議決한다 이렇기 可
 否의 議決이 關해서 兩院의 可否의 議決이 相
 反對의 意見이 一致되지 않을때에는 合同會議
 에 부진다 했는때 이런 改正案에 있어는 兩院
 의 可否가 相反할때에도 그 合同會議에 부
 야하다고 하는것입니다 提案者의 說明을 들어
 보니까 現行憲法下에서도 假令 參議院과 民議
 院사이에서 憲法案을 두고 決議한內容이 다른때에
 는 勿論이 아니라 한院에서 可決한것을 다른院
 에서 否決한 境遇에도 兩院合同會議에서 결어
 가지고 解明을 지어야 된다고 이렇기 볼나다
 그 證據로서는 提案理由를 볼것같은데 現行憲
 法의 그 條文이 用語가 分明치않으므로 本改
 正案은 明白히 하기爲해서 兩院議決이 相反할
 때에도 그 合同會議에 결어야 된다고 이렇기 可
 치자스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나다 이점은 可
 가보기에 提案者 理由說明이 좀 誤解한 것같
 습니다 現行憲法은 二院적이 아닙니다 現行憲
 法은 兩院合同會議에 부진다 參議院에서 어떤
 法案이 可決되었는때 民議院에서는 二法案을 通
 過시켰으나 內容을 修正했다 그때도 한것이 아
 니고 內容을 部分的으로 修正해가지고 通過시

킨 境遇에 그런 境遇 어느 法案이 通過되었
 다고 作定하기 어려우니 兩院合同會議을 열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最後決議를 할수있도록 하
 자는것입니다 한院에서 可決이 되고 否決된것입
 니다 合同會議에 결 餘地가 없어요 이것은 可
 할날 兩院會議을 採擇하고 있는 原則으로되어가
 지고 있을나다 兩院의 意見이 一致될 때에는
 그것이 비록 國會의 全體의 意思로서 成立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院에서 可決된것을 다
 兩院에서 否決해버리면 그 以上 論議할 餘地
 가 없는것입니다 그것은 國會의 全體에서 否
 決한것입니다 이것은 憲法上의 常識이예요 그
 런데 이런에 어떻게 이것을 提案한 사람을
 이 憲法에 밝으신 사람들이 많이있는때 兩院
 의 議決이 一致되지 않았으니 議決한 內容이
 다르다는것뿐만 아니라 한院에서 可決하고 다
 른院에서 否決된것도 包含된다고 하는것은 이
 것은 큰 失手입니다 여기에 이런 憲法은 現
 行憲法을 可決한것입니다 지금 憲法으로 한다고
 하면 한院에서 可決되고 다른院에서 否決된다
 고하면 그때로 그 法案이 사라지고 마는것인
 데 이번의 改正案은 그런 境遇에도 合同會議
 에 부처가지고 議決을 지자는것입니다 그러니
 가 그것은 큰 改正입니다 거기에 矛盾點이라
 고하는것은 무엇이냐하면 三十七條二項에 이렇
 기 때놓고 그다음에가서 三十九條三項에 있어
 서 무엇이냐고 했느냐하면 法律案은 民議院에
 서 否決될때에는 參議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에
 移送할수없다 이렇기 되어있어요 法律案에 對
 해서 民議院에서 否決하여버리면 參議院이 나

兩院合同會議에 보낼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음나 다 이것이 重大한 矛盾입니다

三十七條二項에서는 兩院에서 可決되고 參議院에서 否決되더라도 何如間 兩院에 결여가지고 이것을 成立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不適當한 두

말 머릿진 三十九條三項에 가서는 法律案에關係서는 兩院에서 否決하면 參議院에 보낼수 없다 兩院合同會議에도 보내면 안된다 이것이

矛盾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兩院에서 否決된것이 參議院에서 可決된다고는 할수없음나 저기에가서 可

決될지 몰라요 可決되면 三十七條二項에 依해서 兩院合同會議에 결여해서 解決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수제 兩院에서 否決되어버리면 參議院에 보내지 말고 兩院合同會議

에도 결여말라 했으니 이것은 矛盾이라 그말씀이예요 勿論 提案者로서는 이것이 그런것이아

니라고 이렇게 說明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것을 豫想합니다 무엇이냐하면 法律案

이라고 그러라도 參議院에서 먼저 否決된것이 亦是 兩院에 보낸다... 勿論 兩院에서 通過

한것은 參議院에 가니까 問題없지만 兩院에서 먼저 提出된 法案에對해서는 參議院에서 否決

이렇게 說明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點 이 矛盾이라는 말씀이예요 왜냐하면 參議院에

서 否決된것은 兩院에 보내면 兩院에서 否決된것은 參議院에 못간다 이것은 아무 說明

할 根據가 없습니다 全然 없어요 대군나 三十七條二項에 두명이

兩院의 可否議決이 相反할때에는 반드시 兩院合同會議에 결여해서 解決되어야 된다고 두명이

이렇게 저어놓았음나 그러면 兩院의 議決이 相反할때라는것은 兩院에서 可決한것과 參議

院에서 否決하는것도 包含하겠지만 同時에 兩院에서 否決한것은 參議院에서 可決하였을때

에도 저기에 包含되는것이다 이말씀이예요 그러면 이에서 그 前者에 限해서만 合同會議에

결여야 되고 後者에 限한 경우에는 合同會議가 必要가 없다는것은 說明할 根據가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큰 矛盾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 提案者들이 이 憲法을 너무 이렇게 여러 條目

에 결여가지고 너무나 廣範하게 範圍를 만들 어 가지고 修正하려고 하기때문에 미처 저기

까지 생각 못하고 失手하신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笑聲) 그間題를 들으면 아직도 한 두어개 있음나

앞에 다 내놓고 또 外國語로 翻譯이라도 해야 되고 外國의 學者들이 이것을 보고할때 條

文안에 그것이 서로相互撞觸되고 矛盾이 되는이 런 憲法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國家的으로 큰

羞恥입니다 큰 쟁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願히에 勿論 改憲을할 必要가있다고 생각하시면

改憲을하는것은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研究해가지고 깊이 檢討도하고 그때가지고

이것만은 形式上 두명한 矛盾없이도 해가지고 起草하는것이 어떤가 하는것이 제 意見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그동안 가장 많이 論議가 되고 論爭까지 된것이 이 國民投票制가 아닌가 싶

습니다 저기에 對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요 或은外

國의 學者의 學說이라든지 現代 各國의 實例 따른지 이런것을 모두 물어가지고 國民投票制度

라는것은 要컨대 代議制度에 對해서는 그것이 矛盾되는것이고 우리가 代議制度를 發展시킨後

에는 그것이 不必要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 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簡單히 假令 過去

에 「문테스큐」같은 學者가 國民投票制度 反對할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하면 一般民衆은 兵卒과 마찬가지로 兵卒이라는것은 그 兵卒을 自身이 作戰計劃을 세우고 軍隊을 指揮할 能

二人物에 대한 判斷은 할 能力이 있다. 그대까지
고 「몬테스키유」는 代議制度를 主張하였던 것이니
다 國民投票制度를 反對했읍니다. 「몬테스키유」라고
한 것 같은데 近代民主主義理論의 建設者입니다.
가장 熱烈한 民主主義信奉者였읍니다. 그대들이 그
면 에가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國民投票制度라는
것은 兵卒들이 卒兵들이 나서서 하고 自己가 작
戰計劃을 세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들이
가게요. 그런 學說도 있고 그밖에 各國의 實例
를 보드라도 이것을 우리가 輕率히 採擇할 것
이 아니라는 問題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民度라는 것 우리나라 實情 우리나라의 官權의
저나질 強大性 이런 것으로 보아서 大端히 危險
하다 하는 말들도 많이 들읍니다. 그러니까 그
點은 우리가 그以上 여기에서 論議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저로서 亦是 이 條文을 보
고 한가지 느낀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亦
是 形式上的 缺點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條文自體의 矛盾이라고도 볼수있어
요. 무엇이냐 하면 二內容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
면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變更을
거쳐서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은 國民投票에
붙인다. 이렇다. 말함이에요. 이것이 矛盾이에요.
왜냐하면 主權의 制約이라고 했으니가 主權이
아무 없어야 하는 경우에는 안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主權이 아무 抹殺되지 않고 大韓民國이 아무
亡하는 경우는 除外하고서 主權의 制約이다. 或
은 이 들리면 어느 外國의 軍國이 된다든지
保護國이 된다든지 或은 信託統治를 받는다든지

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인데... 그것을 國民投票도 따지는 것이에요.
二趣旨나 精神은 大端히 좋게 생각합니다.
大統領께서도 누누히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그
心淸도 제가 理解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러나 이제 法律形式으로서의 矛盾이라 그말이
예요. 왜냐하면 現代國家에 있어서 國家의 主
權이라는 것은 憲法에 表現된 것입니다. 憲法은
除外하고 主權이라는 것이 없어요. 마르 없단말
씀이에요. 過去에 君主主義國家 時代에는 國家
의 主權을 象徵하는 것은 어떤 임금 個人이나
어떤 家門 어떤 血統 그것이 主權을 「심보」라
느」였어요. 하지만 現代國家의 主權은 반드시
憲法위에 表現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主權
이 抹殺당하거나 或은 制約을 당하거나 할 때에
는 벌써 그 憲法自體가 말하자면 効力을 喪
失한 경우예요. 主權이 制約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입니다. 現行憲法이 完全히 있다는 것은 그나
라 主權이 完全하기 때문에 이것이 結局 法律
으로서 通用力을 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主權이 左右間 어떤 形態로 制約을 받
아 가지고 完全한 主權國家가 아니게 되면 그나
라의 憲法自體가 廢棄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
외는 憲法... 거기에서 支配하는 것은 어떤 外
國의 憲法이 支配한다는지 어떤 새로운 憲法
이 支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면 여기에서 말
하는 主權의 制約을 가져오는 경우라고 할 것 같
으면 그것은 벌써 憲法自體가 없어야 하는 것이에
요. 憲法自體가 破壞되는 때만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憲法으로 따질수 있느냐 憲法

에 아무리 國民投票도 따는 다 무엇이든 따는
다. 다 해 놓았지만 그 國民投票를 規定한 그
憲法自體가 無効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따는
나 말이에요. 이것은 自體가 矛盾입니다. 이것
을 당기면 어떻게 하면 假令 한 例를 들어서
말할 것 같은데 憲法이 破壞된 그때에는 우리가
라 憲法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류에 不適合되
요. 종류에 不適合과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따를 道理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假令 종류에 붙이 붙였는데 그 부
은 종류를 가지고 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예요. 붙은 종류를 「저고 어떻게 붙을 따
느냐. 말이에요. 붙을 따오려면 붙을 따는 것
을 붙였다가 떼는 것 해야지. 第一 따기 쉽고 따
고 있는 그 종류를 가지고 붙을 따야 하. 이것은
애기가 안된다. 말함이에요. 애기가 안될 뿐만 아
니라 우리가 念慮하는 것은 다른지 아닙니다.
종이를 가지고 붙을 따를 수 없는지 아무 종류
로 따야 하. 따야 하 하는 것은 結局 이것은 다
른 意圖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疑心하게 된다.
말함이에요. 그것은 붙을 따는 것이 아니고 붙을
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念慮되는 것입니다.
(笑聲)
그러나 지금 憲法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것이 實地로 우리나라의 主權이 抹殺된다. 或
은 그것이 制約받는다. 따라서 大韓民國憲法自
體가 効力이 喪失하는 그때에 가서 이것을 따
어야 된다는 것은 변한 애기예요. 필수없는 애
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확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念慮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李忠煥議員께서는 改憲案을 發議하는데 有權者五十萬以上이 贊成해도 할수있다는것은 오히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官權을 濫用해 가지고國會가 顧하지 않는 改憲案을 發議하도록하는에 利用當인 憂慮가 있지만 이 國民投票는 念慮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國會에서 可決될지을 정키때문에 國民自體가 或은 國民을 憑藉하는 어떤 民意自體가 먼저 「이니시아티브」를 取할수없는것이 그것은 念慮할必要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正反對에요 오히려 改憲案에對한 發議權은 國民이 가지드라도 或은 民意國이 가지드라도 相關이있고... 없는것은 아무리 發議를 할지라도 決定權은 우리 國會가지고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우리 國會에서 通過시키면 아무리 五十萬가나 五百萬이 퍼클드라도 相關이 없어요 우리 自身이 不究하게 勇敢하게 論하지아니하고 事實것같으면 危險한 改憲案이 通過될 念慮가 없다 말씀이예요 그러나 이國民投票는 國會에서 決議된것을 또 절어가지고 그것을 無効로 한다 이것이예요 國會에서 아무리 過半數가 아니라 三分之二... 三分之二가 아니라 全員一致로 決議가되 었드라고 국민이 投票를 해가지고 否決시키면 그것은 無効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危險한것이만 말이예요 저는 李忠煥議員이 意見과 正反對입니다 오히려 改憲案의 發議權을은 것은 그것은 危險성이적다고 봅니다 또 各國

의 例도 改憲의 發議權을 國民이 가진 例는 있어 하지만 主權制約이니 國家安危에 關係서 國會가 議決한것을 國民投票로 無効로 한 다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例가 없어요 例가 없을뿐아니라 大端히 危險한 말이에요 어떤 境遇가 危險하다 하는에對해서는 재가 이 新聞紙上에 發表한 일이 있습니다 假令 우리 國會에서 過去에 再議에걸어가지고 三分之二以上으로 通過시킨 法律을 政府에서 公布하지않고 施行하지않는다 그것이 七件이나 되었다 말씀이예요 그것을가지고 國會에서 論議를 했고 政府에서 違憲한다 이대가지고 말이 變은것입니다 그런境遇에 앞으로는 아마 무슨 違憲하지않고 政府에서 國民投票에 結속 이렇게 되지않을까 그러면 豫想이 되어요 政府에서 「비로」를 해가지고 國會에서 再通過시키거나 政府에서 施行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고 이대가지고 窮地에 빠졌단 말이예요 그대가지고 政府가 違憲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자부담을 돌고하니 귀찮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國會를 通過한 法律이든지 무슨 決議든지 行政府의 答에 안된다할때에 무슨 拒否權行使이니 그러면 案이 國家安危에關係되는것이다 이게 앞으로 主權制約을 가져올 事지 모른다 이것이 國家安危에關係 重大事項이다 그러면 國民投票에라 이대버리면 萬事가 다解決되는기이만 말씀이예요 그러면에 利用當하지않을까 하는것을 저희들이 念慮하는것이을 사다 實地로 最近에 보드라도 이國民投票制度를 내놓고 所謂 第三勢力優透 云云 이대가

고서 그러면 이것을... 國民投票制度를 通過시키야된다 하는것을 아주 宣傳攻勢로 猛烈히 말이 그것을 利用하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대버리면 불매에 이기은우 리 野黨에있는 사람이나 一般民衆으로 하여금 도모지 이 國民投票制度를 通過시키야되겠다나... 조금이라도 納得시키는 材料는 되지않습니 다 오히려 저기를 보니 공인한사람을 모라가지고 第三勢力이다 어대가지고 사람을 때려잡 을려고 그러니 國民投票해야된다 이것은 然 國民投票되기前부터 이런地境이니 그것을果 然 어떻게 할수있는가 하는것을 念慮한다 말 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第三勢力優透 云云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行政府가 더 危險합니다 危險해요 이것이 그대로 露骨의이고 不純한에 기같이 들리는지 모릅니다마는 過去의 例가있 어요 過去에 共產黨에 關係를 가진 鄭某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사람이 政府의 內務長官을 공격하고도 共產黨의 幹部를 공격하고 이때가지고 한 一年동안을 大韓民國政府를 左之右之하고 지낸일이 있던 말이예요 實地로 그러 다가 나중에가서 結局에 死刑을 받았습니다 이런事實이 있는것입니다 또 最近에 보드라도 우리 下榮泰國務總理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確實의 大韓民國의 主權을否認하는 것이예요 「제네바」會議에서 十四個條項을 절어가지고 말씀한것을 屢屢히 이자다에와서 說明하 시는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大韓民國憲法節次에 依해서라는 말이들었으니 그것은 大韓民國의 主權을否認하는기이 아니냐하는 이

辯明을 얻기 하였으므로 그렇지 않은 자가冷
 僻하게 二十四個條項을 全部 다 贊成하다하는
 總局 總局에서 이것이 大韓民國의 主權을 앞
 으로 危險하게 한다고 判斷한 道理에 있어
 요. 贊成을 贊成하다 어떤면 「유엔」總會에 가서
 贊成을 贊成하신 外信報道로 들어온 것을 보면
 「유엔」監視下에서 選舉를 한다... 選舉를 해
 도 좋다고 二項이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
 은 大韓民國의 主權을 否認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危險한 일을 지금 하
 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第三勢力使
 透云云을 贊成하면 오히려 行政府를 警戒해야
 될 것입니다. 行政府를 警戒해야 되는 것입니다.
 行政府에서 決定한 것을 國會에서 否認할 수 있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國會에서 만은 「유엔」 行政府
 에서 國民投票을 利用해서 否認하도록 한 것이
 은 오히려 腹反荷杖입니다. 第三勢力使透云云
 앞으로 大韓民國의 主權을 危險하게 하는 것
 態가 있는 것을 贊成하고하면 政府에서 하는 것
 이라고 할지라도 失手할 憂慮가 있을 때에는
 國會에서 그것을 無効로 할 수 있다하는 것 법
 律을 따를 것이요 할 것입니다. 그러면 法律을 따를
 必要도 없어요 行政府에 對한 不信任決議權만 가
 지고 그것을 잘 行使하면 그것은 贊成할 수 있는
 일입니다. 二項에 지금 여기는 贊成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第一 危險한 行政府는 그대로 두고
 아까까지 우리 國會가 大韓民國의 主權에 損
 傷된 일정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國會에서 하는
 일만을 믿기 어려우니 거기에서 定해는 것은
 國民投票에 걸어야 된다 이것은 재가 野黨이

라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立法府안에 물론 두
 고 있는 사람으로서 大端히 慎重하고 慎重하고
 痛憤하다 그 말씀이요 이와 같은 感情을 萬若
 에 與黨이 미분물이 與黨이라고해서 가지지 않
 는다고 할 것 같은데 나는 大端히 無感覺한 것으
 로 봅니다. 感覺이 없으신 것으로 봐요. 혹은
 感覺은 가지고 계시지 모르나 혹은 表現을 안
 하시는지 모릅니다. 左右間 우리 立法府를 이와
 같이 輕視하고 無視하고 冷待하고 虐待하려고
 하는 이 改憲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贊成할
 수 있는냐 이 重大한 問題를 輕率하게 取扱할 수 없
 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다
 음 問題는 아마 政府形態를 고치자는 것 같습
 니다. 다시 말하면 現行憲法에 있는 國務院의 連
 帶責任制를 지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權이
 된 것을 없애고 純全한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해
 야 된다는 이 問題가 아마 가장 많이 論難
 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對해서도 親自身 言論
 을 통해서 많은 發表를 했으니 잘 말씀할 때
 고 하지 아니합니다. 單只 그 동안에 여기서 얘기
 하시는 것을 들으셨으니 大部分의... 몇분이 이
 런 말씀을 했어요. 責任內閣制로 一長一短이 있고
 大統領中心制도 一長一短이 있다. 責任內閣制로 하
 면 民意가 政府에 잘 反映되지만 二代身 政
 府가 不安定해지고 大統領中心制를 하면 多少
 ... 行政府가 좀 多少 獨裁를 할 憂慮가 있다
 할지라도 二代身 政府가 安定이 되고해서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은 우리가 普通 概念的으로 볼 때에 事實 그
 렷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特別히 말씀드리고 싶

은 것은 지금 美國에서 大統領制가 成功하고 있
 으니 우리도 그것을 模倣하자든지 우리 나라가
 지금 이러한 重大한 非常時期기간 大統領으로
 하여금 좀더 權限을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責任內閣制의 要素를 없애야 된다는 이런
 말씀에 對해서는 한가지 基本的으로 우리가 制
 度라 하는 것 政治制度라고 하는 것을 取扱할 때에
 그것이 그냥 덮어놓고 抽象的으로 時代와 場
 所를 超越해서 어느 나라에나 똑같은 效用을 發
 揮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假令 大統領中心制라고해서 어느 나라에서나 이
 런 短點도 있고 저런 短點도 있다고 이렇게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하면 어떤 制度라
 는 것은 그 制度가 適用되는 그 나라 二社會的인
 基盤에서 비로소 그 意義를 가지는 것입니다.
 데 되었고 制度라는 것을 抽象的으로 여기에 갖
 다 놓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 理解할 수 없는 것
 입니다. 假令 우리가 美國의 大統領中心制로 해
 나갈 것 같은데 그 政府가 安定이 되어가지고 大
 統領이 強力한 權限을 가지고 일할 수가 때문에
 잘 되어간다. 그런데 그것은 認識錯誤입니다.
 錯謬이 아니라면 假令 學者들의 說明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美國의 大統領中心制는 英國사관
 들이 많이 批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自然히 나
 라가 다르고 處地가 다르기 때문에 批評하는 것
 입니다. 英國사람의 批評이라는 것이 比較的 公
 正합니다. 그 중에 가장 權威있는 批評의 하나
 로서 「제임스 브라이스」라는 英國學者가 「아메
 리칸, 컴퍼넬스」라는 冊을 썼습니다. 이것은 일
 서 三十年전에 나온 冊입니다. 만은 그 冊속에서 美

國의 大統領中心制를 批評하기를 그것은 眞實
 로 다루워져서 區別하는 것보다 오히려 自
 然的으로 結合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分離시킨 것
 이다 卽 이 것은 三權分立을 論해서 말하는 것
 입니다 그것은 美國의 三權分立制가 原來 같
 러지는 것을 分離한 것이 아닙니다 自然的으로 합
 적하게 되고 있는 것을 억지로 떼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實際로 나
 난 것은 단지 遲延과 混亂과 또 計劃과 實施
 사이에 錯誤가 날뿐이다 일을 遲延시키고 混亂
 시키고 또 計劃은 國會에서 하는 데 實施는 政
 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에 錯誤가 많이 생긴
 다 그것이 美國政府가 大端히 非能率의 이고 大
 端히 無能하고 困難하다 이런 批評을 하고 있읍
 니다 이것은 「브라이스」라는 사람이 十九世紀에
 말한 批評입니다 그때에는 그 말을 듣지 못하
 다 그렇지만 美國은 잘 維持해왔어요 그런데
 「루타이스」自身도 美國大統領의 權限이 弱하
 다고 하는 여기가저는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더욱
 이 大統領의 權限이 獨立되어 있기 때문에 여가
 에서 많은 錯誤가 일어나고 混亂이 일어나고
 遲延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
 디고 最近에 「런던」大學의 政治學教授로 有名
 한 「해글드르스키」라는 사람은 美國의 大統領
 中心制에 對해서 著書를 했읍니다 그의 著書
 가운데서 어떻게 批評했느냐 하면 美國의 行政
 府는 너무 弱하기 때문에 亂했다 이렇게 말하
 고 있읍니다 이것은 普通 우리가 常識적으로
 생각하기에 正反對입니다 美國政府는 大統領
 中心制인데 二政府가 安定이 되고 強한政府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오늘날 우
 리나라에서도 이 改憲案을 提案하고 主張하시는
 분도 行政府로서 좀더 強力한 行政을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大統領中心制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스키」氏는 美國의 大統領中心制는 行
 政府가 너무 弱하기 때문에 좋은 行政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은 잘못이다 美國에서도 結局에 가서
 는 英國과 같이 內閣責任制를 하여야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처음 들으시
 는 분은 大端히 奇異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것은 「머스키」氏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머스
 키」氏는 여대분이 아시다싶이 社會主義者이
 요 英國勞動黨의 指導者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그들은 美國에서 「루트벨트」大統領이 「뉴
 델」政策을 採擇했을 때 그政策을 熱烈히 支持
 했읍니다 贊成을 했읍니다 美國에서도 비로서
 若干에 社會主義의 政策을 採擇하는 것은 「루
 트벨트」의 「뉴델」政策이다 이 「루트벨트」大
 統領은 「뉴델」政策으로 말미암아서 當時 深
 刻한 不景氣를 克服하고 안하자면 美國의 危
 機를 겨우 謀絶케 한 큰 功勞者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美國國內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루트벨트」의 「뉴델」政策에 對해서 反對 保
 守黨에서 反對하는 것은 勿論이거니와 保守黨은
 議會를 통해서 反對를 해서 國會에서 反對했어
 요 또 한편에서는 陪審院에서 卽 美國의 司
 法院에서 「뉴델」政策을 反對했읍니다 司法院
 가 反對하는 것은 무슨 政策上으로도 反對하는 것
 이 아니라 政府의 權力으로도 民間活動을 過度
 하게 干涉하는 것은 美國憲法에 抵觸된다 이런

게 反對했다는 것입니다 美國憲法에 依하여 個
 人的 自由는 保障되어 있는데 政府의 權力이 社
 會政策을 實施하는데 있어서 民間의 活動을 大
 端히 干涉하고 統制하는 것은 이것은 憲法에 違
 반이다 이렇게 해서 美國陪審院에서 「뉴델」政
 策에 對해서 個別 無宣言을 한 일이 있읍니다 陪
 審院에서 無効宣言을 한 것은 法律에 對해서 無
 効宣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實施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델」政策이 그래서 많이 支障을 받았는
 것입니다 「루트벨트」가 萬若 좀더 큰 權限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뉴델」政策을
 좀더 徹底히 할 수 있었을 터인데 三權分立이 되
 어가지고 있고 大統領의 權限이 立法院의 牽制
 을 받고 司法院의 牽制을 받기 때문에 行政府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뉴
 델」政策은 많은 支障을 받아가지고 美國政策
 의 큰 變化를 가져왔다 그래서 「머스키」氏는
 거기에 對해서 不滿이 大端히 컸으며 美國은
 온나라에서 社會主義政策을 施行하는 것을 大端
 히 歡迎하는데 美國大統領의 權限이 弱해서 그
 것을 못한다 그러니 이것은 亂했다 그러니 美
 國에서 정말 좋은 社會政策을 採擇하려면 美
 國의 政治方式도 英國처럼 內閣責任制로 하여
 다 그래서 立法院의 行政府가 一體가 되어가
 지고 立法院가 信任하는 行政府가 서가지고 이
 런 政府이라야만 마음놓고 安心하고 強力한 施
 策을 할 수 있고 그때야만 社會主義의 政策을
 實施할 수 있다 이때가지고 「머스키」氏는 反對하

統領中心制가 政府를 強力히 하고 安定되게 한다
 다는 것은 美國에서는 그것을 理解할 수 없는 데
 기입니다. 美國은 反對라. 二말이요 美國은 行
 政府가 너무 弱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二말
 에 우리 나라에서 美國式을 採用하고 있는
 것은 行政府를 強化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
 것은 全然 모르는 말씀입니다. 美國에서는 行
 政府가 弱해서 「아이겐하위」같은 훌륭한 大統
 領이 나왔지만 이모 저모도 牽制를 받지 않습
 니다. 外交問題같은 것을 하나 決定하는 때에 上院
 外交委員會에서 머물고 야단하며 下院 外交委員
 會에서 머물고 또 民間輿論이 머물고 거기에서
 다가가 막 잘못하면 大法院이 違憲이다. 어쨌
 다 해가지고 야단법석을 하여 美國大統領으로서
 는 苦痛만 받다가 아무일도 못해요. 그것이 이른
 저정이다. 二말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制度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抽象的
 으로 그것을 論議할 수 없으며 이 制度가 여기에
 對한 바탕 그나라의 社會的인 基盤 거기에서 關
 聯시켜 가지고 이것을 觀察하지 않으면 안되고
 二말 無條件 抽象的으로 이 制度가 너무나 저 制度
 가 너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美國에 있
 어서는 大統領中心制를 오히려 行政府가 너무
 弱하다고 해서 行政府가 그야말로 「바탄스」 있는
 政策을 施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못하
 다고 했는데 二反面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나
 라하고 中南美의 조그마한 나라가 모두 美國
 式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하고 있습니다. 制度上으로
 大差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二反對
 이다. 二말이요 거기에 보면 立法府 司

法府가 大問題가 되지 않고 大統領이 完全히
 獨裁를 합니다. 二말은 여머음이 잘 알고 계시겠
 입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의 大統領은
 ... 이것은 제가 新聞에 發表했기 때문에 보신
 것도 사실인데 모릅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를 가 보면 大統領의 任期는 두번까지
 도 못하게 되어있어요. 딱 한번하면 다시 못한다
 고 그렇게 되어있음니다. 또한 어떤나라는 「
 大統領은 自己自身을 繼承할 수 없다」 이렇게 規
 定해 놓았음니다. 卽 任期를 마치면 二다음
 에 繼承해서 또 留任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번지나서 한창있다가는 할 수 있지만 繼承해서
 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二말한 憲法制定은 二
 意圖가 徹底한 民主主義의 思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단두번이라도 繼承해서
 안된다. 이런 制限을 만들어 놓았는데 實際로
 하는 것은 어떤나라하면 거기에 大統領치고 憲法
 規定대로 한번만 딱하고 재래도 맞긴 사람이
 하더라도 없어요. 이것은 놀랄만한 事實입니다. 반
 드시 任期가 끝날 무렵에는 어떻게든지 憲法을
 틀어근쳐 가지고 二대도 繼承하고 있어요. 二대
 도 죽을 때까지 한다. 二말이요 이것이 아주 普
 通 共通的인 現狀이 되고 있습니다. 二말지 않
 으면 憲法을 틀어근치지 못하면 任期滿了가 딱
 죽이기 전에 죽거나 자나 暗殺을 당하거나 제대
 도 圓滿히 을바도 마진사람이 하나도 없음니다.
 그러한 形便입니다. 또 같은 事情으로써 比律
 實같은 나라를 보더라도 比律도 美國式大統領中
 心制를 採擇하고 있습니다. 「퀴티노」 大統領이 또
 選舉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美國의 「라틴」

雜誌를 보면 「比律實에서 二남 有權者가 投票을
 하는 것이 아니다. 山의 밑에 땅속의 개미떼
 까지 投票하였다」 이렇게 批評할 정도도 이렇게
 해가지고 結局 再選이 되었습니다. 二말에 公
 正한 選舉를 했든말 「퀴티노」가 絶對로 當選
 되지 못했어요. 二말가지고 昨年 選舉에 있어서
 亦是 二와 같은 方式으로 할려고 했어요. 後進
 國家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後進國家에서는
 大統領에게 큰 權限을 매겨 놓면 누가 二大統
 領이 되더라도 반드시 또 繼承해서 할 慾心이
 생겨요. 二말기 때문에 「퀴티노」 大統領같은 사
 람은 勿論 政治訓練을 받았고 美國式 政黨을 받
 은 相當한 愛國者이지만 二말한 選舉方式으로
 再選이 되었고 三選이 될려고 努力했는 것입니
 다. 二말나 落選되어가지고 「파사사이」 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結局 「퀴티노」는 落選되었
 지만 落選된 動機는 무슨 「퀴티노」가 法을 잘
 지키고 公正한 選舉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도 아닙니다. 그때에 美國에서는 新聞記者 한
 千名을 派遣했습니다. 그때가지고 大統領 選舉할
 때에 坊坊曲曲 部落마다 말아다녀면서 選舉干
 涉을 하지 않나 彈壓을 하지 않나 不法投票을 하
 지 않나 이런 監視를 했기 때문에 「퀴티노」도
 불을 먹었고 落選이 되고 말았습니다.
 (笑聲)
 選舉가 끝난後 「퀴티노」가 發表하기를 이번 選
 舉는 美國의 干涉으로 인해서 졌다. 이렇게 말
 했읍니다. 美國이 選舉에 干涉한 것은 事實이지
 요. 그렇지만 美國의 干涉은 野黨을 彈壓하는
 干涉이 아니라 與黨이 干涉을 하는 干涉을 했

우려나 이런 일은 後進國家의 共通的인 現狀입
 니다 後進國家에서 大統領中心制을 採擇한다면
 이것은 안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實例로서 두었하
 게 알수있어요 이것은 무슨 理論的인問題가 아
 니다 이것은 大統領中心制가 좋다는지 나부
 다는지 이런問題가 아니에요 초이것은 實際問題
 입니다

우려나라에서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하는것은 이
 와 同一한 것입니다 우려나라 모든 環境으로
 보아서 우리가 美國과같이 되기는 어렵고 「라틴
 아메리카」여러나라나 比律賓과같이 될 可能性
 이 없다는것을 아셔야 될것입니다 그것을 否
 認할수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같이 改憲
 을해가지고 完全히 大統領中心制를 만들 必要
 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적어
 도 國家將來 民族의 運命에 대해서 關心을가
 지고있고 念慮를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冷靜
 하게 생각하여야 될것입니다

그밖에 이것은 質疑에 말씀나온것을 제가反
 駁하는것에서 안되었습니다면은 若干 解明해
 을 必要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假令 張膠根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美國에는 聯邦政治에警
 察權이 있다」그런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어
 떻서 그런말씀이 나왔느냐하면 野黨側에서「美
 國에서는 聯邦制度國家이기 때문에 모든 內治
 에關한 權限이 各邦 各州「스태트」에 屬한
 것이고 中央政府의 權限은 比較的 적다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警察權은 中央政府에는 없다그
 렷기 때문에 大統領에게 큰權限을 주어도 큰
 弊端이 없는 것이다」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러나 聯邦制度國家가 아닌 大韓民國에서는 事
 實할수없다고 얘기를 한때 대해서 張根議員
 께서는 美國大統領에게도 警察權이 있다고 말씀
 을 하셨는데 誤解이신것 같습니다 美國大統領
 은 警察權이 없습니다 무언을보고 하시는지모
 르겠습니다 美國의 內務省이라든지 그것을보고
 警察權을 管轄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하실런지도
 모지만 美國의 內務省이라는것은 警察權을 가
 지고있지않습니다 美國의 內務省이라는것은主
 로 무슨 土地開發이라든지 國土計劃이라든지
 또는「인디안」原住民의 保護이라든지 國立公園
 을 建設하고 管理한다든지 말하자면 우려나라
 內務部 建設局 程度에 그만한 權限밖에 없습
 니다 美國의 長官席次를 보더라도 內務長官이
 라는것은 郵政長官 다음에 있어요 우려나라
 에서는 國務總理 다음에 內務部長官이 首席長
 官 일것입니다 그렇지만 美國에있어서는 一千
 九百四十七년에 大統領繼承에對한 法案을 制定

할때 大統領 副統領이 모두 事故가 있을때
 에는 누구나 繼承하느냐하면 첫째 下院議長
 그다음에 上院議長 上下 兩院議長이 事故
 가 있을 때에는 長官들이 그地位를 繼承하는데
 첫째 國務長官 둘째 財務長官 셋째 國防長官
 넷째 司法長官 이司法長官 이라는것은 무엇이
 나하면 우려나라에 있어서 司法長官이 아니
 에요 美國에서는 司法部가 完全히 獨立되어있
 기 때문에 우려나라에서 말하자면 檢察廳長
 으로서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우려나라에서 말
 하자면 通信部長官 通信長官이라는것은 한企業
 體長官입니다 그다음에 內務長官 이번째 되어

있어요 우려나라 內務部長官과 相當입니다
 邦政府의 內務省에 警察權이 있다는것은 誤解
 이신것같고 또어저께 보면 美國에「에루비아
 이」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聯邦政府搜查局
 인데 그것을 警察도 誤解하시는지 모르지만그
 것은 警察이 아닙니다 그것은 檢察廳長 및에있
 는 機關입니다 司法部안에있는 檢察總長의 搜
 査機關입니다
 警察이 아니옵시다 警察權이 中央政府에는 없
 어요 이것이 重大한 差異입니다 이것이 우려
 나라와 美國과 根本的으로 큰 差異가됩니다
 이警察問題가 第一 困難한 問題인데 美國大統
 領은 警察權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그것을우
 리가 于先 알고 얘기하여야됩니다말이에요 그런
 데 大統領이 警察權을 가지고 萬能의 權限을
 가지고 美國大統領이 하는것으로 이렇게 생각
 해서는 얘기가 되지않는단말이에요 이런 程度
 도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여러가지로 말씀이 되는것은現
 大統領에 限해서 重任制案을 適用하지말자는것
 이 아마 二條項인것같습니다 事實은 우리가
 이런얘기를 議政壇上에서 云云하는것 二 自體
 가 大端히 不美로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
 면 이런얘기를 하자면 이것을 무뎠하게 여러
 분이 指摘한것처럼 우려나라大統領을 두고한 얘
 기입니다 李大統領은 繼續해서 일마는지 再任
 할수있도록 만들자는것인데 이런말씀을 꺼내자
 면 自然히 그분이 政治를 잘했다는뜻 못했다
 는뜻 이런 是非을 묻게돼요 그러니 自體가
 되도록 이런 問題는 안나와야 될것입니다만

그다음에 또한 여러가지로 말씀이 되는것은現
 大統領에 限해서 重任制案을 適用하지말자는것
 이 아마 二條項인것같습니다 事實은 우리가
 이런얘기를 議政壇上에서 云云하는것 二 自體
 가 大端히 不美로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
 면 이런얘기를 하자면 이것을 무뎠하게 여러
 분이 指摘한것처럼 우려나라大統領을 두고한 얘
 기입니다 李大統領은 繼續해서 일마는지 再任
 할수있도록 만들자는것인데 이런말씀을 꺼내자
 면 自然히 그분이 政治를 잘했다는뜻 못했다
 는뜻 이런 是非을 묻게돼요 그러니 自體가
 되도록 이런 問題는 안나와야 될것입니다만

그다음에 또한 여러가지로 말씀이 되는것은現
 大統領에 限해서 重任制案을 適用하지말자는것
 이 아마 二條項인것같습니다 事實은 우리가
 이런얘기를 議政壇上에서 云云하는것 二 自體
 가 大端히 不美로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
 면 이런얘기를 하자면 이것을 무뎠하게 여러
 분이 指摘한것처럼 우려나라大統領을 두고한 얘
 기입니다 李大統領은 繼續해서 일마는지 再任
 할수있도록 만들자는것인데 이런말씀을 꺼내자
 면 自然히 그분이 政治를 잘했다는뜻 못했다
 는뜻 이런 是非을 묻게돼요 그러니 自體가
 되도록 이런 問題는 안나와야 될것입니다만

수있다고 한것은 若子 誤解가 아닌가 저는그
 렷게 보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한바와같이 이問題가 그
 렷습니다 지금 國會에서 論議한것을 보면이
 것이 特權이나 아니냐 民主主義에 違反이 되
 느냐 안되느냐 이러한것을 가제고 먼저 論議
 했을니다 그러니 저는 이러한 問題가제고
 여기에 全部 度外視하고 率直하고 露骨의으로
 말씀한다고 할것같은데李大統領의...結局은
 그분에對한 우리 評價 이것이 아마 實質的으
 로 重要な 問題가 아닌가 生覺합니다 結局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緩
 急하게 優劣하게 속여있는 소리를 모두 어물
 어물 뒤 덮어가지고 이에기할것이아니라 아주
 露骨의으로 몇속에 있는것을 率直하게 忌憚없
 이 말씀한다고 할것같은데 結局 이問題가 무
 엇이나하면李大統領에 對한 評價如何에서 오
 는것이 아닌가李大統領 그분을 가제고 정말
 偉大한분이야 그분이 아니면 大統領될분이없다
 우리 나라에...그분이 大統領이 안되면 大韓
 民國이 아주 亡한다...萬若 그렇게 生覺한다
 고하면 그야 무슨特權이되건 무엇이 되건間에
 任期가아니라 二十任期라도 하셔도 괜찮은
 제 모릅니다 그러나 結局에 있어서 野黨側에
 서 이것을 反對한것은 무슨 우리가 法理論上
 이것이 特權이된다 或은 한사람의 長期執政이
 民主主義를 위태롭게하거나 안된다 여기가지
 論이있지만 結局에가서는李大統領이 이제 한
 두番쯤이니 그만두시는것이 좋겠다하는 여기에
 서 나온것 같습니다 내 自身 그렇습니다 그

그러나 이問題는 結局에가서李大統領을 두고서
 그분이 果然 앞으로 繼續해서 執權하시는것이
 適當하냐 않하냐 結局 그러한 얘기가 되고
 마는것이라는 말씀이예요 그러니 이것은 大端
 히 말씀하기가 거북한 말씀입니다 만은 勿論
 의功績에對해서 이것을 論議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愛國心 그분의 功績 그것은 내가일마
 든게 없이 評價하는것이예요 單只問題는 二
 이 一個行政家로서 하나의「비제니스맨」로서하
 나의 實務家로서 果然適當하냐 안하냐 이것은
 큰 問題란 이말씀입니다 勿論 與黨여러분으로
 서 그것은 얘기가 들린다 무슨李大統領의
 終身制를 만드는것이 아니므로 다음에 出馬할
 資格만 주는것이아니라 그로서 그때에가서 그
 분이 適當하지않다고 認定하면 그때에 落選시
 커버되면 되잖느냐 이렇게 말씀할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亦是 눈감고 아용하는 소리입니다
 (笑聲)...아까도 말씀한것처럼 後進國家의 大統
 領選舉라는것이 대군이나 直接選舉로 하는것이
 불가능해요 執權을 하고있는 그분이 또 되는
 것이라 말이예요 比律賓의「퀴디노」나 그러한
 例를 안들더라도 요즘에李大統領께서 나와
 서 出馬할게가제고 나서면 또 들리겠이 될것
 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얘기가 다 때고 이제
 이만하면李大統領께서 그만하시는것이 좋지않
 느냐하는 그러한程度로써 얘기가하는것이 옳을
 줄입니다 그것은 結局 다본것이아니고 行政家
 로서 그분이 失敗를 만기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美國사람들도 여기가저로 批評을 많히하고있
 요 그한例로서 最近에도 外國의新聞外國雜誌에
 李大統領에 對해서 그분이 失手が 만다든지
 缺點이 많다든지 이러한 얘기를들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例를들것같은데 假令去年에 大
 統領께서 美國을 訪問하셨을때 그當時에 美國
 의 第一은新聞「뉴욕 타임스」라는新聞에
 그論說이 실렸어요 그것은 아주 署名까지한
 論說입니다「로버트 알렌」이라는 美國의 一流
 評論家예요 그사람이李大統領의 施政이라든지
 그러한에對해서 아주 率直한 批評을 하고있
 습니다 甚至於是 무슨李大統領自身에 對해서
 人格的인 侮辱이 필만한 그러한 批評까지를
 하고있단말이예요 性品이 固執이많은 공니
 무 高壓的이라는 공 權力에 戀戀執着하고 自
 己競爭者에 對해서는 嫉妬心이 많고 疑心이 많다
 는 등 이러한 等等的의 우리가 듣기에 귀담어
 들기어머은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은 우리國內에서 우리가 政府의 施策에對해서
 批評을하고 論議한다고 할지라도 外國사람의
 입에서 우리政府 우리 大統領에對한 그러한
 侮辱的인 批評을 듣는것은 우리가 愉快하게
 생각안합니다 大端히 痛嘆하고 어울합니다 또
 나로서는 그와같은 大統領의 個人的인 人格的
 인 面에對해서 그것을 論評할려고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行政家로서 볼때에 그분이
 重大한 基本的인過誤를 저는 犯했다고 보는것
 입니다
 府內 府外的으로 세술수없는 過誤를 犯했다고

것을 저는 여기서 斷定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愛國心이 모자라서 그런것도 아니고 그분이 人格의요로 自己의 私利私慾을 爲해서 그런것도 아니며요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그분이 우리國內의 實情에 어둡다는 말씀이네요 國內實情을 모르는데에서 온것이네요 그분이 韓平生을 美國에서 제시다가 年晚해가지고 國內에 오셔서 가지고 오신 後에 또 直接으로 民衆하고 接觸機會가 적은 높은 地位에 제정기때문에 國內事情을 잘 모르고 國內의 正確한實情을 把握하지 못했어요 그러기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過度를 犯하는것입니다 大統領이 人事行政을 잘못한다 무엇을 잘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結局에가서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民族社會의 現實이 어떻다 그 民族社會의 어떠한 要件이든지 社會的인 要件 文化的인 어떠한지 情勢... 어떠한에對한 客觀的인 判斷을 가지지 못했어요 또 앞으로도 그분이 이것을 正確하게 判斷할 可望이없을너다 거기에서 어떠한 過度가 重生疊滯한것입니다 또 對外問題에 있어 말하드라도 재가보기에는 그분의 外交라고 하는것이... 또는 어떤분은 그분이 鬼神이라고 하는 등 무엇이든 그 稱讚하는이도 있을너다 다만 내가 듣기에는 國際的인 視野가 너무 좁아요 오늘날의 國際外交라는것은 대군나 우리나라와같은 조그만한 나라로서 이 外交를 해나가는데는 넓은 視野에서 말하자면 強大國間的 勢力을 우리가 利用해가지고 以夷制夷式이라고 할뿐지 二 勢力의 「바탕스」그 均衡에

서 우리나라의 自主性을 維持해나가야 할뿐이다 그런데 이분의 外交라는것은 全然 二國에對한 아무 考慮가없이 덮어놓고 犧牲만 내밀면 되는것이리라 美國사람들도 우리같이 할꺼울것이다 이러한 程度로 아시는것같아요 이것이 重大한 問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때로 비하면수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重大한 國際的인 危機에 到達하고 있는것입니다 무슨 韓美...最近에 七億佛에對한 援助가 美國과 合意를파서 實現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우리가 安心할수없는 이야깁니다 過去에도 美國서 對韓援助라는것이 처음에 豫定했은 額의 七分之一밖에는 우리나라에 合意가되었다고해도 앞으로 잘드려오리라... 이것은 믿기 어려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前例로보면은 一億佛드려오면 잘드려울것입니다 그러면 一億佛밖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사느냐 말이네요 二戰에 軍事問題 集團安全問題 이런 것은 문제가있어서 우리가 到底히 이事態를 어떻게 두고서는 앞으로 打開해나가기가 大難히 어렵다 이러한문제를 우리가 생각할때 結局에있어서 將次에있어서 적어도 次期 大統領選舉때에 가서 너무나 李大統領 二분만을 이렇게 無制限하게 二자리에 제시도록 하는것이 우리國家를 爲해서 不利할뿐만 아니라 또한 大統領 二분을爲해서도 決호 이것이 二戰에 偉大한일이 안되지않는가 하는것을 우리가 念慮하는것입니다 二대기때문에 이 重任制度撤廢에 있어서도 二대한 모든 點 우리對

內 對外的인 環境 現實을 우리가 深刻히 考慮해가지고 거기에對해서 우리가 이것을 善處를 해야되겠습니까 大略 以上으로써 그동안의 論爭이 一 重要한문제에對한 所信을 披瀝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國是로서는 어디까지든지 大韓民國의 主權下에서 南北의 統一해야 된다는이야기를 하고있는 이때인만큼 이 憲法問題를 우리가 더욱더 慎重히 생각해야 되겠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안드릴수없읍니다 假令 美國사람들이 볼때에 大韓民國사람들은 밤낮 大韓民國 主權 主權 며음지만 二憲法를 저따위로 待接을하고... 있는 憲法하나 제대로 지키지않고 混雜하면 必要할때마다 이것을 고친다 저것을 고친다... 그러면서 大韓民國에 무슨主權이 있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現代國家의 主權이라는것은 憲法에 表現되는것이요 憲法이 바로있고 主權이 바로있는것이 眞입니다 그런데 그 憲法을 二種을 합부르고 疎忽히하고 제대로 지키지도않고 憲法을 지키지도않는 사람이 憲法이나 主權만 떠날것같은데 남이 듣기에 異狀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에 共産陣營과에 交涉하는 途上에있어서 그분들이 이러한소리를 할뿐지 아니라 大韓民國의 主權이 어디에있느냐 憲法을 밤낮 들이고치기만하고 憲法에 違反만하는 나라가 主權이 어디있느냐... 이러한 소리들을 들을수있다 말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答辯하겠어요 그러면 二대한點을 考慮해서라도 우리가 改憲問題에 있어서는 慎重히 取扱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재가 與黨에게

신 여씨에게 말씀드리고 시문것은 아까 政府形體문제에 이야기할때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만은 結局에 가서는 萬若 이것이 通過가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改憲案이 通過가 되어가지고 이 案대로 大統領中心制가 그때도 實現되는 날에는 어떠한 事態가 오느냐 그때에 臨하게 될 國內外情勢는 別途로 하더라도 與黨의 立場에서 볼때에 그때에 가서는 與黨自體가 不必要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國務院에 대한 不信任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與黨이 必要하다고 하지만 그것저것 다 없애 버립니다 勿論... 個別不信任案이 있으면... 二면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國務委員 個人個人에 대한 不信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政治的關係가 없는 것이요 그 사람의 個人的인 어떠한 失策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거기에는 與黨이 必要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國務委員 個人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惡感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與黨이라 하더라도 反對할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野黨이라도 支持할 것이기 때문에... 個人的인 不信任이라는 것은 政黨의 基礎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改憲案自體가 通過되어서 實現되는 날에는 아마 與黨自體가 必要없지 않을가...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主張하시는 與黨의 의원들은 스스로 自己의 墓穴을 파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것을 念慮하는 것입니다 (笑聲)

요 옛날에 缺이나 이런 것이 없고 메물가지고 있을 잠은 時代에 아무 평을 잘 잡는 자가 있 어가지고 평을 잘 할 때마다 主人이 메물것을 잘 주고 待接을 잘 하니까 신이 나서 그만 아무 밧작 서두러가지고 山에 있는 평을 다 잡아 버 렸다 말이에요 다 잡으니까 그때는 稱讚할 줄 알았드나 나 이제는 必要없으니 너무더 잡아 먹자고 해서 메물 잡아먹었드라... (笑聲)

그러나 勿論 與黨으로서 政府을 支持하시고 大統領의 方針에 順應하시는 것은 좋습니까 그러나 여씨분이 그 너무 지나치게 평잡은 데가 안되지기를 바랍니다 (笑聲)

○議長(李起鵬) 發言順序에 依해서 韓熙錫議 員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議長 時間이요」하는이 있음)

(「繼續하요」하는이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이 있음)

(「議長 時間이요」하는이 있음)

잠깐 조용해 주세요 저... 여씨가지 問題로해서 오날 午前 午後... (續)

(「時間이요」하는이 있음)

(場內騷然)

...中間에 점심時間을 쉬어야 한다고... 그래서 繼續해서 會議을 進行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씨 議員들의 意思가 계시면... (續)

(「그냥 하요」하는이 있음)

(「時間이요」하는이 있음)

(場內騷然)

別로 吳議長 찾아신 議員이 앉게 되면 그때로 繼續해서 하겠읍니다

(「異議없오」하는이 있음)

(「異議있오」하는이 있음)

(場內騷然)

二면 可否를 물어서 決定하겠읍니다

○曹泳球議員(議席에서) 議長 異議있을 때에는 院議에 들어가가지고 決定해야 하는 것이지 二면 議事進行하면 안됩니다

○議長(李起鵬) 가마니 기체요 거기서는 發言할 수 없어요 가마니 기체요... (續)

(場內騷然)

(「時間이요」하는이 있음)

○韓熙錫議員 만만히 보시지 마시요 여씨분 보 시다 싶이 키는 조그맣고 하니 만만히 보는 模樣입니다 (笑聲) 그래서 여씨가가 한번 올라와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면 다 본분이 실견 저꺼 리고 나서도 그분의 한 翼分之一만 얘기해도 取消하라고 야단이고 남들이 할 때에는 다 본 때 에는 괜찮다가 내가 이壇 위에 올라오면 時間 이라고 야단이고 이것참 사람이 만만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適히 小心한 사람이 이런말씀을 드릴 때에는 가슴이 무근무근해서 말을 못하겠 습니다 그러나 여씨분께서는 時間을 빼치시는 曹泳球議員께서도 十萬善良의 「공자」를 보여 주 서가지고 한번 국참모 들이보아 주십시오 저는 이 改憲案을 贊成하는 對論의 끝으머리말 달 었습니다 따라서 質疑七日間의 說往說來와 이 三日間에 걸치는 大體討論에 論證된바를 大略 추려가지고 저의 意見을 말씀드릴려고 하 는바입니다

法理論에 對해서는 七日동안 論議된 實狀 特히

그 實情을 照會하여 應得한 答復을 受케 하고 通例

가 되고 實情을 알게 되고 그 原則에 있어서는 原

則 原理에 있어서는 則 다시 여기서 必두리

하지 않더라도 程度로 다 仔細히 論議이 되었

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原則 原理에

對한 法理論을 重復하지 않고 民主政治의 根本

原則에 비수이어서 이 改憲案에 對한 民主政治人

의 取捨나 態度가 무엇이나 하는 것과 이것을

反對하기 위해서 主唱하신 여러분의 政變 非難

에 對해서 좀 辛辣한 批判을 加해 볼려고 합니다

특히 한가지 點上에 對한 質疑나 討論을 通例

가지고 法理論보다도 政府에 對한 失政의 叫彈

憶說 境遇에 따라서는 應說에 가까운 이러한 말

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注目點입니다. 제가 생

각할 때에는 말이 오자라면 주먹질이라고 그

때가지고 議論이 不足하면 應이나 하면해보자

는 格이 아니었는가 생각하여 反對하기 위해서

反對를 繼續해 말았다는 등의 立場을 同情도

하고 大端히 약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應說이

나 憶說이나 非難 政變이라는 것은 사람의 위

에 속속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國民

의 단 한사람이나 몇몇사람이라도 事實을 歪

曲해서 認識을 하고 구동된 判斷을 한다면 안되

겠기에 平素에 豫倅이나 情理를 떠나가지고 좀

冷酷한 批判을 加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民主政治는 輿論政治입니다. 輿論을 尊

敬하는 政治요 輿論에 따라야 하는 政治입니다.

솔바른 民意라 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民主政治의 基本理念입니다. 이 憲法改正

案을 反對하시는 여러분께서 主唱하시기 를 國

民이 다 改憲案을 反對하는 때에 너리란이

이것을 贊成하려고 하고는나 萬一 이것을 無視하

고 이 民意를 無視하게 되고 改憲案을 通過시킨

때에는 遺臭萬年대까지도 陋名이 千歲에 남으

리라. 이 말은 眞實합니다. 솔바른 民意가 이

改憲案을 反對한다고 할 것 같은

우리는 通過를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柳

珍山議員께서 이 改憲案은 民意가 全部 反對를

하는 것이니 撤回하라. 撤回하는 것이 아니라 해

가지고 좀더 強硬히 이것을 勸告했습니다. 柳

珍山議員의 勸告를 기다릴 것도 없이 솔바른 民

意가 이 改憲案을 反對한다고 하면 우리는 自

進해서 撤回할 用意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셨다

錢謙漢議員께서는 賢明한 國民은 이 改憲案을 贊

다가 反對하고 있으니 數의 多數를 말하시고 이것

을 通過시키지 말아라 하는 말도 했습니다. 어

느 때에는 民意를 賢明히 못하다고 하면서도 어

느 때에는 賢明한 民意니 말아야 한다. 이런 말함

을 잊습니다. 여러분 萬一 反對하시는 분들이

主唱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國民이 이 改憲案을

다 反對하고 싶어하니 所謂 이것을 民意가

이것을 反對하고 있으니 撤回해라 하는 그 民意

라는 것이 眞正하고 솔바른 것이냐 하는 것을 지

금 여러분과 같이 먼저 檢討해보고저 하는 것입

니다. 첫째로 솔바른 民意라는 것이 무엇이나 요 것을

우리가 規定하여야 될 것

첫째는 이 反對하시는 분들이 主張하시는 民意

가 國民이 다 이 改憲案을 싫어한다는 이所謂

民意라 그것이 솔바른 眞正한 民意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辨明해 볼 必要가 있습니다. 솔바른

民意라는 것은 每事每物에 對해서 正確히 認識을

한後에 公正하고 公正한 批判을 해야 된다는 것이

批判 判斷위에서는 國民多數의 意思요 民意요

輿論입니다. 事物을 무슨 物件을 專바로 正確히

보지 못하고 正確한 判斷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國民의 意思라는 것은 眞正한 솔바른 意思가 아

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 솔바른 民意라는 것을

우리가 規定하는 때 參考삼기 위해서 한가지

例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洞리에 생하다가 있습니다. 洞리사람이

共同으로 쓰는 생하다가 있는데 그 洞리사람이

말에도 하고 더러운 것도 딱고 부서진 생을 더러

운물이 흩어 드려오는 구멍을 막지도 않고 해서

그 생을 無秩序하게 關係로 그 생이라는 것

이 大端히 더러워지고 大端히 衛生上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洞리사람 한사람이 여기에

留意해 가지고 衛生上 大端히 나쁘니까 이 생

을 한번 고치고 消毒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가

지고 몇몇사람과 相議를 해서 그 생을 끈지고

消毒을 하려고 相議를 해 가지고 장에 나가서 藥

房에 가서 消毒藥을 사 가지고 물어 옵니다. 「네

로」 푸대군 사 팔어 주고 消毒藥을 瓶에다 넣어

가지고 물어 옵니다. 여기서 平素에 그 사람에게

對해서 怨恨을 품고 이 사람에게 大端히 不愉快

한 敵對視하는 感情을 가진 사람의 몇몇사람

이 이것을 보고 말리 洞리에 찾아 물어 가 하는

말이 洞리사람을 보시요 저사람들이 우리 생

에다가 毒藥을 뿌려 가지고 우리들 다 죽일 위에

우리의 財産을 모두 갖아가려고 저리 할까리

나를 때리고 하는 凶計를 꾸민다. 저사람들이 가
 제고오는 「세명료」를 보아라. 저게 무슨 「세명
 료」나 저 세명에 燕藥을 부리지. 명은 뒤에 그
 「세」은 못쓰게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세를 따서 세
 명을 써서 되고 自己들이 燕藥을 가져고 오는 것
 이다. 저사람들이 가져고오는 것을 보아라 「세명
 료」보아라. 가지 않으나 거기에 燕藥을 담은 것
 을 가져고오는게 그것은 매우 명이나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은 燕藥이다. 이렇게 宣傳해 놓았다고 합
 시다. 그 洞裏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지만 이 藥을 붙였다고 하루 저사람
 들이 이 藥을 갖다가 消毒해 가져고 우리들 衛生
 上 롭게 만들게 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기한
 것을 全然 隱謀이다. 저사람들은 더 낫잖아
 네 시의가서 아무 洞內에서 짐을 부시고 팔아
 려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誣告해서 잡는다
 꾸드려고 이런 나쁜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사람
 들의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消毒藥을 붙여서 우리들
 衛生上 있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우리들 幸
 일려고 하는 陰謀이다. 자주 이렇게 歪曲해서
 煽動하고 宣傳합니다. 그때에 洞裏사람들은 冷
 靜 沈着히 생각하는 몇몇사람밖에는 이것이
 참말인가 부다하는 疑念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러나 冷靜히 沈着히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것을
 생각했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사람들이 하고
 붙고 눈물을 흘리고 큰물을 흘리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하는 바람에 全部가 저기에 속아가게고
 二 消毒藥을 하려고 藥을 가져고 붙어오는 사람을 보고
 天下에 죽일놈이다. 저놈은 여기에 붙어오기만
 하면 藥을 부시고 「세명료」를 붙여내버리고

거기에서 저놈들을 잡아넣어서 때려죽여야 한
 다는 생각을 가져다오합니다. 이것이 普通일 것
 입니다. 어떠한 이 때에 이 消毒藥을 하려고 좋은
 생각을 가져고 세를 본지고 消毒藥을 해서 衛生上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藥을 가져고 붙어오는
 때에 洞裏사람들이 誤解를 가져고 저놈들은 우
 리들 죽일려고 하는 놈들이다. 나쁜놈이다. 天下에
 죽일놈이다. 저놈 藥을 부시고 저놈은 죽어야 된
 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올바른 民意입니다. 眞
 情한 民衆의 意思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民意
 가 아닙니다. 洞裏사람들이 그 消毒藥을 하려고 하
 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眞情으로 消毒藥
 하려고 하는 그사람들이 사가져오는 것이 참말
 消毒藥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洞裏사람
 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니 좋은 일이다
 한 번 보아라. 말더보아라 하는 생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똑바로 事物을 認識해 놓고 燕藥은
 燕藥이다. 消毒藥은 消毒藥이다. 똑바로 區別해
 서 시의한 것이라 하는 것을 眞情하게 알고 이것이
 참말로 消毒藥이다. 하는 것을 안 뒤에 그러면
 한 번 보아라. 하는 것이 眞情한 民意이고 輿論
 이다. 잘못알아가지고 燕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주로 속아가게고 二놈을 죽여라 하는 것이 民
 意요 이것이 올바른 輿論입니다. 저는 眞情한
 民意라는 것은 이것이 아닌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러한 말을 例로 다른 것은 여
 러분께서 改憲案에 대한 非難 改憲案에 대한
 國民의反對 國民의意思 改憲을 구안하였으면
 좋겠다는 意思라는 것이 眞正한 것인가 아닌가가
 는 것을 어떠한에서 말하시는지 民意라는 것이

果然 眞正한 올바른 民意냐 하는 것을 檢討하
 기 위해서 한가지 다시 새로운 例를 붙여볼려고
 합니다.
 假令 一部の 어떤 人士들이 自由黨이라는 것은
 全部 도둑놈이다. 자 보아라 코루는 어떤 아재
 붙이 장사하는 洋當舖을 때어서다가 먹고 月
 給을 하고 五十萬圓을 갖다먹고 威尙勳氏聲
 明事件을 捏造해 가져고 虛偽로 만들어 가져고
 野黨의 어떤 首領되는 분을 埋葬시키기 위해서
 陰謀를 꾸민 것이다」하는 이러한 宣傳을 했다고
 합시다. 歪曲된 宣傳 煽動을 했다고 합시다. 二
 명놈고서 自由黨놈들은 모두 못된놈들이라는
 認識을 꾸어놓고 그사람들이 改憲案을 가져고
 나온 것이니 오죽한 것이냐 하는 認識을 했다고 합
 시다. 그 생각을 꾸었다고 합시다.
 「저사람들의 改憲案이라는 것은 잘못은 좋다
 고 알든지 모르지만 全部다 우리들 못하게 하
 는 것이다. 드러다 보아라 國民投票制: 國民投票
 制을 제로 만들어 가져고 國家安危의 重大한 時
 機가 오면 그사람들 意思를 붙여서 決定한다
 으면지만 그것은 잘못으로 하는 말이지 實際로는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만들어 가져고 國家의 모
 든 일을 다 이에 憑藉해 가져고 國民投票에 부
 치놓고 警察이나 官權으로서 이것을 붙여가지
 고 民意를 歪曲해서 自己하고 싶은대로 專行할
 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認識을 꾸었다고 합시다.
 二 다음에는 國務總理를 없애가지고 大統領中心
 制로 만들었다. 大統領中心制로 만들어 놓으면 나
 라의 政局이 安定되고 強力한 行政이 施行된다고
 으면지만 國務總理를 없애가지고 大統領을 獨

裁하기爲한 法律이다. 그대가지고 獨裁를 시켜 놓고 거기엔 『아유』 대가지고 利權이나 돈되고 榮達이나 할려고 생각할 가지고 있는것이니 저 금이나라의 行政政治가 모두 잘못되어가지고 우리의 民生은 塗炭에 빠진데도 不拘하고 自己를 생각만 해가지고 大統領의 獨裁를 시켜서 우리漸漸 못살게 하는 方途다 하는 煽動을 했다고합시다. 대군이나 現大統領을 終身制로 해가지고 二宗으로 하여금 一生 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大統領을 만들게 한다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란말이나 하는 얘기를 했다고합시다.

經濟條件問題를 물어가지고 大衆을 犧牲시킨 후에 資本家를 만들어... 몇몇사람의 資本家를 만들어주기 爲해서 經濟條件을 改正한다고 煽動을 했다고합시다.

이러한 認識下에 國民이 아 그렇다면 그 改憲案이라는것은 反對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것은 當然한 理致입니다.

그렇다면 이 改憲案을 反對하는 國民의 意思라는것은 아까 비근한 例로서 알음드린바와 마찬가지로 洞里的 어떤사람이 「셈이 드미워서 衛生上 나쁘니까 消毒을 할려고 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誤解한 시켜가지고 저놈은 우리의 殺을 시킨려고 하는것이다 이렇게 다루게 생각하게가지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름니까 이것은 眞正한 民意가 아니요 民主政治의 基盤이 되는 民意가 못되는것입니다.

이러분 民主政治는 輿論政治입니다. 輿論에 의하여 하는 政治인 동시에 民主政治는 輿論을 正

確히 指導하여야 할 義務와 責任이 있다는것도 알으셔야 될것입니다.

警察이나 其他의 官權에 굴면서 民意가 抑壓되게 할도록 警戒해 주는 同時에 事實을 事實대로 正確히 認識시키고 歪曲宣傳이나 煽動으로서 民意가 이그러지지 않도록 引導해야 되는것이 民主政治의 責任이 아니라.

○ 覆覆됩니다만 답해 못하하나 求見 못한 百三十六名의 自由黨員을 모두 洋甘매 도둑놈으로 만들어 놓고 農村에서 一般國民大衆이 中央自由黨의... 中央黨部가 무엇인줄입니까... 選舉때에 오니까 나가서 自由黨으로 立候補해가지고 나

은 二票를 던져준 自由黨立候補者만이 自由黨員으로 아는 사람의 心理를 利用해서 自由黨 中央黨部의 어떤事務보는 한사람이 다 본도둑놈을 해먹었다고 해가지고 自由黨員이 全部가 洋

당매 도둑놈을 해먹었다고 하는 事實은 이것은 아무때도 어긋난 事實이요 너무나 歪曲된 事實의 標本의 하나가 아닙니까

全州李氏의 한사람이 도둑놈을 했다고 그때가지고 全州李氏를 全部 도둑놈으로 만들어야 을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될것입니다. 萬一 어떤法으로 한다면 咸尙勤氏 聲明事件이 咸尙勤氏는 民主國民黨의 幹部이지만 選舉에 떨어져가지고 돈이 떨어져지니까 自由黨에서 돈을 얻어먹고... 官廳의 돈을 얻어먹고 叛逆的인 煽動을 했다는 얘기를 自己들의 입으로 할때

에 亦是 民國黨員이면... 黨員이라고 하면 全部 돈으로 買收할수 있다는 認識을 주는것이 옳다는 얘기가 됩니까?

(「술스」하는이 있음)

들은事實이 어긋나기가 적지않은 이야기기때문에 이말씀을 이리한 그릇된 認識을 주어가지고 事物을 二重치게 判斷하게 하는 後에 그대놓고 二認識이 옳다고 하는 이것이 옳바른 民意다 하는 이야기는 民意를 그릇 指導하는 民主政治의 叛道이라고 생각합니다. 咸尙勤事件이 야기를 드릴때 저는 實 事實 氣分이나 했을

니다. 二事件自體가 이노黨的 內部에서 나온것이라는 이야기는 알겠읍니다. 選舉에 돈이 떨어가지고 돈이 窮하니까 돈을 주어가지고 演劇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나올때 저는 남불

의 한술기의 눈물을 흘린 한사람이읍니다. 興亡 盛衰가 天地循環에 眞理라고 하지마는 眞理에 거기에 拒否할수 없는일이거마는 一時에 隆盛을 누리든 民主國民黨이 情勢의 轉移에 따

라서 榮業의 進을 전는다고 할지라도 내黨 내 幹部의 어떤사람이 돈이 떨어져서 어느 反對黨에서 돈을 먹고 叛逆的인行動을 하였다는 이

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民意를 歪曲해놓고 겨우로 세워놓고 煽動을 해가지고 이것이 옳바른 民意가 있다. 그리고서 二代身 官權으로써 警察으로써 民意를 이거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矛盾된 이야기입니까. 내가 官權으로써 警察이나 其他의 官權으로써

늘는가지고 民意를 造作시켜서 안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反對하는이들과 同한 心構입니다. 우리나라의 警察이나 其他 官權으로서 늘는가지고 民意가 造作되는 동안에는 民主政治가 안발작을 거머가지 못하는것도 저도

自願하고 있을지다 그러나 權力으로서 民意를
 만물이 가지고 歪曲된 民意로서 모든國政을 處
 理하려고 하는것이 나쁜것은 여의물이나 제나
 同一한 생각입니다만 다만 이 官制民意라는것이
 自由黨의 政府의 興黨으로서 成立以後에 비로
 서 생겨난 創造物이요 自由黨이 官黨으로서
 協助해나가는 동안에만 있을수있는 事實特許라
 고하는 二면性態度는 甚히 不當하다고 생각합
 니다 제가 하가지 例를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
 다 그는 지금부터 五年前입니다 이議事堂에서
 二、三百里밖에서 作故해가지고 死亡해가지고 補
 關選舉가 施行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힘을
 다 해가지고 여의물이고 제이까지 팔어가지고 주
 을힘을 다해서 當選이되니 當時에官權은 當時
 에 이官權을 左右할수있는 어느 人士들은 이
 當選사람을 當選이라고 불어가지고서 當選이
 되어서 서울에 登壇하고 나오는것을 잡어다
 留置場에 집시넣고 強制로 取消시킨후에 自己
 가 所期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當選을 시
 긴일이인다는 이것은 五年前에 自由黨이 생기
 기前입니다 누가했느냐 그것은 저도 對答안하
 겠습니다 여의물들이 밖에서나가지고서 議會政
 治史 七「제이 지」를 펼쳐보면 아실것입니다
 이말에 해놓고서 自由黨만이 나외는 오후나루
 고 나외는 오후 官力으로 永久히 與黨이라고
 해가지고 政府의 權利를 가져오서 民意를 造作
 해서 憲法을 改正하려는것은 안된다는 主張에
 는 저는 承服을 못하겠습니다 옛말에 知己必
 贈이요 責人必贈이다 自己를 알면 반드시

어우러지는것요 다른사람을 責할때는 반드시
 밝히려는 法이라하는 말이입니다 歲月은 流
 머가고 歷史는 變遷해입니다만 사람의 心理動
 意는 몇千年 百年前이나 같은것같습니다 이
 오늘날 이말 이마당에 實情이라는것이 二대도
 그대진것같아서 感慨無量한것이 납니다 여의
 물 近者에 血關司令部나 白骨隊이 하는것이 自
 動軍을가지고 다니면서 「백라」를 몇萬장 무엇
 다고 해가지고 여의물에서 감작을해가지고 우
 리民意는 다 어그리지고 우리韓國의 民主政治
 는 부서졌다고 의치시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
 韓國의 實情으로서는 할수있으면 이런말까지도
 없었으면하는 所望은 마한가지입니다 그러나
 民主主義의 天國이라고하는 美國 二中の 首都
 「워싱턴」二中에서 特別히 大統領官邸「라이
 브하우스」白亞館앞에 正門앞에 金을조각조각
 背迫해놓은 文句를 쓴 「푸한카트로」와 「백」라
 글 붙고서 「메오」하는것이 언제든지 每日갈
 이 있다는것을 여의물에서 參考的으로 알기
 되면 좋을것같습니다 特別히 「백라」를 가지고
 「푸한카트로」를 가지고다니는 사람이라는것은
 日給 몇천에 팔려가지고 온 사람들이라는것을
 參考的으로 알기수하면 좋을것같습니다 百七十
 前의 民主政治의 歷史가신 美國에서 日前番
 立候補사람의 暗殺未遂事件이 있었던것입니다
 그런것으로 보아가지고서 「백라」몇萬장 무엇
 다고 韓國의 民主主義가 죽고 우리民意가 어
 그리되고 이것은 自由黨이 하는것이요 政府의
 잘못하는것이라고 너무 책망하시면 過度한정성
 을 하시기에 神經過敏이되게할모욕 말씀드립니

다 이것 제가 말씀드린것으로해서 이改憲案에
 對해서 國民이 싫어한다 反對한다 卽 民意가
 反對한다하는 그 여의물의 主張하시는 民意라
 는것이 어떤것이냐 하는것은 여기에 解部가되
 신줄입니다 그와同時에 官制民意가 있다고하면
 歷史가있고 그程度에比해서 오늘날 最高絶頂에
 까지 가지못한것이라는것도 여의물에서 알기
 못할줄 압니다 그렇다고하면 一週日에 걸리는
 質問과 三日間의 討論에서 이憲法改正案이 法
 理論에 矛盾이있고 없고 證明되는것은 여의물
 에서 改憲案에 覆覆되는 努力이라는革新은 水
 泡에 들다가는것이고 도리히 萬一 眞情한民意
 의 歪曲이되리라는것도 여의물에서 알기수없
 할것입니다 저는 좀 角度를 달려해가지고 民
 主政治의 典型的인 代議政治에있어서 絶對的인
 要素가 信義誠實의 原則에비추어가지고 이것을
 反對하는 여의물들이 論하시는 法理論中에 甚
 히 不當하다고 認定되고 있단點 몇가지를 이
 信義誠實의 原則에비추어서 批判하고 檢討해보
 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近代民主
 政治의 方式은 代議政治입니다 國民全體가 총
 여서 國政을 論議해道理는 없으니가 自己의代
 身사람 自己를 代身해서 말한사람을 우리의
 選舉해놓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國政을 代辦하
 게하는것이 우리 代議政治입니다 그러면 이代
 議政治에있어서는 사람을 뽑는다는것은 補選다
 는 이야기는 믿고서 풀어야되니까 國民은 믿
 고서 내보내는것이다 選出되어서 내보내는것은
 미덥을라고 믿기수지요 나는 미덥을받은 그때
 로 하는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議政

壇上에서 論議하는 것은 이 信義誠實의 原則에 비추어서 우리는 國民을代辯하고 眞情한 代辯者라는 意圖에서 우리가 僥說 專說 自己의 善美있는 固執을해서 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慎道參議員께서 改憲案에 參議院構成前에는 憲法精神에 違反한다 이리한 말을 하시기 위하여 內外間에 사는데 主人이 어디를 나가면서 二夫人한데 簡單히 答일이나 하다고 代身하라고 말기나 그런데 主人없는 동안에 二夫人이 旁을판다든지 집을판다든지 重大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夫婦生活에 順理에 違反하는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學理的으로 理論的으로 大端히 眞道參議員께서 이런 實例를 들으신다는 것은 大端히 實 落心千萬입니다

나더 二그러나하면 장가를 물어가지고 夫婦生活을 하다가 男便이 暫間 旅行을한동안 말입니다 고하는... 四柱만 해놓고 婚姻도 못하고 집나갔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 것은 全然 이야기

가가 안되는 것입니다 民議院이 있고 參議院이 같이 있는데 參議院 사람이 全部 旅行을했다는지 休會한途中에 또는 參議院만 休會시켜놓고 民議院 사람이 물어가지고 參議院이 없는를을 休會의를을 다가지고 參議院이 確實히 夫婦生活을 하다가 男便이 어디를갔을때 旅行을갔을때에 附託을했더니 다누라가 參議院

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장가를 물어가서 四柱를 해놓았는데 집에 물이났다 災禍가났다 어찌가지고서 婚姻을 물에하자 來年을예하자 해가지고 二年동안 고

어나왔다 말이요 四柱만 해놓고 장가지집 못가

는데 그중에 二年이나 三年후에 이렇게 더더 어지연 마누라나 사망보고 일 아오지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드모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二다음에 國民投票制에 第 論議가 已어났는데 國民投票制을 反對하시는분들의 選論이 무엇이냐 할것같은데 이制度를 만물이되면 이것 惡用을해가지고 全部 어기어다 濫權해가지고 모 든일을 그나 國民投票에 비추어지고 그해가지고 民意를 물는다는 것이 內務部長官 警察局長 警察署長 支署主任 이 道知事郡守해가지고 해

마 해가지고 命令을해가지고 딱 물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民主主義아니고 아오것도 아니고 이것은 專制이다 이러한 말들이요 二대시 提案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 한境遇에 이면 變應가 있다고하면 안될것이니까 이것을 따

기爲하여 主權制約이다 領土의 變更이다 提案을 해놓고 그나 不足하거나 國會에서 可決 안 이것도 國民投票에 부진다 이렇게 해놓았 다말이에요 이렇게해놓고 그렇게하면 되지않느냐 그러니 反對하시는이들의 말이 무엇인고하 니 그것도 못말겠다

二것 누가 믿을수 있느냐 到底히 믿을道地가없 다 정으로는 主權의 制約이니 領土의 變更이니 國會의 可決이니 해보지만 實地로다가 그것을 眞개대놓고 딱 부러가지고 내놓으면 道理가 없

지않느냐 蘇宜奎參議員께서는 다음다음 大統領當 選된사람이 十代 五十代 百代가는 大統領이 으구 國章을 세기前에는 어떻게 할수없다 民意를 믿을수없다고 하는말을 斷言했읍니다 지

는 이말을듣고 참말로 代議政治의 根本原則이 되는 信義誠實의 原則에依支해서 眞實한 사람이 民意를代辯하는 사람이 하는말인가 저는 大端히 疑問해 마지않습니다

二그러나 萬一 憲法條項에 明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無視하고 억지로하면 어떻게 하느냐하는 생각이면 지금 憲法規定 다 들어 온저야됩니다 왜그러나 우리가 大統領任期 四年이라고 했지만 大統領이 같고 五년이되고 四年지난 後에 五年 十年해먹으면 어떻게 하

憲法을보면 사람의 身體의自由에는 法律이아니면 制限못한다 法이 있어야만 拘束하고 監禁하고 말하자면 拘束할수 있는것이 法律이아니면 못한다 왜 이條項이 있음니까? 萬一 強權이 이法律이아니고 다른 行政手段으로서 다른方法 으로서 일마든지 해나간다면 이條文도 들어온

치지않으면 안되요 무슨方法이 나와야할터인데 그러므로 現任있는 二條文을 다 그대로 그 글 字를 그대로 또니까 變換은것이요 可必 曰國民投票制에서만 믿을수없다 하는말이 絕對

로 나오는이야기입니다 저는 이點에對해서 모 지 머리가 悶해서 그런지 解釋을 못하겠음 니다 慎道參議員께서는 이改憲案은 이改憲案의 發議는 하는것은 國民에게도 좋지만 國民投票 하면 國民의 改憲案을 提出했을때에는 國會가 最終審査를 할必要가 있기때문에 우리國會가

二것을 읊으냐 읊으냐하는 判斷을 막내리면 二되는일이 없겠지만 國民投票오양 國會에서 하는것을 國民이 最終的으로 決定한다고 하는

것은 危險千萬하니 안된다고 하는말은 저로
도오지 憲法學者로 自處하시는 慎重議員에게
도오지 알수가 없어서 좀 무리보정을한다 우리
憲法에 主權은 在民이라 그權限은 權力이라
는것은 全部가 國民으로부터 부터나온다고 해
놓고 우리憲法에 主權在民 主權이 最高의 至
上的인 地位에있는것으로 規定을 그때그때놓고
國民이 最後審査할수 없다 우리 國會만이 最
後審査 할수있을것이요? 우리 國會라는것은
主權在民의 原則에依해서 國民이 가지고있는
權利를 代身자가지고 나온것입니다 어찌서 國
會가 最後審査權을 가져야 되는것이요? 도오
지 이解題를 못하겠어요

또한가지는 우리民議院 二百三名 國會議員이
議院에 올라올때마다 저는물기에 우리는 十萬
選良이다 하는말을 하시고 다른때에는 우리는
十萬選良이다...저는 그소리를 가만히 드물때
에 이것이 무슨소리냐...아...十萬選良이라는
것은 내郡에 十萬名이 올라온 民主主義的인
올바른 民意로써야 옳으니까 나는 十萬의代表
이다 이것을 자랑하시는 이야기일것입니다 그
것이아니면 무슨이야기요? 그이야기밖에 아무것
도 없지않습니까 나를 찾아온 郡民의 意思는
郡民의 民意라는것은 올바른것이기에문에 나는
그것을 名譽스러운 十萬의 選良으로 自信해왔
는것입니다 國民投票에 부질때에는 二民意라고
하는것을 믿을수가 없다고요...차라리 그렇게
할터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부 民主主義가 成
立할수 없다고하면 차라리 그點에對해서나는
敍意를 表한것입니다 이것이 代議政治의 信義

誠信의原則에 符合되는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
을하지않아요 우리憲法上에 우리 도우하는일이
라는것이 一貫되어나가지 二대 二대 臨時
判斷자가지고서는 國民은 納得할수 없는것이요
요 良心 가진 사람은 判斷못할것입니다 우리民
意를 정 믿을수없다면 大統領 直接選舉를...
의 믿을수없는 直接選舉를 : 우리 政治行動의
또는 實權을 가진 大統領을 國民의 直接選舉에
依해서 選舉하고 副統領...將來에 이改憲案에
依해서 將來에 大統領이 될수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副統領의 地位를 가진사람을 直接選
舉할수있고 國民의 主權을 代身하니 國會는
最終的인 審議決定할수 있다고하는것을...國會
議員이라는것을 直接選舉할수있고 二外에도 어
머가지 地方議會 選舉이니 해가지고 二인것을
다 올라오지않다고 하는것을 認定하시는것은
저는 도오지 解題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信義 誠信은 原則의違反의
는 어떤固執을 하기위한 反對를 하기위한 덕
실이라고 하여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國務總理를 없애고 大統領責任制로
본된다오하는 問題입니다
內閣責任制가 좋으나 大統領責任制가 좋으나하
는것은 一長一短이 다 있는것은 글字 때운사
람이먼 다 압니다 또 二兩안에 一週 :十日
에 全權 實權의 三日에 全權가는 이討論에서
內閣責任制는 이런 좋은점이있고 이런 短點이
있고 大統領中心制는 이런 短點이있고 長點이
있다고 하는것을 說服해가지고 東西古今을 論
해서 다 붙였고 여러가지 學者의 學說을 어

기다가 引用해다가 여기에서 充分의 說明명을
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자리에서 다시 根本的
인 줄다 그도다 하는서로 물음끼였는지와 같
은 : 이런면 저렇고 저러면 이렇다고 하는이
것을 繼續할것같은 도오지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 慎重議員에서「부담이스, 라스키」라고하
는 사람이 大統領中心制라고 하는것이 이런
缺點이있다고 하는것을 드미가지고 자꾸 이야
기하있고「면인」의 大學教授로있는「면인」이라
고하는사람이 다부르이로版 冊子를냈는데 제가
읽어보니 거기에는 內閣責任制는 短點이 얼마
든지 있습니다 그런 學者中에 이것이 옳다
그도다 하는것은 얼마든지 옳이일수가 있는것
입니다 한가지 구가지 學說을가지고 內閣責任
制가 絕對로 좋다고하는것은 首肯이 안되는것
입니다 안되는이야기예요 또 慎重議員에서

大統領責任制는 構想으로부터 할수있는일이다
좋다 그러나 또 거기에依해서 成果를 올리는
나라도 있다 가령 美國같은나라는...그런 다
론나라에서 좋다고 잘된다오해서 우리나라에도
모한 마찬가지로 長點 短點이 그대로 난다고할
것은 아니라고하는 말은 참 至當한말을 하
셨는데 저는 內閣責任制에도 이것을 그대로
主張하는것은 이것도 틀림없다고 봅니다 內閣
責任制가 英國에서 發達되어가지고 大端히 잘
되어지만 우리 韓國에서도 반드시 잘 된다고
做道心議員은 어떻게 主張할것입니까...
독같은 이야기입니다 大統領中心制도 나라에따
라시 實情에따라서 맞고 안맞는것이 있는것과
마찬가지고 內閣責任制도 實情에따라서 맞고

實情은 이러하
있을 것입니다
二論法으로서
內閣責任
任制라는 것이
한 도시
우리나라에
좋다하는
運
論이라는 것은
나온 수가
없는 일이라고
삼각합
니다

이內閣責任制의
根源을
다져보면
西紀一千六百
八十年頃부터
一千八百十年頃……十八世紀
後半에서
十九世紀의
上部까지
前期까지
이르는
동안에
內閣責任制라는 것은
英國에서
自然發生
으로다가
發生된
制度입니다
여기에도
이런
論을
부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制度가
좋다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英國의
實情에
맞기때문
에
自然히
나온 일입니다
當時에는
「몬테스키외」
의
三權分立의
未習이
猛烈하게
지고
世界가
二風潮에
依해서
三權이
반드시
分立되어야
國
民이
잘알수
있다고
하는
主張을
했습에도
不拘
하고
英國은
二風潮에
따르지
않고
그學說을
따
르지
않고
自己나라에
맞는
制度를
取한
것이
內
閣責任制입니다
어떻게
取했느냐
그當時에
十
七世紀末부터
十八世紀에
걸치는
동안에
英國
의
政治勢力이라는
것은
當時에
貴族
封建制度의
遺物인
貴族과
新興事業家를
中心으로
하는
政
治團
이
中心이
되었는
것입니다
千八百年前當時의
英國國會의
下院의
國會議員
이
六百八十名인가
되었을
니다
그中에서
이
貴族과
同時에
新興的인
政治勢力에
占領한
것이
四百八十席이
있었지요
이때서
英國의
當時
政治
勢力이라는
것은
貴族과
新興政治勢力과
같이
를
이
占領을
했는
데
이것은
性質上
自然
갈려지
게
됩니다
이것이
英國의
二大政黨으로서
의
發
達이고
二것이
오날날
繼續해
내려오는
政黨이
예

三權分立制度의
理論은
좋지만
우리나라에
서
政權이
왔다갔다
하기에
가장
便利한
二大
政黨이
생겼으니
이것으로서
하자고
自然的으로
生じた
것입니다
二나라의
實情에
맞도록
生じた
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過去에
內閣責任制를
할
수있는
政治基盤이
있었고
무슨
大統領責任制
를
안해야
할
무슨
政治的인
理由가
된다
말입
니까
아까
愼選派議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內閣
責任制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가지
좋은
緣由가
있다고
하면
日帝四十年間의
遺物에
없는
것입
니다
日帝四十年에
日本이
明治維新때에
政治
制度를
이런
制度를
取하느냐
할때에
世界各國
을
따지고
보니
英國에는
王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王이라는
것은
견드러
지못하는
存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말에
內閣總理大臣……
國務總理라는
것을
두어서
이國務總理가
國會의
民意를
反映해
가지고서
民意
即
國會의
勢力을
反映해
가지고
그때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英國
의
制度와
또
日本의
天皇制度하고
똑같은
아
二거
近似하
나
한번
해보
자는
것이
日本의
內閣責任制度가
아닙니까
우리는
四十年 동안의
中央政治의
 움직임을
본것이
日本사람의
그것
을
보았으니
工夫한
것이
그것밖에
드문
공헌
이가
그것밖에
없다는
것과
아주
것으로
아닙니다
이
결과
지고
우리나라에
는
반드시
內閣責任制에
야
만
된다
는
것은
나는
成立못
한다고
봅니다
어
러분
內閣責任制가
二나라의
實情에
따라서
效果를
거두고
못
것은
다
는
例로서
佛蘭西의
例가
恒常
나옵니다
佛蘭西에
對해서
는
제가
말
씀드
릴
必要도
없을
나라
라는
佛蘭西가
잘
해
나
가

저
않으
느냐
는
말씀을
하시
는
등도
있
예
로
因해서
佛蘭西가
잘
해
나
가는
것은
內閣責任制
의
官吏制度가
올
름
해서
官吏가
動搖되지
않기
때문
에
잘
되어
나
간
다
이
렇게
이야기
하는
사
도
있
을
니다
佛蘭西를
가
보
시고
오
신
분은
佛蘭西
의
政治나
行政이
잘
되어
간
다고
이야기
못
할
것
입니다
이
것은
萬一
억
조
만
한다면
憶說이
지
決斷로
그
렇게
안
할
것
입니다
富의
都市集中으로
因해서
지고
農村은
疲廢하기
작
이
없고
農
民은
馬具間에서
살
이
자는
것이
佛蘭西農村의
實情입니다
佛蘭西首都인
「파리」에
모
라
다니
는
사람은
豪華스러운
自動車가
汜濫하기
작
이
없
지만
農村에
가
면
그
車
한
대
求
할
수
없는
것이
佛蘭西의
農村의
實情이
예요
二文明國家
에서
住宅行政이니
해
가지고
집을
올
름
하게
살
게
하자
면
佛蘭西農村에
가
면
求
求도
못
할
니다
民心은
極도로
個人主義로
모
라
가고
政變은
자
주
生
기는
이
러
한
內閣責任制를
取
한다면
나
는
목
아
지가
다
라
나
도
反對할
수
밖에
없
을
니다
제가
이
內閣責任制
主張에
對해서
한
가지
奇
異한
現象을
느
겼
을
니다
이
것은
어
러
분
께서
좀
잠
깐
남
대
실
문
제
일
것이
예요
저
는
內閣責任
制度를
民國黨을
中心으로
한
野黨側에서
反對
를
하
실
줄
아
있
을
니다
이
內閣責任制가
좋
으니
하
자는
이야기
가
나
오
니
저
는
잠
깐
보
았
을
니다
왜
냐
內閣責任制라는
것은
國民의
意思를
即時
即
時
政治에
反映시키는
制度가
即
內閣責任制
입니다
一定한
任期를
두는
것이
아
니
고
國務總理
하면
國務總理에게
一定한
任期를
두는
것이

아니고 境遇에 따라서는 意見이 殊리고 重大한일이 생기면 國會를 解散하고 國民의意思를 무시해서 國會勢力을 말하자면 國民의 意思에 따라서 政治라는것은 變動的한것이 內閣責任制의 根本理念일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于先 먼저 政黨이 普通한 政黨이 있어야 될것이요 百年歷史를 가진 나라와같이 普通한 政黨은 없을지라도 政黨政治를 해나가는 적어도 民衆가 있어야 할것이고 政黨이 確立되어 있어야 될것입니다 民國黨을 비롯해서 野黨側에서 自由黨은 百三十六名의 多數의 數를 가지고 있지만 二黨들은 洋黨에도 속함이요 五十萬圓 혼자 해먹었고 威尙勳事件을 안드러서이사람을 重傷하고 이르게 말하니 그가 百三十六名이 문제가 아니라 二百三名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內閣責任制를 시킬지가 實情이야기입니다 그러면 民國黨을 비롯한 野黨側에서 보기를 그러면 民國黨은 할수있지 않느냐 實情이 없어서 손가락을 발고서라도 이國民을 爲해서 民權을 伸長하고 우리나라의 民主主義를 保護하고 守護하기爲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民國黨만은 內閣責任制를 할수있는 政黨이다 이렇게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普通한 政黨의 最高幹部라는 양반이 돈이 없거나 지고 돈 몇푼 얻어먹고 反對聲明했다는 이러한 政黨가지고도 內閣責任制가 돼요 나는 다만 세상에는 그럴것이 다 옳고 良心을 속이지 않는 良心을 가지고 있는正義가 맞고 條理가 맞고 納得할수있는 正義

아라는것은 野黨의 主張이건 아니던 자기拘碍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自己의主張이 라는것을 하기爲해서 一時的으로 主張한다는이야기는 도무지 저는 承服할수없고 納得할수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國民全體가 그렇것입니다 어찌 尹享南議員이 內閣責任制를 없애가지고 그 痕跡이 남아 없애가지고 大統領中心制로 볼려면 大統領官邸는 兼官運勤 謀利黨들의 集合所가 될 것이니 하는이야기요 없애고 그러면 尹享南議員에 제가 한가지 우리보장을한다 大統領中心制를 해가지고 內閣責任制를 해가지고 國務總理의 官邸가 兼官場이 되어서 좋다는 理論은 무엇입니까 또한 內閣責任制를 무덤 大統領中心制와 말라서 國務總理의 官邸가 兼官場이 되지 않겠다는 保證을 무리로 하실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豫稅도 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經濟條項에 關聯되어서 또 奇異한現像이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經濟條項을 바꾸자 우리憲法이 制定될때에는 資本主義經濟도 있고 勿論 共產主義經濟라는것은 取할수가 없는것이 고해서 資本主義經濟에서 한발자 더나간 過程인 社會主義經濟體制을 取하는것이 우리 나라의 憲法이 어느 어떤 몇사람에게만 獨占을 시켜가지고 몇 사담은 큰 資本家로 만든다는것은 不當하다 구구한지 認定합니다 理論으로 보아서 萬民이 平等하게 할수있는 體制을 取한다는 社會主義經濟體制 理行憲法의 規程이라는것은 大端히 實情 規程입니다 그러나 資本主義 自由經濟體制과 社會主義經濟體制과 어떤것을 取할것이냐 하는것에 對해서는 아가 內閣

責任制나 大統領中心制와 마찬가지로 一長一短이 다 있는것입니다 우리가 憲法을 만들 때에는 社會主義經濟體制을 取하는것이 좋다고해서 取해보았지만 社會主義經濟라는것은 資本主義經濟를 極端히 간 過程에서 나타나는 現象으로 볼수있는가답에 우리 나라의 經濟實態와는 맞지않게되는가답에 이것을 資本主義 自由經濟體制로 볼터자는 이야기로서 改正案이 나온 것입니다 이點에對해서 鏡鏡議員樣으로 平素에 自己의 包負를 強調하고 高唱해가지고 資本主義經濟體制보다는 社會主義經濟體制가 옳다는 그러한 極端을 取하지는분을 저는 敬服합니다 제가에게도 一理가 普通한 一理가 있고 長點이 있는가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우리 나라의 實情에 맞느냐 하면 저는 否認합니다 저는 反對에요 우리 나라의 社會主義經濟體制을 取할段階까지의 資本主義經濟의 進歩發展이라는것이 우리 나라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自由經濟體制로 볼터가지고 좀더 生產意欲을 基礎로한 利己的 利潤을 追求하는 그마음을 좀 基礎으로 해가지고 좀더 經濟를 發展시킨후에 社會主義經濟體制로 끌어오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奇異한 現象으로 나타났것은 이제 蘇宜奎議員이 여기에서 말하시기를 社會主義經濟體制를 自由經濟體制로 끌어들고하는 지금 憲法改正案은 大衆을 犧牲시키고 資本家를 育成할것이라고 하는것이다 몇 사담의 少數의 資本家를만들려고 하는것이다 하는 말을 한마디로 다시

그 때의 가정을 나타내는 어찌 그 말을 들
 어도 資本家를 育成할 때고 한다는 말을 들
 가... 들림이 速記錄에 비추어 보면 錯誤가 없
 을 것임이다. 재가 알기에는 民國黨의 黨綱으로
 自由經濟體制로 訂하여왔다. 하는 것이 民國黨의
 年末의 黨策으로 되어있는지. 오날 이 자리에 改
 憲案을 反對하기 爲해서 一時 黨策을 修正하
 였다는 것임이다. 나는 그걸 理解못합니다.

(「速記錄을 보시오」하는이 있음)

호한가지는 이 自由經濟體制로 우리자는 經濟條
 項에 對한 反對로서 慎道參議員께서 新開에 發表하
 신 것을 보니 이 經濟條項이라는 것은 憲法規
 定을 고치자함에도 二대도 떠나수 있다는 예
 가 있었어고 어고제 質疑에 이르는 불거함을
 습니다만 質疑의 議員이 어기있어 二대도 무
 고도 떠나수있는데 왜 고칠려고 하는나 이
 實問이 있었습시다. 저는 이 어기를 들고서
 斷然했습니다. 甲하고 乙이라는 것은 性質이 全
 然 다른 것인데 百八十度까지는 九十九度
 百度까지는 九十九度 甲이라는 것이 맞지 않아서
 乙도 고치자는 것인데 甲을 二대도 무고서 乙
 로하자... 憲法을 어떻게 하자는 것임이다. 萬一
 甲... 나르면 乙도 고치자고. 나가야 護
 憲도되는 것이요. 우리의 民主主義政治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甲을 二대도 무고도 할
 수있지 않느냐. 하는에기는 무슨 어기인고하니
 마누는 재가 하는 말이 二條文까지 고칠게 무
 었느냐. 그때도 구어구드라도 實際로 그렇게
 하던지 않느냐. 이거 都大領 무슨 어기인
 가. 憲法の 明文으로서 社會主義經濟를 規定해

실고 實際로는 自由主義經濟로 訂되자는 것이에
 요? 이것이 護憲會 主張하고 民權會 主張하
 고 民主主義를 主張하고 舍마른 것을 取해나
 가자는 主張이라고는 보지않습시다. 이것은 隨
 實히 代議政治의 要素인 信義誠實에 違反되는
 體說이요. 一時 冒免을 하려는 말밖에는 되지않
 을 것임이다. 재가 지금 말씀드린 뒤에 한가지만
 을 附言해볼것은 萬오마에 大統領任制限撤
 廢에 關한 規定입니다. 여기서 재가 건 어기를
 안하셨습니다. 다만 慎道參議員께서 말씀하시거
 들 外國사람들이 지금 大統領을 大端히 나르
 게 보고있다. 二 失政에 對한 或은 個人의 人
 格에 對해서 大端히 좋지 못한 말을 쓰고 잘못된
 것이 수복하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그분을 大
 統領이 되도록 하는 것을 열어두어서는 안된다
 는 主張을 하셨습니다. 慎道參議員께서는 今年
 一九五四年正月에 「뉴욕」에서 「아메리칸 인스티
 투트」에서 「오쿠오르」의... 美國輿論協會에
 서 發行한 「아미」지의 「發行人」 「레드」 말하
 는 「即」 一九五四年의 「보카르」 百科辭典이요
 六百三十五「페이지」나되는 辭典이요. 이冊을
 사서가지고 讀해기를 한번 술적 넘겨보십시오
 되라고는가... 世界의 偉大한 人物을 적어놓
 았는데 세계전에 적혀있습니다. 이 은 世界二
 十億中 偉大한 人物 수우사람이 記載해 있는
 寫眞까지 있는게 세계전에 우리 大統領이 적
 려있어오. 그러면 辱은 辱대로하고 勿論 辱이
 야 韓熙錫이 個人도 辱이야 스무룩한데 大統
 領을 하실때면 辱도 勿論 辱정지요. 몇 사람의
 辱이나 非難을 한다고 재가지고 어기 누구나

間에 政府樹立以來에 이 무시무시한 波亂을 겪
 어가지고 오날날 民生이 다 滿足하고 萬民이
 二千萬이 다 좋아할 政治行政할수 있었는사람
 이 우리 나라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재가
 보기에 이 이러한 一部分의 한가지 구가제의 記
 事를가지고 이것이 잘못이다. 失政을했다. 七億
 弗 일어난다고했지만 一萬弗도 못들어올거다
 하는 斷定이라는 것은 너무도 慎道參議員의 人
 格에 關係됩니다. 萬오다 慎道參議員이 七億弗
 援助를어온다는 것이 一億弗 밖에 못들어온다고
 斷定한 것이요. 萬一 七億弗援助가 들어온다면
 慎道參議員은 國民앞에 愧를 달머가지고 國民
 앞에 謝禮한 用意가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體說에 不適合한 것이요.
 지금 現在 이 韓國의 二千萬이 萬오로 事物
 每事를 돌아가는 難題를 萬오로 아오려무고할
 어보십시오. 二千萬國民中에서 李大統領을 支持
 하는사람이 적을것인가 믿을것인가 재가 지금
 말씀을 率直한 어기가 野黨으로계신 民國黨이
 은지 或은 無所屬同會 어미분에게... 平素에 尊
 敬이나 敬意를 머나 가지고 매우 冷淡한 苛
 酷한 失禮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미
 分中에서 辱을해 韓熙錫이는 官條出身이요. 月
 給금이 幾백은놈이니까 官條根性이 있어가지고
 政府에 阿諛하고 與黨의 改憲案을 積極推進해
 가지고 長官자리나해 辱을하고 그런다
 (「아무말」하는이 있음)
 어미분이 꼭 그렇게 생각하실줄 잘 알았습니다
 다. 그러나 어미분 韓熙錫이도 못생겼지만 수
 판은 날줄아는것입니다. 아저도 二十年 三十年

대통령을 가르고 있고 활동할 생각도 가지
고 있습니다李大統領이 잘어제서가지고 大統
領을 하는 期間보다는 다른 大統領이 大統領
期間이 적어 一生을 두루시키며 집니다 內務次
官이라는 것 시시한 으갓지 않는 長官보다 나은
內務次官이라는 것 해먹었습니다 마침 長官을 할
말았기 때문에 次官이나 長官이나 똑같은 心情
으로다가 意思를 통해서 적어도 內務行政을 다
을지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二長官 하나에 慈
心이 나서 一生을 二걸 하나 못해볼거라고 그
거에 慈心이 나서 自己의 良心을 팔고 民族의 運
命을 팔려는 생각이 없습니까
어려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
말에는 이때의 이오날날 現段階에서 우리나
타의 이 難局을收拾하는일이 이질밖이었다고
보기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國際情勢
의 不安定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內閣
責任制나 조공남오나 大統領責任制가 남오나 國
民投票制하면 어떠니 오직 大統領가 아닙니다
꼭꼭 잘못하면 賣天價를 가면서 內閣責任制와
大統領中心制의 長短을 따질됩니다 우리는 여
기서 冷靜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段
階에서 잘못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理
論을 따져가지고 조공남오나 못하느니라 쓰는 것
보다는 10배 20배는 犧牲이 우리에게 올
아올것을 覺悟해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
거에는 解放後 南北協商이다 뭐다 信託統治다
單邊이다 하는 二개의 難局보다도 比할바가 아
니요 우리가 六二五專變이 터져가지고 釜山
특정 때에다 그때의 難局보다 比할바가 아닌
重大한 時期라고 볼니다

國內情勢가 그렇고 國際적으로 그렇고 한 이
段階에 생각 잘못하면 우리 後代에게서 다
죽고 滅亡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難局이라는 아무때도 할수있는 長
官 하나 때문에 이것은 참나 못하겠습니까 여
러분기 불모시는것은 여러분의 自由입니다만
오직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것은 이 投票案이
여기 걸려있는것을보고 不過 三十分 한時間지
나면 우리의 運命을 決定하는 瞬間이라고 하
는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二의 贊同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淳周)金海海議員 구워서 말씀하세
요
○金海海議員 改憲案이 上程以來 一週日이 넘
도록 여러분의 高見를 듣고 제가 最終的... 마
지막을 달아서 이자리까지 오르고보니 제 좋은
所見과 力量으로써 더 지출해서 말씀드릴계획
도 없었습니다 二의구 우리가 物干을 보
는때에는 여의가지 보는 角度가 다르므로 因
해서 제가 憲法以後에 二年間 憲政生活를 했고
그後에 또 여러분과같이 이나라의 運命에 대해
서 巨額 關心을 가진 한사람으로써 여러분까지
構想한點이 있고 보는面에 있어서 다른 角度
로서 제가 보는 見解에 依해가지고 이 貴重한
時間을 多少間 消費하는것이 決로 虛費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며칠을 우리가 實
踐應答과 大體討論을 통해서 이 改憲問題를 論
議할때 있어서 제가 몇가지 木論에 들어가거
는데 제 心中에 생각한바를 잠깐 말씀드릴바
가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改憲案을 審議하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自身이 무슨 利害關係

係를 豫想하거나 또는 어떠한政黨의 派爭을 念
頭에 두거나 무어 그러한 自己自身으로서는 改憲案
을 떠난 다른무슨 觀念이 머릿속에 일어나서 그
것이 恒常 中心이 되어가지고 論爭을 하고 質疑
를 하고 質疑가 攻擊이 되고 答辯이 攻擊이 되고
하는 그런結果를 가져오게 하였는가? 이때서
이것은 도시 우리가 이 改憲問題를 審議하는
議員의 한사람으로서 取해서는 안될 態度라고
생각합니다 이 改憲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國家百年大計를 세우는 國家의 礎石인 法律인
만큼 우리는 어떻게하나 그 安全性을 지켜나
가야 될것이고 어떻게하나 그 尊嚴性을 지켜
나가야 될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므로써 이 議政
壇上에 올라올수있는 우리의 人格이 尊嚴性
과 우리의 慎重性과 우리의 人格이 保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
씀드리고저 하는것은 超黨派的인 으로
서 이 改憲問題를 討論함에 있어서 이것은 通
치키므로써서 우리 民族將來에 幸福이 올것인
가? 이것을 拒絕하고 改憲을 아니하므로써
우리의 將來에 陰影이 나는 曙光이 올것인가
이러한 意味에 局限해서 제가 意見을 陳述할
바입니다 二의기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서 이
改憲案을 贊成하리니 여러분도 나와같이 贊成해
주십시오하는... 또는 내가 反對하니 여러분도
나와같이 反對해주시지요 하는 그런 態度를
나서 어떻게하나 제 先入感이라든지 제 한
個人的 意見을 떠나서 이 改憲問題를 審議함에
있어서 原理 原則과 그 原理原則에서 우리가
는 實質的인面을 過去 史實에 들어가지고 實
을 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現實과 對照해

去 史實에 있어가지고 二民族의 幸福을 爲하
 適合하다는 結論을 내면다만 우리는 여기서
 與野가 없이 國家將來를 생각해서 滿場一致로서
 雙手로서 贊成해야 할 것이요 萬若 原理에 이긋
 나고 實地에 背馳되고 우리나라現實에 符合의
 지 아니한다는 結論을 얻는다면 우리는 與野를
 떠나고 우리의 子孫萬代의 將來를 爲해가지고
 正確한 判斷 밑에서 否字를 던져야 할 그런 責
 任있는 立場에 處해있다고 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二가 原理 原則을 追窮하는 面은 어떤
 憲法學者가 내면 原理를 여기에서 가져온다는
 二가 二가 생각하는 그런 原則을 가져오고 여기분
 앞에 強要를 한다든지 二번 意味가 아니고 어떤
 가지나 歷史의 科學에 立脚해서 歷史의 事實을
 土產로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史實 이것이
 原則上에 符合되는가! 實證은... 다른 나라에서
 歷史의 事實에 依해가지고 特別 美國과 우리가
 對關係를 가지고 있는 以上 오늘날의 美洲 或은
 유미권의 여러 民主主義國家들이 거미은 二政
 治形態는... 어떤 한 일을 오늘날의 새로운 教育의
 材料로 해서 體驗에 體驗을 거듭한 實證哲學을
 土產로 한 結論이라는 二번 立場에서 우리는 자
 나간 事實을 갖다가 無視하고 여기에 空理 空
 論으로서 虛送歲月을 갈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나 實證은 辨수 있는대로... 二가 推想한
 推想論에 고치지 말고 實際의 인面에서 二實證을
 드미르고 實證은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면에

서 新聞紙上으로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佛蘭西의
 混亂한 政局을 收拾하고 있는 「망에스 푸란스」
 만하더라도 現在 實地에 立脚해가지고 實地的
 인面에 中心을 두므로서 해서 諸般難問題를 收
 拾하고 있는 二實例을 우리는 參酌해서 原理와
 實證과 現實 이 세가지面을 土產로 해가지고
 이 改憲案을 考察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한 전망까지 커다란 答覆을 드렸을지나 다만
 事實은 二가 중 答覆드림까지 하고 있는 藥未마디
 은 이미 慎道及議員이 大概 다미비했음니다
 二거나 이것은 우리가 이問題를 考察하는데
 重大한 觀點이 되기때문에 여기에 角度를 말리하
 여 多少間 解明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분에서 잘아시다싶이 民主主義는 十八世紀
 初期로부터 所謂 英國의 「록스」라는 사람의
 民權思想을 土產로 해서 「몬테스키유」의 權力分
 離論을 中心으로 해서 發展된 것만은 이차에서
 다 말할드림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環境이 貴族들의 或은 君主의 專制 밑에서 시
 말미은 市民들이 어떻게 갈하더라도 二絕對 權
 을 때르미보아서 우리百姓들이 중 安心하고
 갈수 있도록 權力에 시달리지 않고 權力 밑에서
 奴隸生活를 하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을 構想하여보
 자 이것이 그때의 十八世紀初의 全市民 階級
 의 생각의焦點이 었다는 것도 事實입니다 여기
 서 國家形成이라고 하는 것은 政府라는 것은 필
 수있으면 우리百姓들 私生活에 干涉을 받어다
 오 우리들은 우리가 自由스럽게 돈도 벌수가
 있고 또 自由스럽게 하는에 團體生活에 妨害되
 지 않을 限은 우리의 個人生活을 갖다가 絕對 便

犯하지 않도록 하여다오 이것이 그때의 政府를
 形成하는 原則이었음니다 이原則은 所謂 美國의
 憲法의 父라고稱하는 學者「제피슨」을 爲始
 해서 여러 學者들이 美國建國史에 있어서 三權
 分立을 採用하는 原理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구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立法部는 立法만해라 行政府는 行政만해라 司
 法府는 裁判만해라 우리百姓들의 生活에는 干
 수 있는대로 干涉을 하지말아달라 우리가 共同
 生府에 이가지고 갈때에는 政府는 우리에게
 「맛지」하지 말아다오 이것이 三權分立의 出
 發이었다고 생각이됩니다 이것이 美國憲法의 土
 台가 된 것만도 들림이 없는 事實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이제 憲法學者들이 말하기를 十
 八世紀의 民主主義는 所謂 國民의 生活을 갖다
 가 保護하여주는 夜警的인國家를 形成하였다
 극히 消極的이었고 消極的이요 單只 國民生活
 을 갖다가 그저 辨수 있는대로 個人自由를 妨害
 하지 않도록해서 이것을 保護하여준다는 二目的
 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政治的 民主主義라
 는지 近代的 民主主義라든지 여기까지 名稱을
 學者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時代가 變遷
 됨에따라서 二百年의 歷月을 지은 오늘날의 民
 主主義라는 것은 옛날의 百六十年前의 美國의
 創設한 그때와는 差異가 나는 實證을 招來하
 것은 事實입니다
 오늘날에서는 國民生活은 더욱 複雜하여졌고
 우리의 政府는 벌써 三權分立해가지고 消極的으
 로 國民의 自由를 保護한다는 이 미한 非能動的
 인 態勢에만 滿足할 것이 아니라 積極性을 띠고

能動的으로 國民의 福利를爲해서 活躍하게 發하게 일할야 할 時代가 왔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現代的인 民主主義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서 이 現代的인 民主主義라는 것은 經濟的 民主主義 또는 社會的 民主主義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은 이것을하기爲서는 三權分立制度의 二개의 制度로서는 到底히 할 수가 없다. 이것은 國民의 代議機關議會가 中心이 되어가지고 行政府와 議會가 一致가 되어서 國民의 福利를爲해서이고 推進하여나아가게끔 삼으면 아니되겠다. 그런結論을 내면가지고 요세 學者들이 三權分立論을 부르는 學者의 議會制度에對한 再檢討하는게 이 方面에있어가지고 일서 三權分立制度는 저나간 옛날의 古典的 民主主義에 不通하다. 이것은 實際의生活에 맞지않고 非能動的이고 非現實的이다. 이러한斷判을 내리고있고 歐美 各國의 現實的的問題에 있어가지고 議會制度도 요르고있다는것은 事實일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게 예를볼것같은데 이것은 아카도 어떠한議會에서 말하는게 있을지다라는 오늘날의 大統制制를 取하고있는 實質的인 世界的情勢를보다가 한인 卷이볼때에 美國을 爲始해서 美國의 勢力權內에 中 南 美 諸國이나 比律賓 二外에는 大統制制를 取한國 家가 있습니다. 現代的으로 民主主義로 發展해 나간 나라는 全部가 다 議會中心制를 取해가지고 全責任制를 實施하고있는것이 오늘날의 現實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實際問題에對해가지고 어떠한게 理論的인것보다도 事實上에있

어서 議會制度가 大統制보다도 民主主義의 方向으로 나가있고 能動性을 가지고있으며 實에 適合하다는것을 立證하고있다는것을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佛蘭西의 例를들어서 佛蘭西는 內閣責任制가 되기때문에 자주 政變이 일어나고 政局에 混亂을 招來했다. 이런말을 들으면 例를들어서 말하는게 저는 생각하기가 二와는 全然히 角度를 달리하고있을 것이다. 佛蘭西같은 나라가 內閣責任制가 아니고 萬一에 오늘날같은 內閣責任制가 萬若 大統制 中心制를 取한다와하면 佛蘭西는 革命에 革命을 거듭하고 國民의 커다란 犧牲을 招來하지 않았나하는 근심을 오히려 가지고있는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現實面에있어서 볼때는 우리의 形態는 十八世期初에 美國의 그 以前의 封建的인 國家의 絶體權에서 國民이 시달리고있는 그 現實이 오늘날의 現實이라 고저는 判斷내리고있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萬若에 大統制라는 名稱에서 行政府의 權力만을 強化를 期甚한다고하면 다음에 오는 우리나라의 現實이 어떠한것으로 變하여질것인가 여기에對해서는 우리가 深甚한 注意를하자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問題에對해서 제가 平素에 생각하는 다른 角度에서 하나 더 어떠한議會 同志에게 제의 所見을 말씀드릴까합니다. 그것은 다른것 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制度라도 그 民衆의 二 國民의 實情에 맞지않을것같은 所用이 없 는 制度가 되는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飲食이라 할지라도 飲食을 먹을수없는 것이기에게

갖다주면 그것이 消化가 안되고 그것을 먹을수 가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때서 우리는 우리 民族의 歷史的인 傳統과 비추어가지고 우리의 이 우리 子孫의 安全을爲해서 어떠한制度를 採用하는것이 가장 適合하고 우리子孫들의 幸福을 가져올수가 있게될것인가 이러한意味에서 恒常 저는 念慮를하고 多少間 생각을 거듭해 오고있습니다. 아시다싶이 우리가 建國初에 이 憲法을 만들때에 그 當時만 하여도 우리들은 李朝 百年의 그 四色黨爭의 結果로서 우리나라의 좋은人材는 다 犧牲을받고 우리民族은 他民族에게 四十餘年間 屈辱을받았고 그러니 우리가 建國하는데 있어서는 過去에 일어난 李朝 五百年의 廢政의 前轍을 밟어서는 아니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三千萬이 다같이 생각하고있는 念頭에있는 한 事實입니다. 그런데 李朝 五百年의 四色黨爭의 根源을 차져볼것같은데 勿論 이것은 具體的인 말을 안드려졌을지다만 二 老少南北의 四色黨爭의 根源은 純全히 어떠한私慾에서 일어나서 私黨을 이룬것입니다. 이러한 經濟面이나 어떠한 政策을가지고 일어난것이 아니고 純全히 自己만이 잘났다 自己만이 善한사람이다. 다른사람은 다 상놈이다. 이러한 些少私慾에서 일어나서 二 五百年間 우리나라를 指導하고 사탕할만한 훌륭한 사람은 全部가 다 四色黨爭의 土禍로서 犧牲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二 黨爭의 形態를 우리가 暫間만 눈치를쳐서 調査를하여볼것같은 目的은 全部가 政權爭奪에 있었기하는 方法은 무엇으로 했느냐할것같은데 全部 中 獨

國際 歐戰 相對方을 찾다가 打倒할 것이다
 大義名分을 의미해 붙였으나 할 것 같으면 하나
 도 對稱적이 全部가 大義名分을 逆謀에 모았
 을이다 그것은 反逆이다 이러한점에서 大義
 名分을 따진다 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無慘
 하게 죽어갔어 所謂九族을 滅할만한 그러한
 悲慘한 方法으로서 相對方을 찾다가 虐殺한 것이
 니다 그 結果가 우리가 四十年間 他民族에게
 서를 말한 結果를 招來하고 나다가 다 亡國하였
 다는 結果가 맞습니다 그때서 解放後 軍政七
 年間에 우리의 形勢를 그로히 두 손은 가슴에
 얹어서 우리가 反省할 때에는 우리가 四色黨
 爭 二自體의 對稱을 도다시 밝고 있게 했으나
 이면 생각이 저는 자꾸됩니다

初代國會에서 여러분이 屢次 말씀한바와 같
 이 國會「부파지」事件이 일어났고 二代에 있어
 가제그 國際共產黨事件이 일어났고 三代民議院
 이 생겨서 日前에 第三勢力 所謂「부파지」
 會談이라는 것이 귀박하면 논쟁에 일론거리다가
 앞으로 어떠한 現象이 나타날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그러한 것이 動盪의고 이것이 二國의 이 어
 더에 있느냐...저는 政權爭奪과 政權維持에 있다
 그 저는 斷定을 하고 四色黨爭의 그 것과 하
 나도 다름없는 現實이라고 저는 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具體的인 예기를 붙여야 할 理由는
 初代에 있어서 所謂 國會「부파지」事件의 中心
 勢力이 되었던 金若水는 그 때에 國會에서 同
 成會를 組織해서 國會勢力이 그 때에 國會의
 權力을 쥐고 있는 某黨勢力을 능가할 수 있는 勢
 力을 形成할 段階에 있었을 것이다 그 때에 某黨의

心理狀態는 모든 權力을 한 사람에게 맡겨 놓
 고 二사람을 일으키고서 이나라 政治를 料
 理해보겠다는 것이 있었을 때 同成會라는 것을
 金若水가 中心이 되어서 만들어 놓고 그 勢力이
 國會의 過半數를 넘을 수 있을 만한 危險한 段階
 에 到해하였다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때서 國會
 「부파지」事件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 다음에 國際共產黨事件이 일어났을 때에 이 것
 은 또 그때 萬一에 政治波動이라는 二件 것이
 있고 救護改憲案이 成立이 안되었더라면 二代
 大統領이 누구에게 갈지...二代大統領 後補者로서
 가장 有力한은 張勉氏를 中心한 것이 國際共產黨
 事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今番 第
 三代 民議院에 있어서 第三勢力이라는 名稱이 못
 마에 나오느니 申趙君이 對會談이라는 問題가
 솟아나왔는데 萬若 오날의 改憲이 成就가 안되
 고 이憲法이 없게 되면 次期 大統領에 있어서
 그 申氏가 有力한 後補者의 한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實際 事實입니다 그 반면이
 이러한 解放後 憲政七年間에 일어나는 모든 問
 題가 그 目的이 政權의 爭奪과 政權의 維持
 에 있다는 事實을 否定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手段은 무엇이냐 李朝 五百年 동안 이나라와의
 民族을 亡國은 中傷 謀略 陰謀가 그 手段이
 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사람도 여기에 대하여 否
 定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名分은 무엇이냐 李朝 五百年 동안 四色黨爭에 遊
 戲으로 붙은 것과 같이 모두 말기요 붙어 있을
 니다 모두 遊戲이예요 우리 憲政七년간의 事

態가 하나하나가 遊戲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行動은 무엇이로 하느냐 六法으로 다스리는 것
 이 아니고 八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李朝 五百年間 우
 리 民族 우리 先祖들은 四色黨爭이라는 名稱
 밑에서 同族을 遊戲으로 붙고 이나라를 亡치
 고 이 民族을 他民族에게 四十年間 屈辱한으로
 만났을 때 解放後 十年間 우리 民族들이 우
 리 國家를 세우는 이마당에 이 事態를 자꾸만
 붙고 우리 同族끼리 다 죽이고나면 우리의 나
 라는 與하고 우리 民族이 繁榮한다는 理致가
 어디에서 나오겠다는 말입니까 그때서 우리의
 이 이러한 習性을 가지고 있는 限에는 우리의 民
 族은 어떻게 해서 救出하려는가 이 問題를 考
 아니 하시는 분은 한분도 안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 結果가 오날의 現實을 招來하였다는 것도 불
 땀없는 한 事實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두가지 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民主主義制度가 發展된以來... 아까 잠시 서부
 론 說明을 했을 나라도 民主政治의 歷史的 過
 程의 하나하나가 議會中心制로 해서 풀어나가고
 있다 이原則을 하나 제가 定했고 하나는 우
 리 民族의 이 대미은 傳統 이것을 어떻게 따
 어내야만 하는 우리는 苦生할지라도 우리 子孫들
 은 이江山에서 발을 뚫 버치고 할 수가 있는 세
 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막는 方法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마 어
 머년도 밤마다 걱정하고 생각하시는 問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서 特別 初代 制憲議會 때
 에는 大統領制를 만들어 놓고 李朝 동안 政治를

해보니 이것은 도도지 안되었다. 그래서 內閣
責任制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들의 制憲議會未
期에 內閣責任制改憲案을 내놓고 成果를 못
견우었습니까만 또 特別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
슴 아르게 이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 民族의 惡傳統 이것만은 打破할 무슨 方
法이라도 研究해서 내야 되겠다는 것을 더한층
切實하게 느끼게 된 것은 二代에 政治波動期에
에 대해서는 實情에 白骨團이 發動을 하고 國
會에서는 國立警察이 國會議員들이 눈이 어둡
다고 해서 案內를 하고 있을 그때에 저는 憲法를
遵守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國際俱樂部
에서 하였고 그래서 刑務所에서 五十餘日間 監房
에서 이리 부둥고 저리 부둥고 할 때에 이때서
는 안되었다. 이때서는 우리 民族이 아무 때 도
그한번 亡하겠다는 생각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때서 무엇이 그러면 缺點이나 이것은 누가
지 問題를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 國民들이 가지고 있는 封建的인
殘滓 大統領... 이러면 前의 王이 아니라 그
후의 憲法行爲를 한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
다. 그런 國民들의 封建的인 殘滓 중다 하려면
중다 고할 수 있지만 가장 民主主義發展에 害로운
殘滓가 三千萬國民 가슴속에 여러속에 그대로
남아 뿌리있습니까. 그것이 하나 있고 權力을 가
진 사람은 그 國民의 心理狀態를 利用하게 되
고 오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괜찮다는 心
境을 가지고 있고 이 中間을 한 惡質政商
輩들은 國民의 그 弱함을 捕捉하게 되고 政
策의 잘못을 批判해도 大槪 假意思에 들리니 道

賊이다. 反國家者다. 反民族者다. 해가지고 떨어
져 버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우리 國家 亡치
는 일이 자주 續出한다. 아마 이것은 어떠한
이나 제나 들었던 結論을 그리 내릴 것이라
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法治國家...
이 法治國家라는 것은 다른 民族에 있어서는 兩
세, 二百年前에 封建社會로부터 民主主義社會로
진니을 그 때에 實施된 問題인데 우리는 二
年 동안 못어서 오날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 法
을 지킬 수 있는 制度를 우리는 만들고 法을 지키고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切
實히 느끼고 있는 한가지고 法을 지키자면
이제 만큼 드림바와 마찬가지로 세가지...
權力을 가진 사람은 憲法行爲를 해도 좋다는
그마음을 버리는 것이 하나, 權力을 가진 사람이
憲法行爲를 하는 수 없다는 國民의 心情을 내
버리는 것이 하나 中間에 들어서 올랐거나 저
고 나라는 亡치는 이 中傷, 謀略, 陰謀, 하는
이것을 내버리는 이 세가지만 打破할 수 있는 方
法만 講究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特別
세가지 問題를 打破하는 方法으로서 여러가지를
제안하는 생각하고 생각한 남에게에 今番 改
憲案을 여러번이 提案하위에 제가 屬하는 無
所屬同志會에서 發表한 第一項 國家元首의 行
政權을 分離하지 않고서는 우리 民族은 살 길이
없다.

저는 저의 心情과 제가 가지고 있는 思想과
제가 가지고 있는 知識을 누가 否定해주고 是
正해줄 材料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信念을 버릴 수
없는 確固한 信念입니다. 우리의 封建的인 國民
의... 여러속에 民主主義 民主主義 民主主義를
떠들고 있지만서도 封建的인 殘滓가 꼭 차 있는 이
머리... 權力만 가지면... 權力을 가진 사람은 무
엇을 해도 괜찮다는 이 머리... 中間에 들어서
서 重傷 謀略해서 獵官하고 自己 살길만 생
각하는 그 나쁜 部類를 찾다가 肅清하는 것은
國家元首의 行政權을 찾다가 分離아니하고는 이
것은 救出할 道理가 없다는 그런 斷定을 저는
내리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國家元首의 行政權
을 찾다가 分離함으로써 해서 우리는 무엇을 여
기서 얻어낼 수 있느냐... 다음 몇가지들 迴避
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한가지는 우리가 國策을 論
議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行政政府의 失敗을 追
窮하고 行政政府의 政策을 鞭撻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곧 國家의 尊嚴性을 찾다가 冒辱하다든
지 國家를 反對하다든지 이러한 陰謀로 나를
구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議政壇에서 國會
議員이 民意를 代辯해서 政府政策의 잘못을 政
擊하고 追窮하고 鞭撻하는 데도 말 한마디 자
릿 잘못하면 反國家者이다. 逆賊이다... 이런 말
은 國家元首의 行政權을 分離함으로써 이것
은 完全히 解消될 수가 있다. 이것을 첫째 解消
시켜야 우리 國民의 權利 있고 議員 自體의 言
論의 自由를 保障할 수 있지 않은가 첫째 이것하
가지를 迴避할 수가 있고 둘째는 國家元首가 行
政權을 가지지 아니하면 越權行爲를 할 수가 없
습니다. 없으니 國家元首의 越權의 行動을 찾
다가 法的 制度上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들 수가 있다. 이
것 하나이고 셋째는 國民이 國家元首에 對한 尊
仰心은 限이 자기 가지고 대라도 괜찮

行爲을 할수가 없고 政黨是非를 한다 逆賊
 으로 불을 수가 없으니 國民들은 일하는지 國
 家元首를 尊敬해도 禮儀도 國家元首가 아무런
 行爲을 하더라도 二宗은 憲法行爲을 할수있는
 때문에 첫째 國民들이 가지고 있는 封建殘滓 二
 自體를 有用하게 活用할수가 있다 愛國心을 國
 家元首에 一致시킬수 있다 이면點이 하나있고 그
 때는 二宗에 의고 보면 長官달라고 아무리 重
 傷 謀略했자 할 구력이 없어진다 二다음에
 重傷 謀略 陰謀機會를 구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어서 비로서 우리는 法的尊嚴性을 지킬수가
 있고 憲法生活를 할수가 있고 우리政府自體가 憲
 法行動을 할수가 있고 二宗에 함으로써서 民
 權이 保障되고 우리나라의 民主制度라는것이 비
 도서 始發이될수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때까지
 생각하고 한것이 저로서는 最上의 方法이라고
 생각올하고 있습니다 二宗에 대해서... 그것은 屋
 上架屋이다 制憲議會때에 現에 大統領으로 지
 시는 李博士가 二宗에 같은議員의 資格으로서
 같이 있었을때에 李博士께서 그것은 屋上架屋
 이다하는 主張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一理가
 있는 말씀입니다 二宗이나 屋上架屋일지라도 이
 國家를 다스리고 이民族을 살린다면 屋上에
 架屋을 하나 더 하는것이 無妨하다고 생각합
 니다 二實例로는 오늘날 우리가 英國을 보더라
 도 英國이 民主主義思想이 退步한것도아니고
 英國의 市民이 民主主義를 모르고도 아니고
 法을 모르는것도 아니지만 王은 二宗으로 시
 고 있습니다 英國사람 몇사람을 만나서 논의는

民主主義인데 屋上架屋으로 王을 가지고 있는나
 이런것을 물어왔어요 물어왔더니 二宗들의답이
 우리들은 「피로리아」女王때에 이세계의 三分之
 二를 우리英國이 領有한 二宗의 王室을 英
 國市民은 領有할수없소 二宗이나 王에게는 아무
 권利는 없노라 이런答辯을합니다 英國國民의
 身分으로 王室을 二宗으로 알고 일하는지 尊
 仰을 할수있는 한 歸一點을 만들어주고 行政
 權은 完全히 內閣에두어서 國民이 批判하고
 叱責하고 追窮하고해서 國民生活를 保障해나갈
 수있도록 制度가 되어있습니다 佛蘭西가 二宗
 고 佛蘭西는 勿論 二宗傳統은 안가졌을수다마
 는 大統領을두고 內閣責任制를 採用하고있으며
 가가은例로 日本이 天皇을 二宗으로두고 나락亡
 된 軍國主義殘滓 封建制度인 天皇制度를 그때
 로두고 內閣을 가지게되었느냐 이것은 日
 本の 國民들이 二宮室에對한 歸着點을 갖다가
 없애는것보다도 낫기때문에 문것이예요 二宗이
 우리民族의 將來를爲해서 이民族의 中傷謀略과
 우리民族 同族끼리 가진... 逆賊으로 몰아서
 죽이는 이弊習을 막고 우리들이 차다운 國
 家를 建設하고 우리나라의將來性을... 우리子孫을
 이나마 安ん지고 살수있는 世上을만드는에는
 國家元首와 行政權을 完全히 分離하기前에 나
 는 이것을 開拓方案은 제가 이때까지 생각
 한 結果外體驗으로서 到底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二宗에 오늘날의 우리의現實은 權力이
 行政府에 偏重되어있으며 二 偏重된權力이 잘
 못... 잘만 使用되고 있느냐하면 그렇지않어요
 이것은 여기서 세심스리히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여쭙는이 데 저보다도 더 잘
 알고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지않겠습니다 이리
 한意味에서 오늘날의 改憲案과 이제는 對照할
 段階가 왔습니다 二宗이 오늘날의 改憲案은 權力
 分立을 目標으로한 大統領制를 採擇한다 이런말
 습을 提案者例에서 每樣 말씀을하시는데 이것
 은 二말씀하고 實際하고가 全然히 다르다는것
 을 理解못할사람도 한사람도 없을것입니다 이
 지은 權力을 分立하는것이 아니라 權力을分立
 해서 이나라의 참다운民權을 保障하자면 이제
 말씀드린 그이하식의 權力을 分立해야지 現在
 의 改憲案은 三權을 行政府에 集中하자는 結
 果밖에 안가져옵니다 二宗이 이것은 權力分立
 이라는 美名下에다가 大統領의 權力을 더 強化
 시키고 全權을대끼자는 結果밖에 안됩니다 그
 러나 한사람에게 權力이 集結되면 權力은 亂
 暴을 가져올것이고 國民은... 封建殘滓 二宗으로
 남아있는國民은 二사람의 權力의濫用을 二宗으로
 是認할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民主發展을 생각할수없다는 結果를 招來하고야
 말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民主主義制度에있어서
 現改憲案은 歷史的發展에 背馳가되는것이고 우
 리民族의 惡傳統을 打破하는데 더 惡傳統을
 助長시키는 結果를 가져올것이고 權力分立을
 가져온다는 二宗은 한 빛좋은 개살구에 不遇
 한것이고 實質적으로 權力을 더욱 獨占하는結
 果를 招來할것이고 二宗에 또한가지 여기서
 核心的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할것은 다른나라
 는 憲法을改正하면 憲法改正하는 目標가 어떻
 게하면 國民을 잘 살라겠느냐 어떻게하면 國

民生活의 善 便安하게 되겠느냐 이렇듯해서 憲法에 不備되어 있는 條項 條項을 따져서 國民生活를 保護하고 國民의 福利를 가져오기에 努力하는게 우리나라 憲法改正은 今番 두번째 나오고 있는게 憲法改正이다 國民福利를 위한 憲法改正이 아니고 權力을... 權力構造를 變更해서 政權을 掌握 改憲안을 하고 있다 이것도 現狀하 現實입니다

拔萃改憲案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政權을 維持하기 위한 拔萃改憲이요 今番 改憲案도 여러 百마디 물렸과 實際적으로 政權을 維持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어떤 아 해까지 다 아는 事實이 아니냐가 그러니 여러분께서 美國의 三權分立制을 잡고 主張하고 美國의 大統領制 美國의 歷史를 말함하지만 美國에서는 憲法을 二十二條項을 改正했고 열두번에 걸쳐서 改正을 했는데 權力構造를 變更한 것은 去敍「드우만」氏가 執政時 大統領한 사람의 長期執權은 여러가지 弊害가 생겼... 자미론자들은 일이 많다고 해서 그 權力을 減少시켜서 制限한 것뿐이고 二十二條項中 二十一條項은 全部가 國民의 福利를 위한 改憲이었음니다 왜 우리는 國民의 福利를 위한 改憲을 하지 않고 모두 政權을 위한 政權을 잡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하나 百姓이 다 죽는다 면 무엇이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취하여야 할 態度는 무엇이 第一適合하냐 지금 提案者側에서 말함하시기를 今番 改憲案은 國內外情勢의 危急한 時期에 여기에 對處하기 위해서 한다 물론 政局을 安定시킨다 세계는 現行憲法의 矛盾性을 是正한다

현실 상황에 알맞는 改正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게 이 내가지 條件을 今番에 改憲함으로써 하 나도 是正할 수 없는 結果를 招來합니다 이 내가지 目的을 達成하려면 첫째 條件이 獨裁을 防止할 수 있도록 우리가 準備을 하여야 될 것이요 아까도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中傷· 謀略· 陰謀· 民族의 惡傳統을 打破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가 이 制度上에 措置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綜合的인 政策을 強力히 推進할 수 있는 措置를 갖다가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行政을 刷新해서 現實의 腐敗性을 갖다가 하루바삐 是正해 될 것이고 이 내가지 原則을 갖다가 이 制度上에 어떻게 관철하게 하고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인데 今番 改憲案은 이러한 내가지 是正하여야 할 原因을 더욱 더욱 激化시키는 結果밖에 하나도 是正할 準備이 되어 있지 않는데 今番에 어떻게 해서 이 改憲을 하실려고 하지는지 理由를 到底히 내미리로서는 알 수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現實에 대해서 이 世界萬邦의 政治形態를 볼 때 저는 大概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委任政治이요 한가지는 責任政治이라고 생각합니다 委任政治이라는 것은 두가지로 分類할 수 있는데 하나는 個人에 게 委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團體에... 集團에 게 委任하는 것입니다 責任政治는 요새 形態로서 議會가 中心이 되어서 內閣責任政治를 하는 것입니다 大概 한사람에게 委任하는 政治는 獨裁라는 名稱을 부치고 集團에게 委任하는 政治는 集團 專制政治라는 名稱을 부치고 內閣責任制로 議會가 中心이 될 制度를 우리는 民主主義

이라는 名稱을 부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大統領制는 委任制로서 美國以外에 大統領制를 採擇한 나라로서 獨裁를 아니한 나라가 있거든 여러분의 歷史上 過去나 現在에 있어서 事實이 있으면 차어서 立證을 세워 주십시오 大統領制를 採擇한 나라로서 獨裁를 아니한 나라는 美國 하나만 除外해 놓으면 다 獨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大韓民國만은 한 개인에게 매개도 獨裁를 안하겠다는 科學性을 여러분이 여기에 무엇이든 提示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美國은 어떻게 해서 獨裁를 못하느냐 이것은 아까 慎道成議員께서 여러가지 具體的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意見에서 제가 몇가지는 여기서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美國은 聯邦國家입니다 內政을 州에서 하고 있으며 또한 警察權도 州政府에 있기 때문에 美國의 國民의 輿論은 活潑하게 展開될 수 있고 美國聯邦政府의 施策의 잘못을 國民이指摘하고 때를이도 生命 財產에 아무關係가 없어요 그러면 輿論이 聯邦政府를 指導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 같이 輿論이 가

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 같이 輿論이 가 딱 잘못하다가는... 말 한마디 政府에 대해서 잘못했다가는 逆賊으로 물리고 生命· 財產이 없어지는 관연에 무슨놈의 輿論이 나온다는 말이예요 (「웃소」하는이 있음) (笑聲) 그러면 또한가지는 美國의 大統領은 우리나라 하고는 다릅니다 美國 大統領選舉는 新聞紙上의 報道를 통해서 보더라도 政黨에 投票하고 各州別로 政黨에 投票를 합니다 「유」에 있어서

民主黨도 共和黨이 한黨만 더 많으면 「유」
 州에서는 全部 共和黨이 나오지 않아요
 論 어기에對해서는 個人의 信望도 있겠지만 다
 政黨代表로서 政黨을 中心으로해가지고 政黨에
 屬해서 나오는것입니다. 그러면 美國大統領은
 頭腦가 우리 以上아래요 가령 外交問題이면
 下院外交委員長 上院外交委員長 또 外交專門家
 로서 構成된 諮問機關이있어요 그하나 하나
 針이 大統領한 사람의 獨斷的인見解에서 出어
 나오는 政策이 하나도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는 무엇이있을지나 그리고서 자고 大統領制
 大統領制 美國式 美國式하는것은 아마 美國式
 을 틀어서고 하시는말씀같이 생각됩니다.

(「잘못요」하는이 있음)

그에서 이機會에 우리憲政史의 由來를 한번
 考察해볼 必要가 있다고 나는생각합니다 憲法
 이라는것은 勿論 다른法도 그렇지만도 憲法學
 者「갈슈밋」같은 사람도 所謂 世界에 憲法이
 한 總體이라고 할수있는「바이발」共和國憲法로
 妥協的인 憲法이다 妥協의所産이다 이런말을쓰
 고있는데 妥協이라는것은 現實的인입의 配合이
 必要한데 우리나라 憲法만은 참으로 妥協이되
 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카도 韓熙錫議員께서 말
 하신바와같이 하루밤사이에서 어떤妥協이 되었
 는데 우리들은 制憲國會에 議員이저만 第三流
 議員이되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하루밤사이에서
 妥協이 되어가지고 憲法에 二律背反的結合이되
 었어요 이것은 屢屢히 張錫根議員께서도 말씀
 하신것과같이 事實을따다가 否定할수 없는것이
 고 그래서 反對를하기爲한 反對는 妥協이필

요합니다 그것은 이內幕을 지금 어기에 韓熙錫議員
 이仔細히 이야기했으니 이런얘기를 重復復言을
 아니하겠습니까 左右間 制憲議會때에 하루밤사이
 에 어떻게 變하고말았습니까 變하고말았는데 그
 어떤 우리가 法을만드는에 法起草者의 態度이라
 는것을 미리 考察해보면 大統領制를 만물자고
 생각해서 憲法을 起草하는사람은 大統領에게
 더군다나 우리가 聯邦國家가아니라 單一國家
 에있어서는 大統領에게 權限을 너무부어서는 안
 된다는것이 起草者의 머리에있어가지고 法案하
 나하나가 作成되는것이여 大統領責任制로해서 大
 統領에게 權限을 주면 獨裁가 實施될가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大統領의 權限을 저게만
 놓고 權限을 議會에 많이 남겨두는것이 法
 案起草者의 基本 心理狀態입니다 內閣責任制를
 構想해서 法案을 起草하는 사람은 提案者가 日
 常 妥協的인바와같이 多數의 權限을 자기爲해서 議
 會에 權限을 너무부어주고 小數者를 保護하게하
 기爲해가지고 大統領의 權限을 어느程度 擴大
 시키자는것이 法案起草者의 心理狀態이고 法案
 을 만드는 原則입니다 法案이라하는것을 恒常
 強硬者를 抑制하고 弱硬者를 爲하여 도움이 될
 수있는 法案을 만드는것이 法案起草者의 原則
 입니다 그런데 이憲法起草는 어때요 잘아시
 다 싶이 現在 高麗大學總長으로 계시는 俞鎮
 午先生께서 起草를할때 完全한 內閣責任制를
 생각해서가지고 內閣責任制라는 原則에 起草를
 하셨어요 그게가지고 多數의 權限을 자기爲해
 가지고 小數黨의 利益을 擁護하기爲해서 小數
 黨의 利益을 尊重하기爲해서 大統領의 權限을

하나 하나 擴大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制憲議會때 일인데 憲法上에 첫째 二例로서 緊
 急命令權을 大統領에게 附與했습니까 이것은 多
 數派의 權限을 자기爲한 措置입니다. 그리고 法
 律案拒否權 律案提案權 財政權 即 豫算案...
 거기예다가 警察權 이런것 가지도 內閣에 주
 지않고 大統領에게 全部부어가지고 多數의 權
 限을 자기爲하고 이나라를 維持 發展 시키자
 는 土台위에 內閣責任制 起草案을 全部 만물
 었는것입니다 이것이 하루밤사이에서 內閣責任制
 는 없어져 버리고 大統領制로 해가지고 大統
 領의 權限加一層強化되고 內閣의 權限은 縮少된
 것이 制憲議會때 우리의 憲政史의 事實입니다
 그法 그대요 實施한것이 오늘날이름입니다
 右間 그때의 心情으로서는 李博士에게 얘기면
 우리나라가 잘 될것이다 그래서 無條件 다 그
 데로하고 二年間해오다가 到底히 되지않았다
 해서 고칠려고 하다가 고치지못하고 오늘날이
 와같은結果를 招來하였는데 그때에 그것을 修
 正해도라던 오늘날 提案者側이 苦衷을 하나더
 겪으시지 않았을것인데 그때에 修正하지못해서
 提案者로 하여금 精神的苦衷을 느끼게 되어서
 그때의 制憲議員의 한사람으로서 이자리를 필
 어 謝過드리는바입니다 그런데 그위에 所謂
 政治波動을 통해서 우리나라 憲政史에 一大汚
 點을찍은 改憲이되고 말았습니까 二더프로 違
 憲的인 節次를 밟아서 成立된것이 오늘날의 現
 行憲法입니다 우리나라가 隨實히 法을 잘 지
 키는 國家이라면 現行憲法은 無効입니다 違憲
 的節次에 依해서 構成된 奉改憲案이니까...그

四四

이나 우리나라는 恒常 立法보다도 八法이신나
마가되어서 現行憲法으로 되어있을나이다 마는...

(笑聲)

拔憲改憲案의 大義名分이 무엇이냐 하면 國民의
直接 選舉를 해야한다 이런말을 했어요 國
民直接選舉라고 하는것은 結果에 있어서 무엇이
냐하면 職權을 維持해서 維持해 보겠다는 以外
는 없다는것은 事實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現
在 三權分立을 主張하는 이때 司法이 어떻게 되
어있느냐 요제 우리나라司法은 재가 보기에
完全히 政治化되었다고 斷案을 내리고있을나이다 司
法이라는것은 行政 立法보다도 超越해서 嚴然
한 存在로서 國民의 正當한 利益의 生命財產
을 保存하기 위해서 嚴嚴한 審判을 내려야 할
것인데 往往히 일어나는 所謂政治的 介在事件
下에서는 全部 司法이 政治化되어가지고 到底
저獨立性을 司法權이라고 말할수있게 되었을
나이다 그렇기때문에 結局 國民들은 무엇을 바
라고 무엇을 믿고 갈수있느냐 말이에요 그때
서 저는 이런構想을 가지고 있을나이다 우리는
英國式 政治制度를 採用하지않고는 이民族을 求
할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서 國家元首와
行政權을 完全히 分立해서 또한內閣에게 多數
의 橫暴을 막고 少數를 保護하기 위해서 大統領
權限을 어느程度 擴大하자 그때서 英國과같이
萬若 王室에서 무슨 招請이 있을때에...英國
에서는 國會議員 第一等席입니다 만드시 野黨實
任자가 第一席에 앉게 되어있을나이다 王室과 少
數者政權을 못가진자는 한크롬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少數意見을 保護할수있고 多數橫暴을

막을수있다 그러니 野黨은 大統領의 野黨이런
단 말이예요 그때서 司法權을 優位에 두고 立
法權이나 行政權이 司法權을 優待하지 못하도록
해서 司法은 그야말로 國民의 生命財產을 保護
하는 神聖權을 發揮할수있도록 해야될것입니다
또한가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日帝四
十年間 殖民地에서 우리民族으로서 被은것은
警察이 百姓을 抑壓하고 百姓을 못살게하는것
以外에는 아무것도 被은것이 없어요 그러니
內閣責任制를해서 警察은 行政府에 구지않고
別途로 大統領所屬下에 구어서 警察이 行政權
의 使職을 맡지않고 警察은 議會에서 委員會를
組織한다든지 해가지고 참말로 眞情한 權力分
立을해야 우리民族이 갈수있고 우리國家가 安
定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같이 佛蘭西에서는 자부
政變이 일어난다 이런缺點이 있을나이다 佛蘭西
議會는 아시다싶이 解散權이 없어요 그러니까
政府에 반드시 解散權을 賦與해가지고 內閣不
信任을 할때에는 解散當할 覺悟를하고 해야
그 不信任이 效果를 낼수있으며 또한 政權도
信賴上에서 일관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이런意味에서 今般改憲案은 國民의 福利을 爲
한改憲案이 아니고 오로지 政權을 維持하기爲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總督에 맞지않는것이 事實
이다 權力을 分散해서 참다운民權을 擁護하기
爲한것이 아니고 權力을 集結함으로써 獨裁를
合理化하는것이다 이것은 不當한것이고 이改
憲案이 通過되면 國際적으로 어떤것이 오느냐
그때도 大韓民國國會가 民主主義를 그때도 하

있었다는 그말까지도 國際적으로 喪失하고 大
端히 장피스러운 立場에 스제할을가 이것을
저지하고 있을나이다 內政은 刷新되지 않을것이
고 現行政府는 權力이 더욱 強化됨으로써 現
在의 腐敗는 加一層 高度化될것이고 現在의 混
亂은 一層 激化될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우
리들의 立場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이議事堂에
들어오기가 大端히 어색하마음으로 들어오게하
요 그러나 一漏의 奇蹟... 설마 이民族의 運
命이... 그런 一漏의 奇蹟을 바라고 있는때 이
改憲案으로 一漏의 奇蹟까지도 喪失해버리
지 않겠는가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이改憲
案은 結果적으로 暴力을 合理化시키고 獨裁를
合理化시키는 結果以外에는 아무것도 다른것은
가지오지 못할것이다 저는 그런判斷을 내리고
있는것입니다

大體 內閣責任制를 採擇하느냐 또는 大統領制
를 採擇하느냐 우리民族에 가장 適切한... 우
리의 代리는 傳統을 打破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있는 制度라는것은 재가 생각하는것은 이리
한것이다 이 程度로써 말씀이 끝이났을나이다
그때서 요런 改憲案에있어서 重大한 문제 몇
가지를 아까에 말씀드린바와같이 原理와 實證
과 現實에立脚해서 다문들이 말씀한것과 조금
角度를 달리해서 몇말씀 여기에 저의 意見을
陳述할가합니다... 今番 改憲案의 中心骨子가...
...어머가지면에 말씀하고 있을나이다 말은
率直히 보기에 大統領責任制限廢止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點心먹으러 가는데 이것
이 전짜 「성명당」입니다 國民投票制는 소금役

制을 할 것이요 其他 經濟條項 몇몇가지는 후
 수가후 그수가후 役制條項 또한있읍니다 實際
 의 目的은 次期에 政權을 二명으로 維持해나가
 자... 目標은 여기以外에는 없다고 보고있읍니
 다 二번째 이 條項이 憲法八條에 違反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確實히 違反行動입니다 憲法
 第八條에 우리는 特權階級을 許수없다... 아까
 慎道及議員에게서도 그부분을 充分히 納得되도록
 說明한바가 있읍니다만은 또한 憲法은 憲法스
 스로가 特例를... 例外規定을 만드며서 二憲法
 에 背馳되는 條項을 만듦수가있다 이렇게되어
 있어요 法理論의으로 보아서 그理論을 是認할
 니다 그것은 制憲國會에도 法은 題及해서 處
 罰할수가 없다 法不題及의 原則이 있는게 우
 리 制憲國會에 反民法를 만드며서 題及해서
 處罰할수가없도록 規定을 만드셨읍니다 二어나
 여기에 하가지 우리가 注意해야될것은 憲法의
 例外規定은 憲法精神을 抹殺시키는 例外規定은
 어느나라憲法이나 어느나라制度에도 있을수가없
 다 이것이 原則입니다 우리가 反民法를 만드
 며가지고 法不題及의 原則을 깨뜨리면은 三、
 一精神을 繼承한 大韓民國建設의 大理想을 살
 디기爲한 憲法精神을 살디기爲한 例外規定이었
 지 民主主義國家에서 特權階級을 許수없다는
 原則을 깨뜨리기爲한... 이것은 憲法精神에 違
 背되는 規定이고 이런 例外規定은 許수가없는
 것입니다 憲法에 特例規定을 許수없는것은 世界
 憲法史上에서 없는 類例를시다 그것은 原理的
 問題이고 實質的問題는 아니며본이 屢屢히 말씀
 한바와같이 美國의 「두드르르」와 같은 二번째

를통한 大統領도 四代를 長期間 執政을하고나
 니 무엇이 가져져드냐... 獨善行政을 했다 그
 다음에는 中傷 陰謀가 생겼다 세째는 人事行
 政에 腐敗를招來했다... 이 三大原因으로써...
 美國의 大統領年限을 制限하는 重大한 原因이
 되었어요... 二번째 우리는 制限하는것을
 두드르르가行政도 腐敗되고 陰謀가 盛行되
 고 獨善을하고있으니 또 延長하게되고 다시키
 자는 말들은 이러서나온 原則입니다 이것은
 到底히 알수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하가지
 말씀할것은... 요다음에 그리한것만 뒤뒤지지
 나 個人에게는 그것은 名譽스러운일이 아니
 다라고 우리 指導者에게는 그리한談話를 하겠
 는데 二부의 談話에對해서 우리는 信賴할수있
 는나 勿論 저는 信賴합니다 拔善改憲當時에는
 國民이 直接選舉하는것이 原則이지... 나는 立
 候補 안가지드라 그 二였어요 五、二十選舉때에
 는 自由스러운 氣團氣에서 自由選舉군래라 그
 했어요 요런 改憲案을 내시면서 나는 羞恥스러
 운일이게... 나는 願하지않노라 二어나 너희들
 이 願하는데 내가 「사인」안할수 없노라 해서
 도장해서서 아마 提案했을것입니다 여제된 일
 입니까... (笑聲) 여기에對해서는 어떠한이 正
 當한 判斷을 내리구셔야지 제가 이 壇上에서
 輕忽한判斷을 내릴수없으니 二 程度로써 論
 합니다 그러면 二분이 지금 八十이 넘으셨는데
 우리나라의 여가가지 法規를 보드라도 大法官
 이라는지 或은 檢察官이라는지 너무 나이가
 많으면 좀 妄氣가있어서 審判을 이긋나게한
 다고해서 다 停年制라는것이 있습니다 여기

大法官에 七十歲인가 그렇고 檢察官의 六十五
 歲인가 그程度의이예요 그러면 人間이라는것
 은 生理的인面에서도 우리가 살 物件인데 어떤
 분은 百五十歲나 二百歲가 되어도 精神이 많
 장하고 老妄도 아니한다고하는 어떠한 理論이
 어디서 나오는것입니까(笑聲) 다른國民은 다하
 여서 七十歲가 넘으면 좀 안되였으니가 官職
 을... 어떠한 停年의 規定되어서 그程度以上은
 못한다 이렇게 딱... 만드려났어요 二번째 또
 이러한 우리 人間本能的인 生理的인面에서도
 이것은 到底히 合理的인문제가 아닐것이고
 도하가지는 憲政七年間 그분이 善政을하셨는데
 善政을 하신분이니 이분을 우리는 골짜지
 서야되겠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一이
 本의 治績을 드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만은
 우리가 몇箇 事實안 여기에 드릴것이라든
 二五勳亂 때 저는 서울에있었어요 五、三十選舉
 때 합복 警察憲兵에게 두드르르와 落選이되어
 서 서울에와서 맹정때에 議政府를 奮還했으니
 서울市民은 품속말고 安心하고있서라 國會는
 死守를 決議했으니 安心하라... 二번째 中央廳
 에 와보니까 韓旗를만 고쳐있고 아무도 없
 어요... 九、二八 收復이 되드니 어떻게되었을
 니까 安心하고있거라 해놓고 逃亡가드니 도라
 외서는 이놈 나 附道를했지 하고 말한것은
 다였고 죽이고 하지않았을니까 共匪掃蕩한다고
 해서 居昌事件이 이러났으며 國民들의 희망을
 울려서... 警察이 銃을틀고 國債를 사라 債權
 을 사라 해서 그 돈을가지고 銀行不正事件이
 이러났으며 國民防衛軍에서 百萬以上の 膏狀年

을 물아서 저지대 模倣으로 그리다가 그물내
 물을 굽적죽이고 얼리죽이고 때려죽이고 한
 犧牲者가 數萬이요 그 죽은 青年들과 그
 父母자들은 怨讎의 防衛軍아... 생기자나 안했
 으면... 一線에 나가서 銃이나 한번 때어보고
 죽을것을 하고 죽은 怨讎의 防衛軍이 없어 이議
 事堂 天空에서 머리분개에 하소연을 하는 이 怨讎
 의 소리가 머리분개에는 안들림... 가
 (「改憲案에對한 反對나하시요」하는
 이 있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첫째 물어야 될것입니다
 國民이 죽은뒤에 우리는 나라를建設할수없다고
 보았어요 勿論 우리는 共產黨을 쳐부셔야 될것
 이에요 共產黨은 말로써 쳐부서지지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國民이 살고 共產黨보다도 나은
 政治를 우리는 해서 이 國民이 政府를 支
 持하고 그렇게해야만 共產黨을 우리는 실패이
 育成될것이고 世界情勢와 힘을아울려서 우리는
 쳐부셔야 될... 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意味에
 서 東洋道德이나 民主主義原則에 謙讓之道라는
 것은 다 아닐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政權을 維持하기爲한... 國民이 塗炭에빠져서
 죽음에도不拘하고 政權을 維持하기爲한 改憲案
 을 낸다는것은 나는 改憲案趣旨에 어긋한 行
 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國民投票制 이것은 勿論 大端히... 主權
 在民이라고해서 이렇듯 중요 등기에도 大端히
 중요것입니다 그러나 時代가 發達되어와서
 太古時代의 直接民主主義時代부터 지금 代議政
 治의 文化時代가 온것입니다 이 代議政治와

國民投票制가 並行할수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
 에對해서는 요제에 여러가지로 憲法學者들도
 論하고 있습니다만은 二中에도 特히 佛蘭西巴里
 大學의 教授職으로있는 現在 憲法權威者의 한
 사람인 「게제비키」라는 사람이 發刊한冊에依하
 면 議會制度와 國民投票는 到底의 台致할수없
 다는 原則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國民投票
 라는것은 結局은 어떠한 無理한일을 前進시키
 는 한 媒介밖에는 안된다는 이러한 原則을
 내리고 있는데 大概 現行되고있는 世界의 國民
 投票制라는것은 여러분이... 提案者側에서 屢次
 말씀하신바와같이 直接立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現代 民主主義國家諸國에 있어
 서는 이 直接立法이라는것도 全部 死文化되고
 空文化되고 實質적으로 行使되고있는곳은 한곳
 도 없습니다 美國의 地方 議員같은데에서 召
 還權이라든지 或은 直接立法을 몇번 해보았을
 나라만도 全部가 全部 失敗에놀아가고 말았을
 나라고 그러고 二文學者들은 대개 두가지의 커
 다란 惡原因을 提示해놓고있어요 그하나는 國
 民投票制를 하고보니 煽動的政治家들이 일어나
 서 오히려 波亂을 가져오는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있고 하나는 實質的 國家福利를爲하여 國
 民投票를 아니하고 政爭에 使用한다 卽 어떤
 官僚 한사람을 當選시켜놓고 召還制를해노니까
 落選者들이 그사람을 없애버리고... 直接民主
 主義에依한 直接立法이라는 이러한 國民投票
 制라는것은 지금 世界의 여러가지 實驗해본
 國家는 全部 死文化되어가지고 있습니다 實質

的으로는 하나도 利用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나
 라와같이 非常之秋에 當해서 이것을 學者들말
 씀은 主權 或은 領土에關한 非常權 이것을
 「주제 비스프」라고 말합니다만도 여기에對해
 서는 世界어느나라 憲法도 現在 없습니다
 는데 過去の 歷史에 이것을한나라가 두나라
 가 있습니다 두가지있느냐하면 獨逸의 「히트러」
 가 한번있고 「나르메온」이 있었습니다 獨逸의
 「히트러」가 一九三三年七月十三日에 國民投
 票制立法을 했을나다 立法을해서 「히트러」가
 統領이 되고 自己가 모든權力을 引受한다음에
 무엇이라고 宣言을했느냐하면 「모든 權力은 國
 民으로부터 發한다 國民은 自由롭고 秘密投票
 에依해서 이 內行動에 贊否를 表明하라」하고
 宣言을했어요 그리고 國民投票를했을나다 우리
 나라와 恰似한 語句로서 그렇게했습니다 그것
 이 一九三三年七月十三日에 했는데 投票가 四
 千三百五十三萬票 二中에 可가 八十九萬票로가
 나왔고 否가 十萬이 넘었거나왔어요 이것이
 勿論 國民投票가 秘密投票制가 되어있는지
 없는지는 그때의 現實을 여러분이 잘아실수있
 을것입니다 「나르메온」은 自己가 終身執政官이
 되기爲해서 上院議會를 召集해서 나히 議事堂
 에서하면 오늘날 어디서 不肖輩들이 危險性이있어
 野外에 나가자고해서 野外議會를 召集했어요
 해놓고는 내가 終身執政官이 될터니까 그렇게해
 라... 議會에서 異論이 沸騰하니 自己가 軍隊에通
 知를해서 總司令官이 지금 議會의 不良輩들을 붙여
 서 아주 危險한狀態에 빠졌으니 오라고해서 「구
 테라」를 해버... 에요 그때놓고는 憲法制定權을

자극 그 審判權을 가질 上院은 自己가 全部任
 權을 가질 것이고 上院議長은 自己親錄을 할 것이고
 自己가 皇帝符號할 때에는 上院議員을 시켜
 上院議會로 하여금 皇帝符號하는 것이 좋으나 나
 라나 國民投票을 提案을 시킬 것이다 그것은
 용한 계구이기도 自己가 直接 안았을도 장외
 해서... 이 법에서 제 9十九條 1項의 得票
 數를 보라 우리 나라에는 絕對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 라는 것은 이 改進黨을 提案을 提案하
 신 起草도 하시고 提案說明도 하신 第一代부터
 三選하신 李在鶴은 特別 第二代政治波動期에
 內閣責任制를 물리치고 國立警察의 案內일에서
 서리 맞인 李과 같이 풀이 없어서 起立投票을 한
 二사당의... 自己의 必속에 사오지가면서 이러
 한 일은 우리 나라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確信과
 信心을 가지고 있으리라 하고 나는 믿고 있으며 지
 금 國民投票制는 五十萬以上이 提案과 三分之
 二投票으로서 五分五二贊成이라는에 對해서 權力
 의 背景이 없이는 到底히 일어날수 없는 國民
 投票制입니다 그러니 제자 생각하기에는 이 國
 民投票制라는 것을 國民主權을 아름다운 이름을
 내어서 좋은 名目下에서 오히려 警察의 選舉
 에 對한 干涉이나 警察權을 合理化시키는 것
 이 한程度밖에는 되지 않겠다 이러한結論을 내리
 시 當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往往히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惡利用을 함
 니다 우리 나라에는 勿論 惡用한例가 없을지도
 몰라 그대의 惡用할수 있는 機會를 만들게우우
 미가 改進黨을 가면서 만물이 잘 필요가 있겠는
 나 없겠느냐 假令 敵國이 侵入하여서 우리가

悲慘한例六、二五動亂의 그때에는 死守決議
 案이 나 말거나 多幸히도 우리議員들이 全部
 다 兩學으로 갔습니다 萬若에 死守決議를 해서
 二개로 全部가 捕虜가 되었다 萬幸할수 없게 해
 놓고 可決을 시켰다 二개 놓고 占領한 二地域의
 面性을 國民投票을 시킨다 그래서 全部가
 憲法第次대로 다 되었단 말이요 合法的으로 되
 었다... 이러한 僥倖者들에게 跳梁할수 있는 機
 會를 주지 않겠느냐 오히려 二리한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고 저는 대단히 危險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二개서 여기 보시면 確實히 이 提案者의
 苦衷이 또 있습니다 提案者가 五十六條六項에
 「第一條 第二條 第七條의 二는 改廢할수 없다」
 이러한規定을 했어요 이것은 提案者가 國民投
 票制를 내놓고 보니 危險千萬해서 一條二條 여
 기에도 할라 손을 떼지 못하도록 이러한 改廢
 할수 없다는 規定을 만들었으니 苦衷입니다 왜이
 러한 苦衷을 느껴가서 이러한 危殆로운 規
 定을 必要나那邊에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
 각됩니다
 國務長官制 經濟條項... 勿論 거기 對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만 앞서 나온
 議員이 말씀해서 充分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意見은 省略하겠읍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改進黨問題의 處理에 있어서 우
 리 議員同志들이 充分히 생각해야 할 것을 우리
 是은 決코 一時的인 議會生活를 할것로 아나고
 將來에 悠久히 우리子孫들이 이어나갈 運
 大한 問題를 決議하는 이마 당에 있어서 어느나
 라를 莫論하고 이러한 二사당의 이러한 한가

지 權力이 실패에는 만드시 거기에 附隨되
 議會라는 것이 造作이 되는 것은 事實입니다 여
 들이 잘 아시다싶이 日帝末葉에 日本의 軍國上
 義를 土台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日本의 翼贊議會
 이고 나치스專制를 부속해준 것이 所謂 나치스
 議會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大統領制를 採擇
 하고 內閣責任制를 採擇하지 않는 以上에는 언제
 든지 우리國會議員은 正當한 政黨生活를 할수
 없으며 正當한 政黨이 正當한 政治的인 地位
 을 展開할수 없는 기러한 쓰라린 立場에 있을수
 다는 것은 제가 벌써 五年前에 議政壇上에서
 말씀한 바입니다
 오늘날의 이 提案者되신 여러분이 勿論 心中에
 커다란 苦衷이 계실것을 저自身도 알기 느끼고 있
 고 또 거기에 對하여 二인立場에 서도록 만들
 었느냐 할것같은 것은 二로써 말들은 罪惡은
 初代制憲國會當時에 있다는 그러한意味에서 저
 도 다시 謝過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읍니
 다 二사당 우리는 國家의 將來를爲해서 이 苦
 衷을 解決하는에는 千가지方法이 있습니다 하
 나는 現實의 一時的인 檢安을 擇하기爲해서 그
 것을 따라가는 方法이 있을것이고 하나는 우
 리國家의 將來를爲해가지고 여기에 自己가
 지고있는 良識과 良心의 批判을해서 英斷을
 내리는 方法이 있을것이고 萬若에 一時的인 檢安을
 擇해서 우리가 現實에 屈服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週圓에서 冷笑가 될것이고 우리自身을
 큰 罪의 結果를 받기 쉬운 結果를 가져올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子孫의 繁榮과 우리의 幸福
 을爲해서 苦衷을 풀리지고 自己良心과 良識

에 부끄럽지는 英斷을 내리주시기를 懇功히
付託하는바입니다

○副議長(崔淳周) 二日 討論은 이르면 終
結되었을니다 議事進行에 對해서 趙淳議員의 發
言通知가 있습니다

○趙淳議員 이제 우리國會는 國家의 重大한憲
法 改正案에 對해서 圓滿하고 充分하니 贊成의
贊否兩論의 大體討論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므로
順序에 따라서 諸議會를 省略하고 直刻으로
一括해서 可否表決로 들어갈것을 動議합니다

(「贊成이요」하는이 있음)
○副議長(崔淳周) 趙淳議員 動議에 贊成있을
니까

(鄭甲柱議員 再請이요)
三請있을니까

(朴永出議員 三請이요)

그러면 動議는 成立되었을니다 그러면 異議가
없으면 即時表決에 들어가겠습니다

趙淳議員의 諸議會를 省略하고 直刻으로 一括
表決하는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舉手表決)

在席員數 一百八十一人
可에 一百十六票 否無票로 通過되었을니다 다
음에는 表決에 即時 들어가겠습니다

(「議長」하는이 있음)

宋邦淵議員의 發言 通知가 있습니다

○宋邦淵議員 오늘은 國家의 將來와 民族萬代
에 끼쳐갈 憲法을 改正하는날입니다 改正을
決定하는날입니다 憲法은 國家의 莫重한기틀인
基本法입니다 이러한 莫重한기틀인 基本法

이 投票하는때에 있어가지고 個人의良識과 良
心과 自由가 保障되지 않는다고하면 民主發展
思想에있어서 極히 危險한일이라고 하는것을
생각한 第二代國會에서는 無記名 投票로써 投
票하는것이 옳다는것을 法으로써 制定했는지
입니다 나는 어제 風聞에듣기는 이야기가 많스
런것 못한 이야기들 많이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이야기가 虛言이기를 바라고있을니다

二것은 一百三十七名의 國會議員 三分之二의
大多數를 擁하고있는 大自由黨의 公黨으로써는
投票에있어가지고 巷間에서 物議를 일으키는
그러한 事態는 일어나지않으리라 하고 있는것을
믿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아침 朝刊의新
聞에는 社說에다가 들어가서 暗號 投票가일어날
것이다하는 이야기를 쓰고있는것입니다 또 들
리는바에 依할것같은 暗號投票가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누구 누구는 萬
年筆로 이러 이렇게 쓰라 누구 누구는 筆鉛로
이러 이렇게 쓰라

(場內巖然)
萬一 여러분이 나중에 이이야기에 對해서 證據
를 要求할것같은...
(「취야」하는이 있음)
(「내려와 이놈아」하는이 있음)

(場內巖然)
議員同志 여러분 沈着과 冷靜을 잃지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議事進行에 對해서 내가 發
言權을 얻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나의 이야기
가 訂正할것이 있다고하면은 國會議員으로써
訂正하고 取消할것입니다 萬一 나의 이야기

가 自己네들의 口實에 거들린다고해서 여기에
서 자유로써 나온다는것은 國會議員이 取할
態度가 아닐것입니다 萬一에 이와같은 方式에
依해가지고 投票가 進行된다고하면 實로 나는
痛突할作定입니다 民主主義의 葬送曲을爲해서
痛突하여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있어서
는 議員이라든지 大統領의 選舉戰에있어서 官
權이 壓迫을 加해가지고 自由로운投票를 못한
다고하는것을 비로서 數個月동안 여기에서 行
政府를 糾彈하고 그런일이 다시 일어나지않기
를 우리가 注意를 促求했는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爲해서 우리는 鬪爭을해왔는것입니다 그
런데 萬一 이러한事態가 國會內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境遇가 있다고할때에 이것은 우리가
座視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나는 아까 冒頭에서
도 이야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事態가 안
일어나리라 믿을니다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
서는 안된다이라고 믿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莫重한 憲法改正을 投票하는때에있어서 國
民이 이러한 疑惑感을가지고 바라다보는데 그
대로 投票할수는 없지않으나 우리는 그런隨名
을 뒤집어쓰고져 우리가 投票할 必要가 어
더가있느냐 그런다고하면은 勿論 그것까지도
誤解이다 그런것은 浪說이다 그러니까 相關있
을것이냐 그대로 投票하자고 하는말씀을 많이
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誤
解와 그러한浪說을 갖다가 우리의 行動으로써
否認하고 投票할것이 있다고하면은 우리는 그
것을 擇하는것이 몇몇한 길이라고 생각하는것
입니다

가 自己네들의 口實에 거들린다고해서 여기에
서 자유로써 나온다는것은 國會議員이 取할
態度가 아닐것입니다 萬一에 이와같은 方式에
依해가지고 投票가 進行된다고하면 實로 나는
痛突할作定입니다 民主主義의 葬送曲을爲해서
痛突하여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있어서
는 議員이라든지 大統領의 選舉戰에있어서 官
權이 壓迫을 加해가지고 自由로운投票를 못한
다고하는것을 비로서 數個月동안 여기에서 行
政府를 糾彈하고 그런일이 다시 일어나지않기
를 우리가 注意를 促求했는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爲해서 우리는 鬪爭을해왔는것입니다 그
런데 萬一 이러한事態가 國會內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境遇가 있다고할때에 이것은 우리가
座視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나는 아까 冒頭에서
도 이야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事態가 안
일어나리라 믿을니다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
서는 안된다이라고 믿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莫重한 憲法改正을 投票하는때에있어서 國
民이 이러한 疑惑感을가지고 바라다보는데 그
대로 投票할수는 없지않으나 우리는 그런隨名
을 뒤집어쓰고져 우리가 投票할 必要가 어
더가있느냐 그런다고하면은 勿論 그것까지도
誤解이다 그런것은 浪說이다 그러니까 相關있
을것이냐 그대로 投票하자고 하는말씀을 많이
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誤
解와 그러한浪說을 갖다가 우리의 行動으로써
否認하고 投票할것이 있다고하면은 우리는 그
것을 擇하는것이 몇몇한 길이라고 생각하는것
입니다

가 自己네들의 口實에 거들린다고해서 여기에
서 자유로써 나온다는것은 國會議員이 取할
態度가 아닐것입니다 萬一에 이와같은 方式에
依해가지고 投票가 進行된다고하면 實로 나는
痛突할作定입니다 民主主義의 葬送曲을爲해서
痛突하여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있어서
는 議員이라든지 大統領의 選舉戰에있어서 官
權이 壓迫을 加해가지고 自由로운投票를 못한
다고하는것을 비로서 數個月동안 여기에서 行
政府를 糾彈하고 그런일이 다시 일어나지않기
를 우리가 注意를 促求했는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爲해서 우리는 鬪爭을해왔는것입니다 그
런데 萬一 이러한事態가 國會內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境遇가 있다고할때에 이것은 우리가
座視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나는 아까 冒頭에서
도 이야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事態가 안
일어나리라 믿을니다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
서는 안된다이라고 믿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莫重한 憲法改正을 投票하는때에있어서 國
民이 이러한 疑惑感을가지고 바라다보는데 그
대로 投票할수는 없지않으나 우리는 그런隨名
을 뒤집어쓰고져 우리가 投票할 必要가 어
더가있느냐 그런다고하면은 勿論 그것까지도
誤解이다 그런것은 浪說이다 그러니까 相關있
을것이냐 그대로 投票하자고 하는말씀을 많이
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誤
解와 그러한浪說을 갖다가 우리의 行動으로써
否認하고 投票할것이 있다고하면은 우리는 그
것을 擇하는것이 몇몇한 길이라고 생각하는것
입니다

가 自己네들의 口實에 거들린다고해서 여기에
서 자유로써 나온다는것은 國會議員이 取할
態度가 아닐것입니다 萬一에 이와같은 方式에
依해가지고 投票가 進行된다고하면 實로 나는
痛突할作定입니다 民主主義의 葬送曲을爲해서
痛突하여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있어서
는 議員이라든지 大統領의 選舉戰에있어서 官
權이 壓迫을 加해가지고 自由로운投票를 못한
다고하는것을 비로서 數個月동안 여기에서 行
政府를 糾彈하고 그런일이 다시 일어나지않기
를 우리가 注意를 促求했는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爲해서 우리는 鬪爭을해왔는것입니다 그
런데 萬一 이러한事態가 國會內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境遇가 있다고할때에 이것은 우리가
座視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나는 아까 冒頭에서
도 이야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事態가 안
일어나리라 믿을니다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
서는 안된다이라고 믿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莫重한 憲法改正을 投票하는때에있어서 國
民이 이러한 疑惑感을가지고 바라다보는데 그
대로 投票할수는 없지않으나 우리는 그런隨名
을 뒤집어쓰고져 우리가 投票할 必要가 어
더가있느냐 그런다고하면은 勿論 그것까지도
誤解이다 그런것은 浪說이다 그러니까 相關있
을것이냐 그대로 投票하자고 하는말씀을 많이
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誤
解와 그러한浪說을 갖다가 우리의 行動으로써
否認하고 投票할것이 있다고하면은 우리는 그
것을 擇하는것이 몇몇한 길이라고 생각하는것
입니다

가 自己네들의 口實에 거들린다고해서 여기에
서 자유로써 나온다는것은 國會議員이 取할
態度가 아닐것입니다 萬一에 이와같은 方式에
依해가지고 投票가 進行된다고하면 實로 나는
痛突할作定입니다 民主主義의 葬送曲을爲해서
痛突하여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있어서
는 議員이라든지 大統領의 選舉戰에있어서 官
權이 壓迫을 加해가지고 自由로운投票를 못한
다고하는것을 비로서 數個月동안 여기에서 行
政府를 糾彈하고 그런일이 다시 일어나지않기
를 우리가 注意를 促求했는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爲해서 우리는 鬪爭을해왔는것입니다 그
런데 萬一 이러한事態가 國會內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境遇가 있다고할때에 이것은 우리가
座視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나는 아까 冒頭에서
도 이야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事態가 안
일어나리라 믿을니다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
서는 안된다이라고 믿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莫重한 憲法改正을 投票하는때에있어서 國
民이 이러한 疑惑感을가지고 바라다보는데 그
대로 投票할수는 없지않으나 우리는 그런隨名
을 뒤집어쓰고져 우리가 投票할 必要가 어
더가있느냐 그런다고하면은 勿論 그것까지도
誤解이다 그런것은 浪說이다 그러니까 相關있
을것이냐 그대로 投票하자고 하는말씀을 많이
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誤
解와 그러한浪說을 갖다가 우리의 行動으로써
否認하고 投票할것이 있다고하면은 우리는 그
것을 擇하는것이 몇몇한 길이라고 생각하는것
입니다

가 自己네들의 口實에 거들린다고해서 여기에
서 자유로써 나온다는것은 國會議員이 取할
態度가 아닐것입니다 萬一에 이와같은 方式에
依해가지고 投票가 進行된다고하면 實로 나는
痛突할作定입니다 民主主義의 葬送曲을爲해서
痛突하여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있어서
는 議員이라든지 大統領의 選舉戰에있어서 官
權이 壓迫을 加해가지고 自由로운投票를 못한
다고하는것을 비로서 數個月동안 여기에서 行
政府를 糾彈하고 그런일이 다시 일어나지않기
를 우리가 注意를 促求했는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爲해서 우리는 鬪爭을해왔는것입니다 그
런데 萬一 이러한事態가 國會內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境遇가 있다고할때에 이것은 우리가
座視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나는 아까 冒頭에서
도 이야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事態가 안
일어나리라 믿을니다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
서는 안된다이라고 믿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莫重한 憲法改正을 投票하는때에있어서 國
民이 이러한 疑惑感을가지고 바라다보는데 그
대로 投票할수는 없지않으나 우리는 그런隨名
을 뒤집어쓰고져 우리가 投票할 必要가 어
더가있느냐 그런다고하면은 勿論 그것까지도
誤解이다 그런것은 浪說이다 그러니까 相關있
을것이냐 그대로 投票하자고 하는말씀을 많이
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誤
解와 그러한浪說을 갖다가 우리의 行動으로써
否認하고 投票할것이 있다고하면은 우리는 그
것을 擇하는것이 몇몇한 길이라고 생각하는것
입니다

〔「술소」하는이 있음〕

그대서 그러한 것을 採擇하려고 할 때에는 鉛筆이니 萬年筆이니 하는 여러가지를 使用하는 것으로는 鉛筆을 한가지를 使用하고 지우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구라미나 자매기치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엑스」字 消滅프로젝트 그나 票을 지어 버리는 그러한 방식을 쓰고 그 이외의 것은 無効로 宣言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러한 匿名을 쓰지 않고 投票하는 方法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술소」하는이 있음)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올라와서 지금 議事進行의 投票方式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마는 議長께서 當然히 이러한 방식을 採擇한다고 하실것 같으면 저는 여기에서 굳이 投票方式에 있어서는 勸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議長께서 여기서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副議長(崔淳周) 나로 앉어서는 말씀할 것이 없습니다

○宋邦副議長(權復) 議長께서는 當身으로서 어떻게 決定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封筒을 열어 놓이 저들이 開封하면서) 이 封筒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가를 아십니까 나는 이 封筒속에 들어있는 것이 거짓이요 이것이 國會에 誤點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希望하고 있습니다 萬에 이와 같은 것이 一般國會議員에게 돌아가서 오를 投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作用한다고 할 때에 어떠한 것은 무엇으로써 國民 앞에 미리를 보이고 나갑작정입니다

〔傍聽席에서拍手〕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勸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煽動이야 내려와」하는이 있음)

...崔昌熙氏 當身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조율이 안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投票方式에 있어서는 鉛筆로 「엑스」字를 써서 自己가 마땅치 않은데다가 否票을 지르는 이러한 방식을 採擇하기를 勸議합니다 (「再請」하는이 있음) (「三請」하는이 있음) (「議長」하는이 있음)

○副議長(崔淳周) 張澤相議員 말씀하세요 ○張澤相議員 이憲法改正案에 대해서 本議員은 自初至終으로 可否에 대해서 한마디를 言及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過去 五·二六波動때에 本議員이 當時에 行政府에 있는 한사람으로 所謂 拔萃政黨에 對한 過誤를 犯한 한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요번의 憲法改正에 對해서는 日可日否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 나는 여러분의 良心만 믿었습니다 이나라를 建設할 때 한사람이 이나라를 爲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自身도 八·九次를 襲撃을 當했다 한 사람이요 이안에 있는 議員同志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나라를 建設하는 데 功을 올린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大韓民國에서는 한사람만 特權을 주고 그사람만 위해서 우리가 憲法을 朝變夕改하고 甚之於 堯에 가가지고는 神聖한 議事堂에 앉어가지고 暗號投票를 해가지고

이나라 憲法改正을 推進시키려는 이러한 惡質의 千古에 陋을 끼치고 民主思想에 罪惡을 끼치는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앉습니다 暗號投票를 發見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宋邦副議長에게 暗號投票를 준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對해서는 아무리 與黨의 여러분들이라도 良心을 가지고 계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이나라를 爲해서 將來에 國爭할 여러분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斷乎히 改正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는 議事堂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가서 家族을 對할 때 이러한 것으로 對하겠습니까 이것은 實國的 行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은 斷乎히 是正해야 하겠습니다 (「이것 뭐야 우리도 良心이 있어 걱정 말아」하는이 있음)

내가 또 여러분에게 한마디 忠告할 말은 내發言에 對해서 아무런 한사람은 이나라를 建設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넘어다 보지 못한 한사람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野卑한 行動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自由黨議員同志 여러분의 全體의 意思가 아닌 것은 압니다 우리는 이것은 斷乎히 是正해야 할 것이고 宋邦副議長의 發言한 대로 良心的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世界萬邦에 陋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해내려 합니다 (「議長」하는이 있음) ○副議長(崔淳周) 郭副議長 말씀하세요 ○李忠煥議員(議席에서) 壇上에 있는 사람은 發

言權 주지마세요

○郭尙勳議員 내가發言하면 提案者인 自由黨
여러분에 害로운일이 있을것을 미리 짐작하시
고 發言權을 주느냐 이러한말씀을 하십니
다 그러나 물어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거의 三分之二以上의 投票로서
副議長에 當選된 사람이올시다 내가 就任當時
에 여러분께 人事말씀드리기를 與野黨間에 絶
對支持를 해주셨으니 그 뜻이 어디왔다는것을
내가 잘알기때문에 憲法과 國會法에 依支해서
내任務를 完遂하겠다고 내가 表明했읍니다 그
렇기때문에 오늘날까지 內良心的으로는 司會者
로서 與野를 區分했다든지 偏重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것입니다 同時에 오늘날 우리
가 全國民앞에 重大한 國家基本法을 고치면서

毫釐만이라도 우리大義名分을 떠나고 公正을 떠
나서 行사가 進表된다고 하면 이것은 한때의
或은 權謀術數로는 될는지 모르지만 正義에
立脚해서는 永遠히 지는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나 政治라는것은 大道를 밟아야되고 明明白白
한 이러한 行사라야만이 우리國民全體의 信賴
를받는 政治行動이 될것입니다 하기때문에 司
會者로서 여러분의 副議長의 한사람으로서 여
러분의 秘密投票가 保障될것을 나는 여기서
明言하려고합니다

勿論 稱號投票라든지 이런일은 안하리라고 믿
습니다마는 結局 投票하는때 있어서 票數를 제
워서 可否를 決定한뒤에는 반드시 二投票用紙
를 秘密히 保管하는 問題입니다 議長이나 議
長團이나 二票지않으면 各監票委員이나 二票지

않으면 臨時更法으로 各交涉 團體代表들이 二
投票한 投票用紙를 封固해서 封印하는것입니
다

누구라고 할때라도 이封印은 듣지못하는것입니
다 그러나 이것은 從來의 前例도 그렇고 또
한 投票秘密의 保障에있어서 原則입니다 이
것을 아무리 與野黨이라고 할찌라도 그原則은
反對할사람이 없는것이요 반드시 우리가 投票
가끝나면 이런 行使를해야 할것입니다

○副議長(崔淳周) 趙炳玉議員 말씀하세요
○趙炳玉議員 나는 이제 議事進行 二方針에있
어서 들린것을 指稱합니다

宋邦濤議員이 나와서 議長에게 말하기를 이번
表決하는때 있어가지고 秘密投票하는때 二秘密
投票하는 方法으로서 어떤方法으로 해야 좋은
냐고 물을때에 勿論 宋邦 議員으로부터 이것
을 구할必要도 元來 없겠지만서도 그러나 議
長에게 禮儀를 다해왔든 어쨌든 물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나는 崔副議長의 位置에 있
았으면 議長으로서 말하기를 結局은 議員으로
서 勸諭할 權利도 있는것이요 안할수도 있는
것이요 마음대로 하시요 이랬으면말이에요 그
로기는 예를본다 말이에요 예를라 마음대로하
라고 그러면야 으로는 무었을 몰라 議事規
則을 으른다고 하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議長께서는 제물을 잃었다고 하는것
을 내가 指稱하고 또 내가 尊敬하는 提案者

여러분께 말씀드릴것은 내 지난번 우리國會가
組織劈頭에 하기에려운말을 했는것입니다 낫살
이나 먹은 녀석이 와가지고서 이神聖한 議事
堂內에서 이런일이 있었다라 하는이야기 하는
것은 나로서 참 어렵는일입니다 더군다나 李
起鶴氏로 말하면 내가 數十年親舊요 또 崔淳
周氏로 말해도 그렇고 郭副議長도 그렇고 ; 如
何間 二個人士를 있어가지고 二번 投票중 안
해도 좋았다는것을 判斷했다 말이에요

오늘은 그와달라져 議長 副議長 두분만 아니
고 이야말로 아가 張澤相議員이 여기에서 부
로짖은것과 마찬가지로 百年大計를 위해가지고
우리國民을 代表해가지고 우리가 方針을 決定
하는 基本法을잡다가 起草하는 이마당에있어가
지고 萬一에 巷間에 들리는말과 마찬가지로
新聞記者가 떠드는 말과 마찬가지로 된다고할
것같으면 이나라의 民主主義는 어찌로가느냐
큰問題입니다 큰問題에요 내가 이質疑에 있어
서 大體討論을 한마디를 안했읍니다 다만 내
가 指稱하고싶은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나
라를 살릴사람들은 앞으로 이民衆을 살릴사람
은 여기에있는 여러분이올시다 또한 여러분이
代表하는 各選舉區에있는 國民들밖에 없다는것
을 알아야됩니다 勿論 社會도라에 依支해가지
고 偉大한사람이 날때에는 그일을 우리가 推
戴하고 欣慕하고 잘할때에는 萬歲를부르고 한
다고 할때에 잘못된것은 原則으로 나가서 이
나라를 살릴것뿐이에요 이나라 民主主義 색이
저가는 民主主義를 살리는것도 우리가 다해야
지 全部 二것을 三千萬과 韓半島를 갖다가

○趙炳玉議員 말씀하세요

○趙炳玉議員 말씀하세요

○趙炳玉議員 말씀하세요

○趙炳玉議員 말씀하세요

어찌할 한 사람의 품에 지고있는것 같은
이런것을 믿어가지고있는 二면(行動)을 取해서
는 안될것입니다 이秘密은 投票는 何것까지
神聖하게 그러므로해서 自己의 意思를 論바르
게 表示하도록해야 될것입니다

○副議長(崔淳周) 申辨 趙炳玉議員이 裁判會하
는 사람에게對해서 말씀을 했는때 아마 健忘
症이 드르진것같습니다 제가 말씀한것은 무엇
이나 할것같은 宋邦 議員이 「X」字로 쓰자
고 하는것은 議長으로 앉아서 獨斷의으로 決
정할수가없고 院議에 붙어서 한다그하는 意味
로 이것을 내가 혼자 앉아서 作定못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不招하고 드르다그 했다
는말씀을 하신것으로 잘못드르셨는지 或은 그
런지 아니면 健忘症에 드르셨는것을 나는 알
음할수 있는것입니다 다른議事進行에 對해서 發
言通知에 依支하여 鄭甲柱議員의 發言이 있었
습니다

○鄭甲柱議員 近二個月餘를 두고 與黨野黨이 가
장 熾烈하게 討論해오른 同項의 改憲案은 이
제따다른 公案에 드렸습니 다 이二個月의 過去
를 드라보고 本議員이 特別 느끼는것은 討論
에 있어서 質疑에 있어서 與野가 各樣 圓滿하
게 眞執하게 進行된것은 우리民主主義 政治를
위해서 大端히 榮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特別 野黨에 있어서 與黨과 眞은 다르다고
할지언정 忌彈없이 지적하는 討論과 質問을展
開해 주는에對해서 提案者인 우리 自由黨으로서
는 敬意를 表해서 마지않는 바이을시다
아까 宋邦 議員과 張澤相議員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신것도 또한 나는 근심하는 意味에
서 우리 國會議員의 尊貴한 意思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좋은것은 野黨에만 있고 與黨에 없으
리라고 하는 理由가 없습니다 우리는 與黨이
고 野黨이고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그야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衷情에서 各已 良心에따라
서 投票할것입니다 宋邦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이 「X」票도 아니다든지 무엇으로도 한다든지 하
는것은 民主主義의 自由에 矛盾되는 이야기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票도하든지 우리가
大韓民國의 國權으로서 國會議員의 良心에 呼
訴하시기에 自己마음대로 表示되는것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모처럼 重大한 決議를합다
당에 있어서 未觀의으로 獨善의으로 우리만
다하는 이것 내놓고 與黨이고 野黨이고 우리
가 나라를위해서 다 忠誠을다해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우리가 諒解해야 될것이올
시다 自己만이 愛國者이고 自己만이 훌륭한 議
員이라고 하는것은 理論이 成立되지 않는다그
것같습니다

이에서 다루시는 이改憲案을 이 以上의 討論
해왔자 結局은 한말이 覆復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가 議事進行으로써 以上으로서 討論은 終結하
고 各列에 한사람씩 監票委員을 議長이 呼名
해가지고 直刻으로 投票에 드머가기를 勸諭합
니다
(別紙 討論은 終結되어「한이있음)

○副議長(崔淳周) 鄭甲柱議員의 討論終結이라는
것은 벌써 지나간것입니다 지금 表決段階에 들

이어서 宋邦 議員이 否字와 可字에 「엑스」字
만 쓰고 二外의것은 無効로 하자고 하는 二
면 勸諭가 成立되어있읍니다 거기에 依해서 院
議에 붙어서 作定할것입니다
(議長發言通知내 붙었어오) 하는이있음)
表決에 들어가기 前에 朴海積議員 나와서 말씀
하세요

○朴海積議員 本議員이 몇일前에 質問때에 萬
若 暗號投票를 하면 大端히 可정인게 아니라
들이 國民投票라든지 憲法國民提議權까지 提議
해 드렸으니 民權을 이렇게 伸長하는 憲法改
正案을 提議해 드렸으니 實地로 行動으로서 民
權伸長을 國會議事堂內에서 부터 먼저하면 어
떻게느냐고 제가 質問했읍니다 거기에 張聯根
議員 말씀이 絕對로 念慮하지마시오 憲法精
神과 國會法에 依據해서 하신다고 말씀했읍니
다 二에서 오늘 宋邦 議員이 여기에 勸諭하시
기를 可에 否에 如何는 自己良心에 비추어서 「엑
스」標를 해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읍니다 어
기에對해서는 勿論 自由黨인 어찌운들도 어찌
운들의 名譽를爲해서 손을 붙여주시고 이것은
可決되리라고 믿읍니다 萬若 新聞紙上이나 巷
間에 붙고있고 二와같은 이런일은 勿論 없으
리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우리가 萬若 暗號投
票를 돈을 얼마주고 或은 어떤官權으로서 우
리가 한다그할것같은면 이것보다더 冒濫된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念慮마시오) 하는이있음)

(場內騷然)
어 이렇게요 暗號投票 해달라고해요 暗號投票

안한다 고 여기에 말씀하셨고 그만큼 民權을 伸
長하려는 自由黨議員 여러분들 國會議事堂안에
서 民權을 伸長해 주시요 暗號投票는 國會法違
反입니다

(場內顯然)

無効입니다

無効 그리고 萬若 이問題가 可決되기를 제
가 바랐나 다만서도 可決안되었는들 暗號投票 못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이 表決한 結
果를議長이 宣言하고난 다음에 그票을 保管한
必要가 없는것입니다 해 一旦 議長이 여기에
表決한結果를 宣言하고 난뒤에는 이것은 絕對
로 効力이 납니다 그러므로 二票는 다시 누구
라도 더 檢査할 必要가 없습니다 여러분 萬
若 우리들 民議院選舉에 있어서

(場內顯然)

여러분 물어보세요 二票를 保管하는 것은 或
은 投票에 있어가지고 다시 어떤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選舉訴訟期限中에는 그것을 保管해줄
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議長이 表
決한 結果를 宣布한뒤에는 아무일이 없습니다
可決可 否면 否로 決定되었으면 여러분지도 여기
에서 제가 말씀드린 動議를必要도 없습니다 議
長이 表決한 結果를 宣布하고 난뒤에는 그票을
여기에서 벗어 버립니다 이것은 아무 保管할 必
要도 없고 監票議員 여러분들이 하시는것입니
다 여러분들이 暗號投票...勿論 이것이 可決
되더라도 생각합니다만 可決해보았는들 暗號投
票는 許用못한것입니다 여기에서 宣言한 다음

에는 行動으로 하면 될것입니다 保管할 必要가 아
무것도 없습니다

(「정정말아요」 하는이 있음)

○副議長 (崔淳周) 여기에 대해서 金相教議員의
發言通知가 있습니다

○金相教議員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서도 不
得已 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석달장마가 지
나간다면 개귀신이 第一이라고 弱한 野黨側에
서 數도 적고 힘도 없는가답에 可否問의 이
表決만이 國會法에依據해서 良心的으로 處決되
는것을 고수속수하고 있습니다 한때 宋邦淵議
員이 이런 말씀을 勿論 老婆心에서 하는것로
압니다만서도 나이많은이 같은면은 或물라도
俗談에 자라고고 늘면가슴 소중보고 늘면다는
것과같이 空然한 老婆心에서 이런 疑懼心의 말
이 아니라 過去の 이러한 實情이 그런 經驗에
依支해서 或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것
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疑懼心조차
를 가져 오지않도록해서 이번에는 純粹한 가
운에서 이번表決이 되도록 해야할터인데 벌써
부터서 巷間에는 이번 表決에는 어떤이 어떤 方
法論이 있으리라고하는것과 아울러서 宋邦淵議
員이 많은 聽衆에 封緘을 물고서 여기에 속
에 있는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느냐고 할때
에 이肺肝肝臟에서 솟은 눈물 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말이라고하면 모르거나와 그
것이 事實이라고 할진대는 우리가 過去 五、二
十選舉에...여기에서 차지하고 武力壓力이甚
했거늘 議員들이 여기에서 投票하는때까지의 正

常性을 잃은暗號投票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自由黨에서는 그런理 萬無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속소하거나와 우리는 初代
의議長選舉때를 連想하게되고 國務委員 信任때
를 連想하게될때에 하물며 이러한 風說이 도
는데 있어서 이런것을 말씀할 道理가 없어요
그렇다면 當然이 副議長은 그것空然한 念慮이
나 依例히 그렇게 할것이라고 할진대 나는 모
르겠다고 하는 그點을 이제 發言을 하십니다
마는 百步를 躍해서 假定합니다 하면 絕對多
數를 가지신 여러분께서는 勿論 그렇게 해야
할것이라 空然한 疑懼心을 내게해서 未安해요
해 過去の 議長選舉때나 或은 國務委員信任때
그런 等等이 있었기때문에 野黨側에 그런 老
婆心을 주게된것이며 大端히 未安하거나와 이
번에는 보다더 重大한 일이기때문에 絕對萬無
하다고해서 거기異論이없고 雙手를 들어서 歡迎
해야될 雅量을 보이여야하거늘 이런問題가 나
오자 온집안이 擲擲을 한다는 그意圖가 어디
에있는지 實地가 없어요 이렇게 때문에 여러
분에게는 實地 좀 主唱이 있기때문에 可否
表決이 發表되었을나만서도 여러분 아까까지
의 그 擲擲의 動態를 볼것같은데 絕對多數를
가지 與黨분들이 있어서의 可決이 안되리라고
보거나와 여러분중에서 多大數가 國家民族을 爲
해서 아까 어떤분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最大의 良心을 가진분들이라고 믿기때는
다른것을 數에 依據해서 否決시킬지연정 이문
제의 宋邦淵議員의 動議는 누구보다도 絕對多
數의 與黨으로있어서 擧手할 해서 可決해주시

것을 열어 마지않습니다

이런點으로 보아서 마라전에는 與黨다운 雅量에서 國民이 注視하는 가운데에 이表決에 가장 公正性을 얻는다 고 하는데에 絕對多數를 可決해주시라는 意圖에서 이안程度로 말씀을 여우었습니다

○副議長(崔淳周) 梁瑛注議員 말씀하세요

○梁瑛注議員 議事進行으로 말씀 드려드립니다 本議員이 議事進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저하는 二要旨은 宋邦 議員께서 二勸諭를 撤回해주시셨으면 좋겠다는 見地에서 議事進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먼저 郭尙勸諭員이 나오게가지고 이 投票의 節次가 어떻게 進行되든 그結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것을 우리가 既히 잘 아는 事實이지만 이자리의 秩序를 維持하기爲한 老婆心에서 充分히 說明을 해주시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國會가 어디까지나 神聖한 國會로서 既定된 節次에 依해서 秘密投票을 끝낼내 秘密이 保障된다는것을 밝혀줬다말이에요 그럼에도不拘하고 어떠한 暗號投票라든가 其他에 秘密投票의 精神에 違背되는 그러한것이 이루어질수있다는 假定下에서 어떠한 勸諭를 한다면가 決定을 내린다고 하는것은 그 精神으로 보아서는 理解할수있지만은 結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나하면 副議長인 郭尙勸諭員이 여기나와서 무어라고 이야기했는들 或은 우리國會가 아모리 神聖하다고 말해보았은들 그것은 믿을수없으니 여기에 特別한 規定을 짓지않고는 안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니까? 제가 憶說일까요 或은 自由

黨이면 自由黨을 뜻망이가지고 어떠한 暗號投票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投票가 한번 끝난다음에는 嚴密히 封제가되니 누구나 여기에 對한 干涉을 할수없는 嚴然한 規定이 있음에도不拘하고 여기에對한 어떠한 自由를 拘束한다고 假定한다는것은 나는 이國會의 神聖한 尊嚴性에對해서 이것을 根本적으로 冒瀆하고 나가는 하나의 矛盾撞着이라고 보는것이요 하기때문에 改憲案이라는 이문제를 勿論事實대로 그重大性을 把握하면서 그러한 念慮가 지나온 그 誠意만은 大膽히 感謝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節次로 보아서 이程度를 되었으면 宋議員이 念慮하신 或其他의 諸議員들이 念慮하는 二點은 充分히 다 理解되었으리라고 보니까 이러한 不必要한 節次를 안받도록 誠意를 보여주시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너

○副議長(崔淳周) 任興淳議員 말씀하세요

우 唯我獨尊이 되어주시지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人格을 尊重한다면 남의 人格도 尊重해야되지않습니까 여러분만이 몇분말씀한분만 이 개웃하고 남이지 多大數는 全部 바지치고 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의 人格을 尊重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國會의 眞實한 尊嚴性을 保持하기 爲해서는 여기에 있는 二百三名 全體의 人格과 全體의 尊嚴을 損傷시키지말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任興淳議員 元來 院內에서 말씀을 하지아니하고 있는 本人이 이어려운때에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데로 알고 스스로 말씀을신가해보고도 생각합니

다만은 오늘 우리나라의 時間은 古리는 與野없이 慎重을 期할뿐이 아니라 서로 冷靜하고 이것을 善處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저런가닭에 나와 말씀드립니다 여

○副議長(崔淳周) 任興淳議員 말씀하세요

러분 나는 볼내 눈물로 보고 내가 아는일이 아니면 말안해오든 사담입니다만은 宋邦 議員이와 말씀한것 같은것을 나도 보기를 볼내 눈물로 보았읍니다만은 이것은 自由黨 指導層이 그럴리는 있겠읍니까만 指導層이 全體가 다 그랬다고까지 구대어 그럴것없이 一部 몇장들아때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二대 이 問題가 時時刻刻으로 되어나간다고 하면 結局은 그影響은 어디에 미치겠느냐 생각할때에 이 말을 아니할수없는 한편의 생각입니다 더욱히 尊敬하는 自由黨同志 여러분께서도 이것은 疎忽히 물어주시지 말아야 될것도 압니다 그러면으로써 나는 結論에있어서 기다란 말씀안하고 이 問題는 그런 일이 줄 있었다고 하지만 結論에있어서 投票를한後에는 다시는 그 投票한 內容을 누구든지 보이도록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으로써 아까 郭副議長이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投票를 여러분이 하신後에 그 投票의 內容이 누구한테든지 다시는 보여질수 없다는것만 保障된다고하면 이것은 根本問題에 관아가고 마는것입니다 그런가닭으로써 나는 아까 郭副議長이 나와서 말씀하기를 議事團의 全體으로서 確實히 副議長의 立場에서 말씀하는 二마은말씀 한마디 볼였어요 여기서 이런일이 있다고하드라도 副議長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거기를 秘密을 保持하도록 努力하겠다고 하

는 애기를 뒤 穩當한 애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담으로써 나는 지금 自由黨 某議員께
서 나와서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投票한後에
그 投票內容이 누구한테든지 보이지않도록 한
다면 問題는거기에 끝인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
면 아까 朴海臣議員이 나와서 말씀한바와 마찬
가지로 라기름 대나가서 그것을 封하고 그때
로 두는것이요 이 자리에서 監票議員 여섯분이
될는지 열두분이 될는지 이 자리에서 燒却하는
것도 좋다 이런 애기도 나왔으나 이것은 예
기할수없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담으로
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議長께 여쭙어보
기를 아까 郭副議長이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司會하시는 副議長도 亦是 郭副議長이 말씀하
는데 同感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
어가지고 다시 繼續해서 내견見을 말씀드릴려
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副議長 말씀이 郭副議長말씀과 똑같이 하겠
다는 말씀으로 나한대 言實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問題는참고대 애기하
지않는것이 좋다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제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플으로 宋邦 議員에게 말씀드립니
다 宋邦 議員... 제가 말씀한것이 宋議員이 모처
럼 勸議하신데 對해서 異常스러운 感이 있습니다마
는 宋議員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勸議를

어떠한 形式으로 成立되었으니까 解決되도록 宋
議員께서 誠意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邦 議員 表決方法에對해서 잠시나... 여러
분들에게 퍼블게한 點에對해서는 未安합니다 그
러나 여기에서 제가 勸議를 取消할것을 決定하
기전에 저는 지금 任興淳議員께서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封印해서 두는것은 一般野黨界議
員들이 믿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議長께서 자리에서 開票가 끝난뒤에 燒
却을 해주신다는지 그렇지않으면 開票가 끝난뒤에
封印하는데 있어가지고 監票議員의 圖章을 全
部 찍는다든지 두가지方法中에 한가지를 採擇
하겠다는 意見이 계시다면 저는 勸議를 取消할
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議長께 여
쭙어보는것입니다

○副議長 (崔淳周) 監票議員의 封印을하는것에
對해서 제가 贊成합니다

○宋邦 議員 議長께서 여기나와서 監票하는분들
의 圖章을 封印으로 찍는것을 받는다그고 그러
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表決이 神聖하고 自
由스럽게 自由를 保障하는 意味에서 이와같은
말씀을 提起했는것이기 때문에 저의 勸議는 撤
回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再請 三請하신것도 撤回하
십니까

(「네」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 勸議는 撤回되었습니다 表決에
어가졌습니다 表決하기전에 監票議員을 選定해
야 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議長이 自辭하시요)하는이 있음)

議長에게 一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吳議員
오십니까

(「吳議員오」하는이 있음)

萬若 異議가 없으시면 그때도 하겠습니다 每
列에 한분씩 呼名하겠습니다 나와서 手苦해 주
십시오 第一列에 崔昌壽議員 二列에 崔秉國議
員 三列에 金昌洙議員 四列에 金載坤議員 五
列에 鄭重燮 六列에 朴鍾吉議員 여섯분나와 手
苦해 주십시오 鄭重燮議員께서는 代身 蘇宜奎
議員이 하신답니다 그다음에 朴鍾吉議員 代身
에 李哲承議員이 하십니다 投票函과 名牌函을
封하겠읍니다 呼名에依해서 投票를 開始하겠읍
니다

(下午四時二十二分投票開始)

(下午四時四十五分投票完了)

○副議長 (崔淳周) 投票 안한분 안계십니까 다했
을것같은데는 名牌函과 投票函을 閉鎖합니다...
지금은 名牌函을 열어서 名牌數를 點檢합니다
名牌數는 二百二입니다 二百을입니다...
지금은 投票函을 열어서... 投票函을 열어서 投

票數を計算す候事なり

投票數五 二百二票 名牌數外投票數亦 符合す
なり

投票結果を發表すなり 在席 二百二人 可也 百

三十五票 否 六十票 棄權七票 否決の票なり

(場内騒然)

(下午五時七分數會)